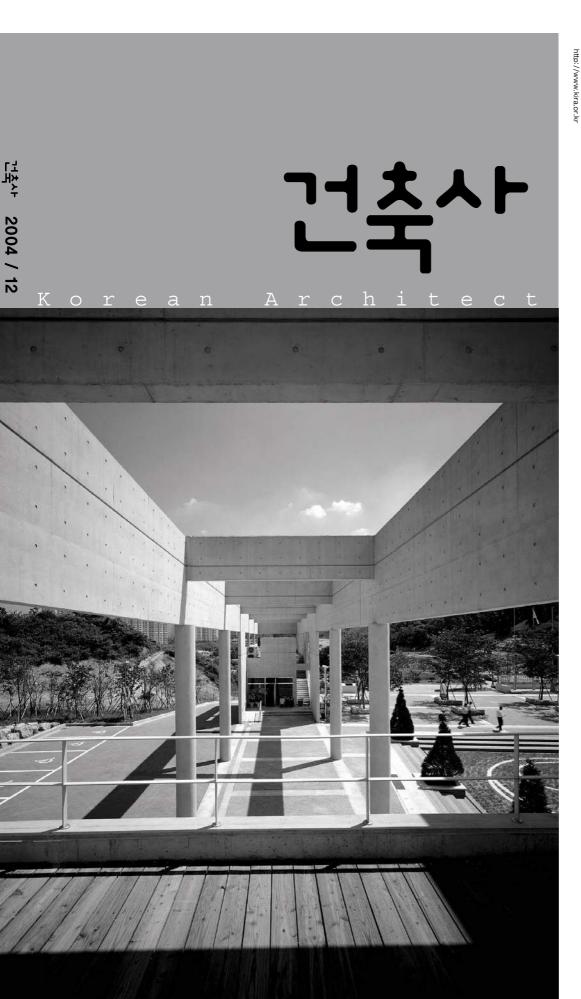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이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Contents







건축사

Korean Architect

12 小型

칼럼	직업으로서건축의모델과인재관리	김기환		12
				9.50
건축만평		유원재		15
LAFO		THEM		5
AND EDITION OF			CENTRAL	Sec.
회원작품	경기도국익당	김동훈		16
		한진수		24
		인신丁		24
	동대문구체육관	송이호	· 김영민	32
			1	
		uledal		01
	전성내목과 논란 및 근서드들	박명화		38
	수지 번호 2004	하견ㅎ	·김항년	44
		LOT	LOL	
		STREET		
계획작품	그러대학교 정보통신관	전병직	· 임기평	50
	저오시코 교육	저벼베	· 이시훈	52
	CEUC III	001	이시正	J
	WERN THE WAS LONG TO SERVICE AND THE WAS LONG TO SERVICE A			
특집	우리 협회 정관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55
and the co				
건축기행	이탈기추기원 이	김석환		68
신국/18	<u> </u>	김객관		O
연구	디지털환경과 건축설계	이관직		76
	BOOK WILLIAM TO BE THE TOTAL OF THE STATE OF			
Odali	URSIE OF SOLDSTAN	커케서		82
연재	네덜란드의근대접함주택-66	최재석		02
건축마당	협회소식			90
	71. 4. -0.8.81			01
	건축계소식			95
	현상설계			98
	NOTIFICAL.			15
	해외잡지동향·····			114

발 행 인

송수구 김선양, 장앙순, 김종복, 박영순, 손기찬, 오섬훈, 윤시덕, 이관직, 이재림, 이종호, 주수일 편집기획

__ 대한건축사협회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137-857

· 우편번호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 쇄 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거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n Arch itect

Vol. **428** December 2004

Column Kim Ki-Hwan oo Won-Jai 15 Gyeonggi Korean Traditional Music Co Dong-Hoon Han Jin-Soo Yeong Kwang J's Residence 24 Song I-Ho & Kim Yeong-Min 32 Konyang Univ. the main building & Concert Hall Park Myung-hwa Suji Building 2004 Han Kyung-Ho & Kim Hang-Nyeon 44 **Process work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enter, Korea University Jeon Byeong-Jig & Lim Ghee-Pyeong 50 Jeongeup Shin Kwang Church Chung Byung-Bai & Lee See-Hoon 52 Special Issue Thoughts on Amending KIRA's Articles 55 **Architecture Travel** Kim Suk-Hwan 68 Study Lee Kwan-Jick 76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82 Architects' Plaza Overseas Journal

Publisher Song Swoo-Koo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o-Il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직업으로서 건축의 모델과 인재관리

The Model of Architecture as a Profess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건축과 졸업생의 취업 실태

매년 연말이 되면 고등학생들의 입시경쟁이 벌어진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이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졸업 후 좋은 직업을 택해서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와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좋은 직업의 출발은 좋은 직장에서이다. 건축이라는 직업이 과연 좋은 직업일까.

아직까지 대학입시에서 건축계열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과계열에서 의과대와 전자, 컴퓨터계열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위 등급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학급에 최상위권에 속하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를 한다. 면접시험에서 여학 생들에게 응시동기를 물어보면 방송에서 러브하우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창작과 봉사 그리고 멋진 건축인들의 모습이 자유스러우면서도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군에 속한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입시경쟁에서 건축과에 합격을 하고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후배 건축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할 것인가. 이 문제는 건축계에 있어서 당장의 현안은 아닐지 몰라도 건축계의 발전과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특정학과에 진학을 하였는데, 졸업 후 직업으로 또 직장으로 그 분야가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서 그 분야의 평가와 위상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건축과를 졸업하는 졸업학년의 취업양상은 상당히 이상하다고할까 왜곡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취업률은 낮다. 그런데 취업할 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이 더 적다. 올해 필자의 연구실을 졸업하는 대학원생까지도 건축계통의 직장을 마다하고 공채를 통해 대기업의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하였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하고 어렵게 2년간을 연구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면서 건축을 포기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물론 교육투자를 한 대학이나 건축계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지도교수가 어렵사리 구해준 직장을 마다하는 풍토는 학부 졸업생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 건축학 계열로 졸업하는 학생이 대략 50여명 정도인데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20여명이 안된다. 30명은 아예 건축계통으로 취업을 하려하지를 않는다. 나머지 20여명도 교수가 추천하는 건축사사무소보다는 공채를 하는 대규모 건축사사무소로 몰려있다. 사태가 이러니 게시판에는 사원을 추천하겠다는 공고가 몇 달째 붙어있어도 응시자가 없다.

최근에 청년실업은 사회문제화 되어있다. 건축계에도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실업자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적인 청년실업자의 50퍼센트는 한번 이상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취업을 포기한 이유는 직장 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만족의 이유로 낮은 연봉, 복지정책의 미비, 회사의 불안정한 미래 등을 들고 있다. 아마도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려는 희망자가 적어지는 이유도 일반적인 청년실업자의 경향과 유사하리라 판단된다.

직업의 변화와 직장의 조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에게 신입사원에 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한다. 요즈음 신입사원들은 예전만큼 끈기가 적고 버티는 힘이 약하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 두려고 한다. 우리 때는 보수가 적고 일이 많아도 건축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하였는데 이제는 많이 변했다.

그렇다 이제는 많이 변했다. 건축을 예전과 같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죽어도 건축만 하겠다는 일관된 생각을 하는 학생은 없다. 좋은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한 직업으로 또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인적지원부에서 일선교사나 교수들에게 교육보조로 제시한 '미래의 직업세계' 라는 연구보고서 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평생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5~6개의 직업을 선택할 준비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청년들도 때에 따라서는 자의든 타의든 몇 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미래의 직업이나 직장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건축가들의 현실적인 사고이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들을 바라보어야한다. 우리가 젊은 인재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평생직장은 아니라도 평생직업으로 건축을 보아달라는 것이다.

직업으로 건축이 갖추어야할 모델

직업이라는 말은 직(職)과 업(業)의 합성어이다. 직은 공식적인 어떤 위치를 나다내며 업은 구체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정부가 발간하는 직업사전에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직업의 충족여건은 경제적요건과 사회 활동적 요건이 있어야한다. 그런 의미에 건축은 어떠한가.

건축 특히 건축설계 계열은 서비스업종에 속한다. 기분 같아서는 문화 예술분야나 첨단과학 분야에 속하면 좋겠지만 불행이도 요즈음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다. 다만 건축사는 전문기술직에 속하여 직업의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다. 홀랜드의 직업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6가지 직업의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진다. 실재적 유형, 탐구적 유형, 예술적 유형, 사회적 유형, 기업가적 유형, 관습적 유형의 6가지 유형이다. 이중 건축설계업은 예술적 유형이나 탐구적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자기만족이 강하기 때문에 타 분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직업분류상 건축이 양호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제활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건축설계직이 좋은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족 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보장되어야한다. 이 문제에 도달하면 건축인 스스로 이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제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경기에 흐름을 탄다거나 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차체하고 라도 경제적인 보수가 기능원이나 단순노무 종사자 수준인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있는 필자로서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직업내의 카르텔(기업연합이나 기업간의 협정)이 조직되어있지 않다. 우리의 경쟁은 내부경쟁이다. 건축설계 건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피해를 본다. 흔히 말하는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파이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내 것으로 하려는 근시 안적인 사고가 건축의 직업관에 뿌리 박혀있다. 그래서 일만 많고 돈이 안 된다고 한다.

두 번째, 건축설계업을 기업으로 생각하여 경영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서비스업으로 생각한다.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사람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즉 자본, 경영, 조직, 복지와 같은 기업의 요건 들을 무시한 채 운영한다. 요즈음의 청년 건축인들이 직장으로 건축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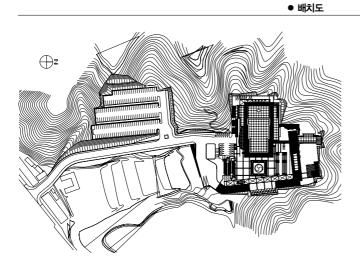
세 번째, 투명경영과 임금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 경영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을 수주한 소장이 대충 경영을 한다. 소장은 나름대로 미래가 불안하니 불경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두어야 한다. 회사라는 조직이 있으므로 일을 수주하였고, 그 조직에도 공과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약하다. 따라서, 소장이나 사장의 자본축척이나 이익배분이 직원들의 급료에 비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5년제 청년 건축인을 배출하면서 타 분야의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못한 보수와 처우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걱정이다.

건축을 직업으로 선택한 인재들이 학창시절 타 분야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학비(작품제작비 포함)를 들여 졸업하게 되면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비전을 보여 주어야한다. 만약 현재의 실정에서 볼 때 직업으로 건축이 구조적으로 타 분야보다 비전이 적다면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할 때이다. 앞으로 5년제 졸업생이 나오면 그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할 것인가도 우리들의 몫이다. 이제는 당장의 건축업계의 문제보다도 10년 뒤, 20년 뒤의 직업으로의 건축을 예견해 보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圖

• 014

경기도 국악당

Gyeonggi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산 21-5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대지면적 35,855,00m²

건축면적 3,810,29m²

연면적 5,863.64m²

건 폐 율 10.63%

용 적 률 13,6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화강석물갈기 +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T=30 화강석물갈기

주요설비 단일덕트 정풍량 방식의 공기조화 및 펜코일 유 니트 방식

설계담당 임채돈, 김남주, 정연거, 정순철, 이태현, 김종군, 장석윤

인테리어 경기대학교 건축환경계획연구실

구 조 (주)동양구조안전기술

설 비 (주)현우M.E.C

전 기 (주)무림설계기술단

조 경 (주)무림그룹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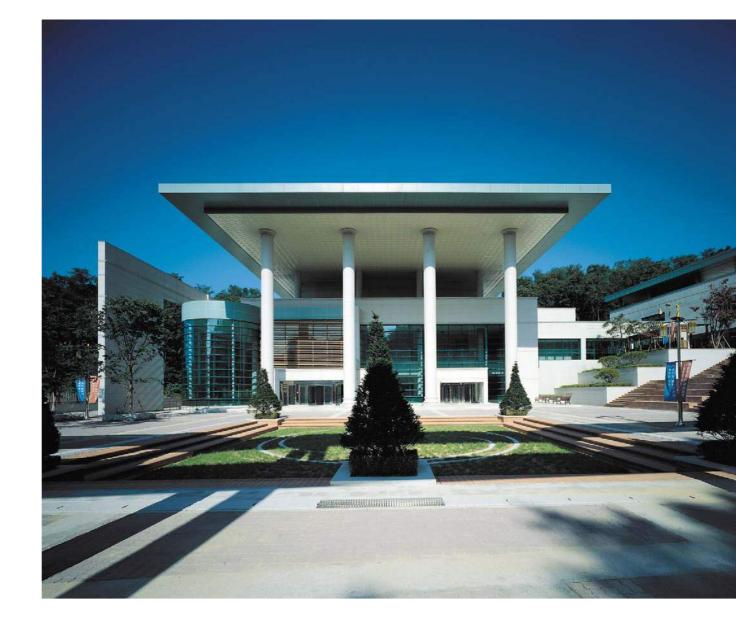
토 목 (주)세광ENG

감 리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제일건설 주식회사

건 축 주 경기도지사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경기도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악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함은 물론복합 문화 공간(공연, 전시, 관람, 체험, 수련, 먹거리, 전통 혼례 등)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경기도 국악당을 계획하였다.

필자는 이 작품을 구상함에 있어 우리나라 전통건축 개념과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며, 민속촌과 박물관 인근 지역에 있는 수원 화성, 세마대, 용주사, 와우정사, 신갈 저수지, 원천 유원지, 에버랜드, 김치박물관, 등잔 박물관 등 수원, 화성, 용인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 및 이와 연계 가능한 관광벨트를 구성, 특성 있는 경기도 국

악당으로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이 작품은 전국 현상공모를 통하여 당선 된 작품으로 당초 부지는 지금의 백남준 미 술관이 지어질 장소였으나 부지의 협소함과 민속촌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치로 변경 되면서 많은 부분의 계획들이 변경 되었다.

자연 지형지세

대부분의 사찰 및 서원들이 그렇듯이 국 악당 역시 자연 지형지세를 최대한 배려하 여 공간 배치를 하였다.

마당 개념 도입

각각의 공간을 독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간의 연계는 마당 개념을 도입하였다. 국악당 진입부에 진입 마당을, 공연장 앞에는 안마당 개념의 태극 마당이 계획 되었다. 이 두 마당 사이에는 레벨차를 이용한 공간 분리가 되었으며, 두 마당의 연계는 계단과 경사로 등을 설치함으로써 노약자,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다. 또한 공연장과 수련시설의 공간적 독립 역시 레벨차를 이용하여 태극마당과 소리마당을 계획하였고, 이들의 연계는 관람석겸용 계단과 공연장에서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복도를 채택하였다.

차경

병산 서원 등에서 보듯이 우리 옛 선조들은 집을 그냥 집으로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같이 지은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을 계획 하면서 부지를 수십 번도 더 와 보았다. 전면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거북스러워 공연장의 배치를 틀어 앉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공연을 마치고나오는 관람객들은 물론 태극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국악당 자체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함

건축 계획을 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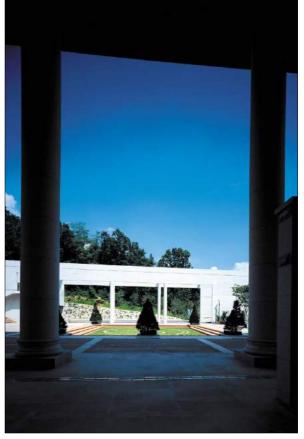
위한 시설로서 흔히 경사로 등을 채택한다. 필자 역시 비슷한 방법을 택하였으나 노약 자 및 장애인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1 차적 접근 방식이 경사로가 아닌 공연장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차량 동선 계획이었 다. 또한 공연장 내부가 아닌 마당 근처에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계획하 는 것이었다. 실제로 준공 후 국악당을 방문 하였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유용하게 이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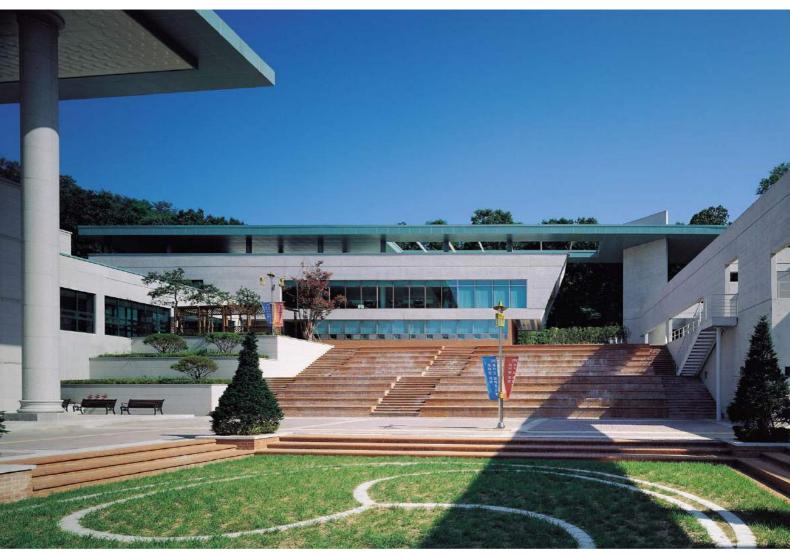
증축을 고려한 계획

관 공사를 보면 항상 예산 문제 등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증축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건물 형태도 많이 변모하여 애시 당초 작가가 의도하였던 것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 국악당 역시 그러한 경우를 대 비하여 증축의 여지를 충분히 두었다는 것 이다. 우선 무대의 증설을 위하여 무대 후면 에 기초를 계획 하였고, 증축 시 예상되는 입면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 곳곳에 증축을 하여도 전체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글/김동훈)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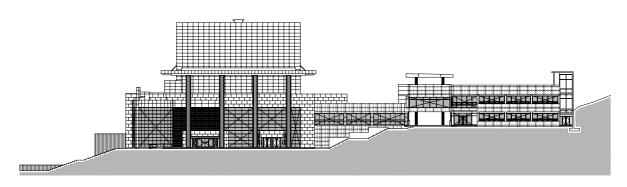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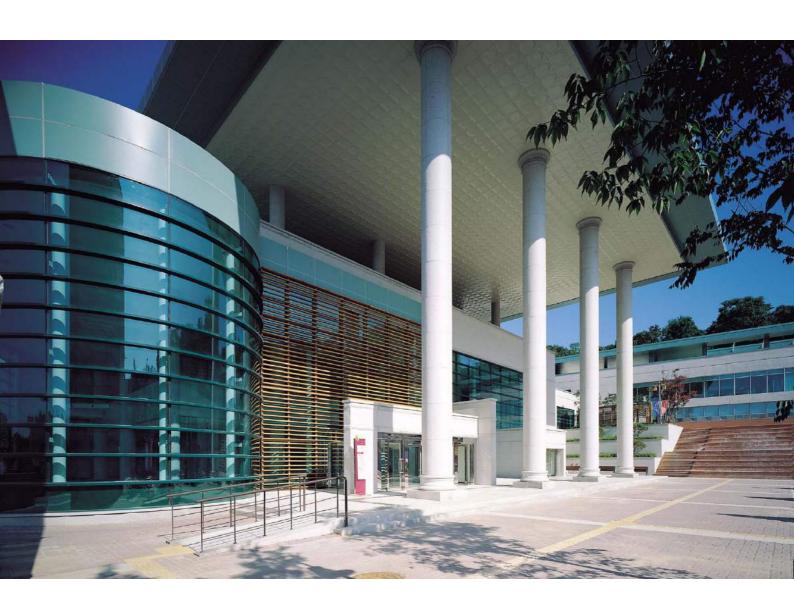
01_ 홀 02_ 주무대 03_ 객석 04_ 안내 05_ 조명조정실 06_ 방풍실 07_ 기계실 08_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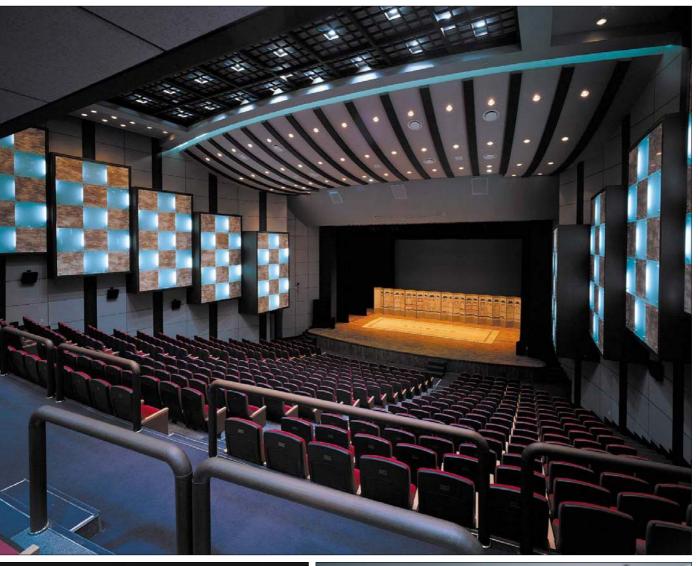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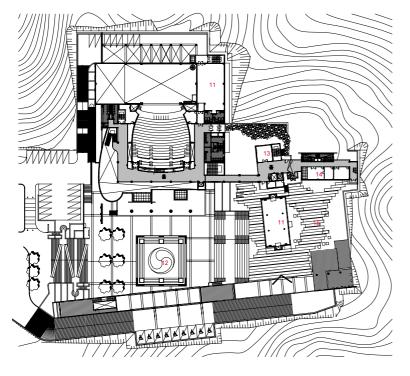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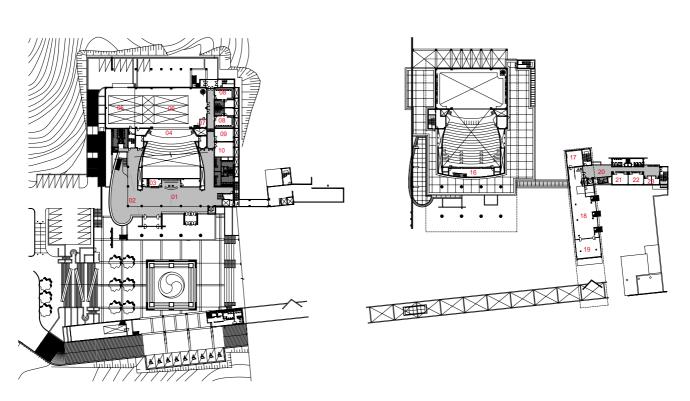


• 022 Korean Architect December 2004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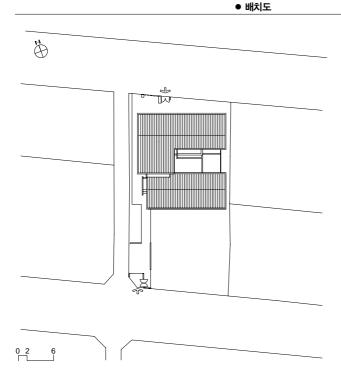
01. 로비 02. 리셉션/전시홀 03. 매표소 04. 앞무대 05. 축무대 06. 주무대 07. 무대 조정실 08. 보장실 09. 악기보관실 11. 연습실당 11. 연습실당 11. 전염실당 13. 국악감상실 14. 사무실 15. 소리마당 6. 영사/조명/용향/조정실 17. 주방 18. 레스토 19. 창고 20. 홀 21. 기악연습실 22. 소리연습실 23. 개인면습실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영광J씨 주택

Yeong Kwang J's Residenc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002.00m²

건축면적 264.82m²

연 면 적 349.41 m²

규 모 지상 2층

외부마감 온양석 치장쌓기, 천연 스레트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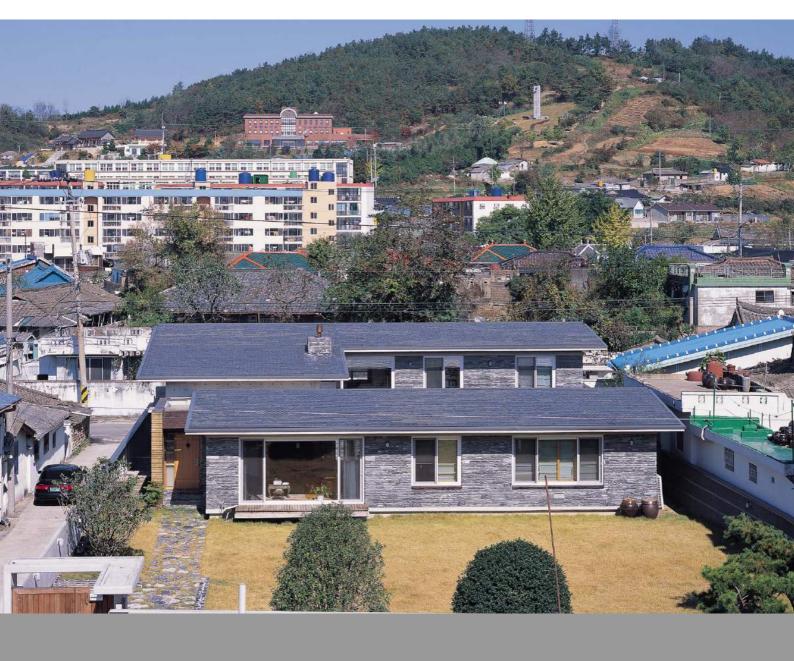
오래된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택은 3대가 함께사는 주거 공간으로서 세대간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동시기 정서적 공유의생활을 내포하고, 공간을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면 미당을 통하여 집에 들어서게 되고마당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이 이루어지며, 기능에 따라 방들이 배치된다.

방을 연결하는 통로는 선적 공간에 따라 시간을 이야기하고 각 방에서 안마당으로 유 도하고 있다. 닫힌듯 열려 있고 비어있으나 사용함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는 안마 당은 이주 특별한 의미의 정서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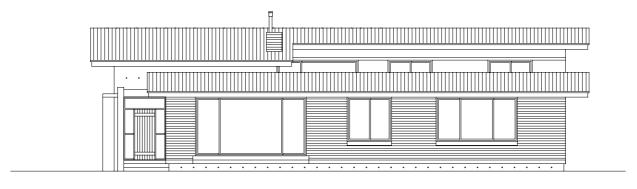
건물과 담에 의하여 구분 되어지고 인접 건물과 담당 공간을 한정하는 후버는 겹겹히 둘러싸인 공간을 형성하게 되어 공간에 깊이 가 있게 함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운행이 변 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마당의 정원은 외부전망 및 사색을 주 로한 자연공간으로 구성하고 여유공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풍경의 다양함은 자연히 내 부 공간의 시각적인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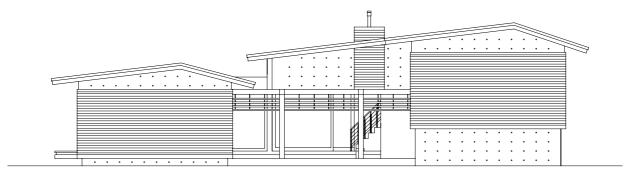
재료가 가지는 질감과 무채색의 건물은 음영공간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조형적 공 간의 단아함을 보여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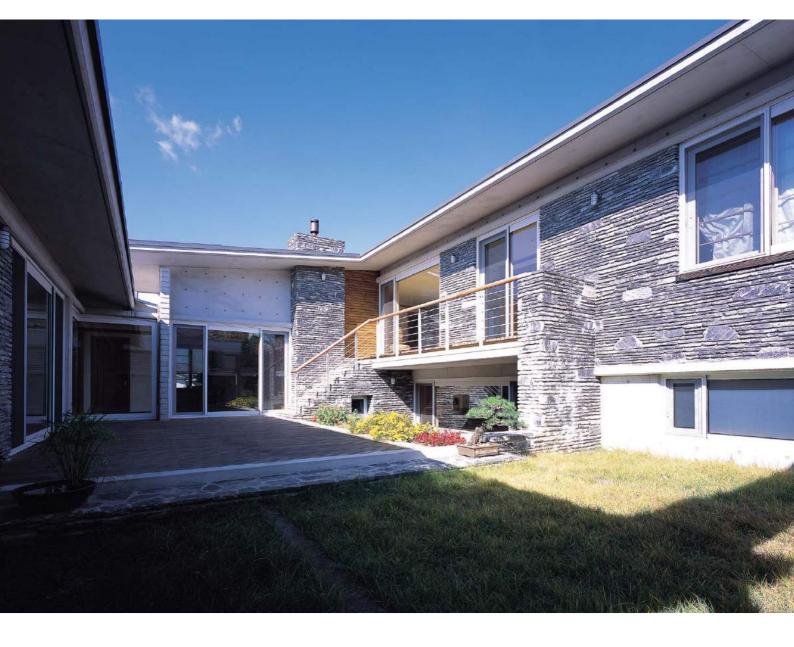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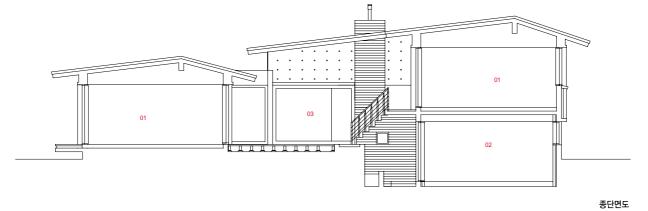
우측면도



● 026 Korean Architect December 2004



01_ 거실 02_ 가족실 03_ 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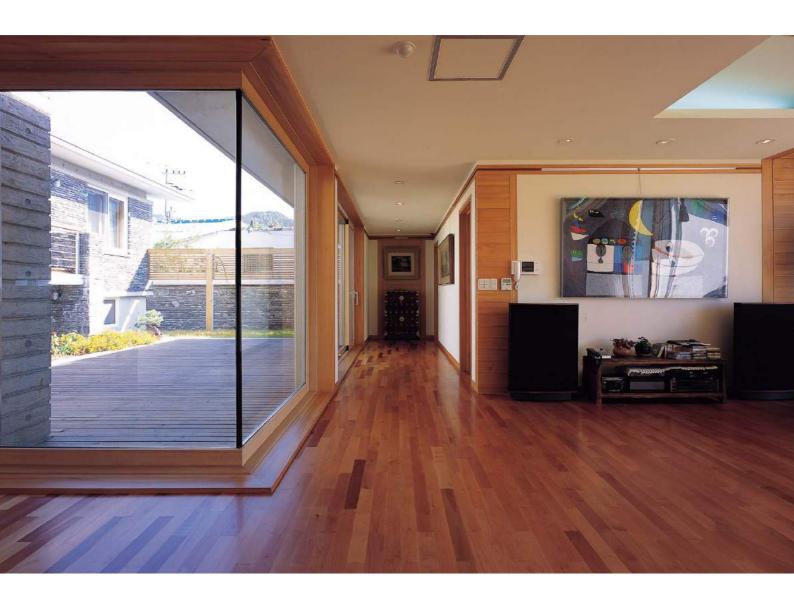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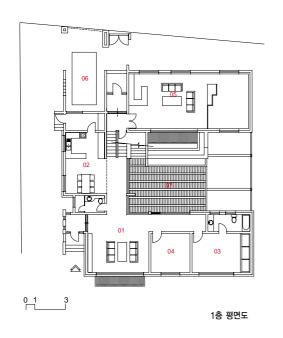
● 028 Korean Architect Decemb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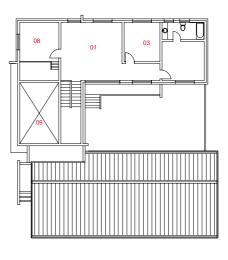








01_ 거실 02_ 주방 및 식당 03_ 방 및 식당 04_ 서재 05_ 가족실 06_ 차고 07_ 안마당 08_ 아동실 09_ 식당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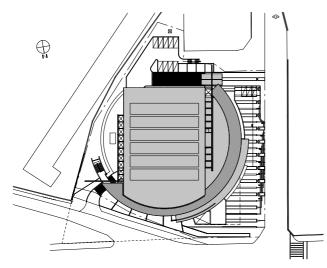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동대문구 체육관

Dongdaemun Stadium

바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15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용 도 운동시설/체육관

대지면적 5,746m²

건축면적 2,912.42㎡

연면적 5,742.69m

건 폐 율 50.69%

용 적 률 68.5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골트러스+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쉬트

내부마감 흡음재,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남윤희, 박은숙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설계의 기본방향

대지 레벨차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 및 명확한 조닝으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세웠다. 북, 서측의 개방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시야를 확보하여 최대한의 조망효과를 창출 했다. 주변 시설과의 적절한 차단과 개방으로 연결공간을 구성하고, 인근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만들었다. 전체적인매스개념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주어진

지형의 건축적 공간으로의 재탄생에 두었다. 혼잡한 인접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계획하고 과다한 구조노출을 지양한 단순한 입면을 디자인하였다. 인근 문화회관과 근린공원과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실내의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도심 속에 자연과 함께하는 체육관을 만들었다.

대지 위치 및 현황

동대문 실내체육관은 동, 남측으로 초등 학교와 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25m 전면도로가 한천로와 전농로의 통과도 로로 추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과 인파 가 많은 지역으로 파악 되었다. 때문에 한천 로와 전농로의 연결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의 차량 접근의 필요성이 있었 다. 한편 근접한 문화회관과 근린공원의 연 결성을 고려해야 했다. 동대문 실내체육관 은 동서로는 주택가가 있어 조망이 좋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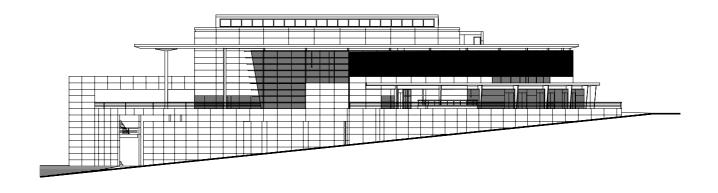
은 편이었으나 남쪽으로 남산과 서울타워가 보인다.

평면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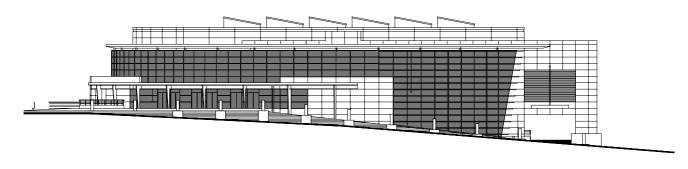
동대문 실내체육관은 다양한 체육활동이 요구되는 건물로써 합리적인 단위 모듈이 요구되는 건물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는 가변성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평 및 수직동선의 최소 및 이동공간을 최소화 한 것 또한 특징이다. 단위공간은 자치구민들 의 체육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대체육관 및 소체육관을 비롯하여 휴게음식 점, 의료실, 숙직실, 조깅트랙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입면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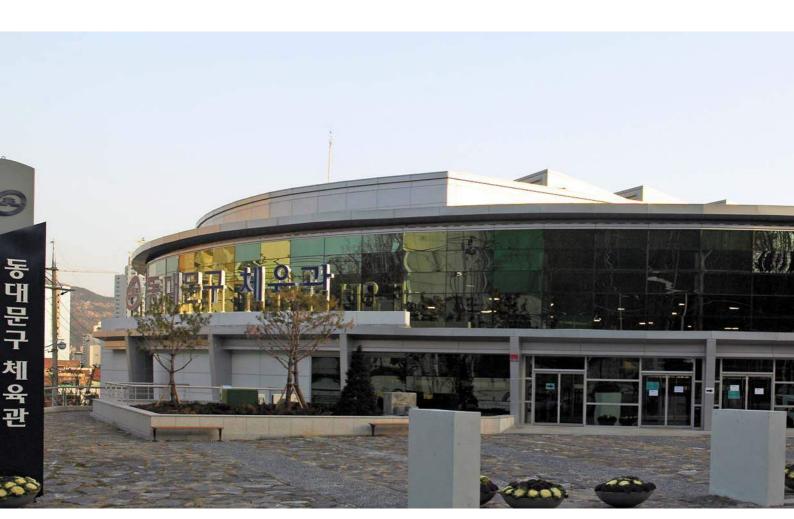
자치구의 랜드마크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 다. 외장재는 유리커튼월과 노출콘크리트 그리고 금속판넬로 구성하였다. 외장재는 누구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리커튼월은 개방적이고 확장감 을 주어 지역구민에 친밀감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솔직한 재질로써 노출콘크리트를, 미래지향적인 자 치구의 랜드마크적인 입면을 위하여 금속패 널을 적용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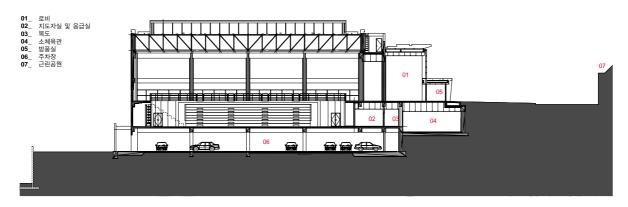


서측면도



북측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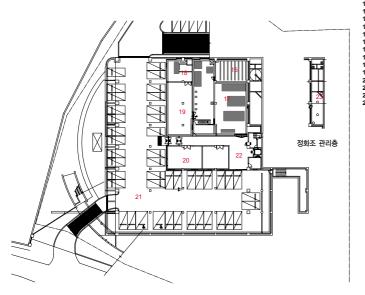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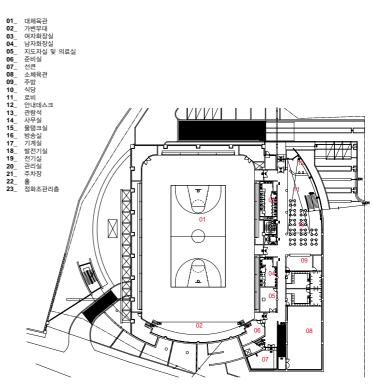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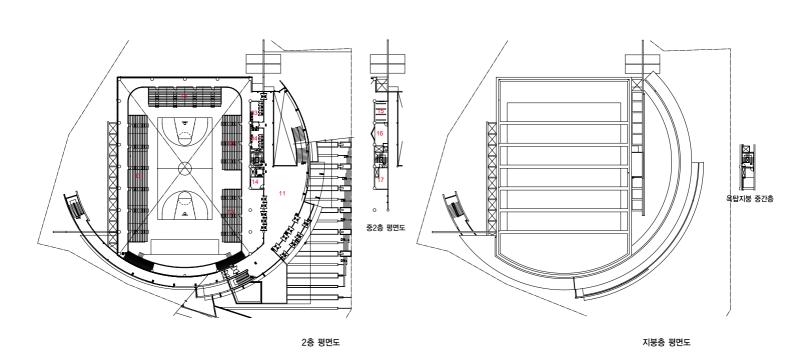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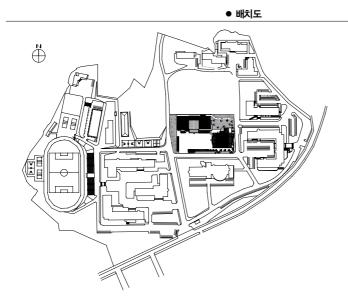
• 036





건양대학교 본관 및 콘서트홀

Konyang Univ. the main building & Concert Hall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26번지

용 도 교육시설 건축면적 4,067,07 m²

연면적 17,693.61m³

한 는 극 17,090,01m

규 모 지하1층 지상 7층(본관) / 지상 3층(콘서트홀)

구조철근콘크리트조내부마감화강석물갈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설계담당 신양식, 김진환, 박성열, 권오영, 이수경, 정재우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회와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의 바탕으로 지 역사회와 학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공 간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본관과 다목적 콘서트 홀의 개발을 추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주차장과 농구장으로 쓰이던 부지 를 신축 개발하여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본관과 다목적 콘서트홀 그리고 중앙광장이 들어서 있다.

신축 건축물들의 위치는 건양대학교 전체 캠퍼스부지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배 면에 얕은 구릉지를 두고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사지에 자리를 잡았다. 본관의 높이를 7층으로 계획하여 배면에 위치한 구릉지와의 시각적 상호간섭을 최소화했고, 다목적 콘서트 홀 또한 기존 경사지에 위치하여 내부객석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었다.

배치에 있어 남향의 본관과 동쪽에 자리 잡은 콘서트 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다양 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중앙광장이 위치 하고 있다.

이 중앙광장은 각 단과대에 있는 소규모 광장들과의 위계성 및 연속성을 부여하여 캠퍼스내의 중심적 Open Space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광장 외곽을 통과하는 도로를 계획 도중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보행자 전용의 광 장이 되도록 했다.

본관은 저층부에 도서관과 컴퓨터 정보 검색실 및 학사관리처로서 학생들에게 제공 되며, 고층부에 학사관련 시설이 배치되어 학생과 학교의 자연스런 교류를 유도하였다.

콘서트홀은 500석 규모로 계획되어 학생들의 문화 공연활동과 지역사회의 지원시설로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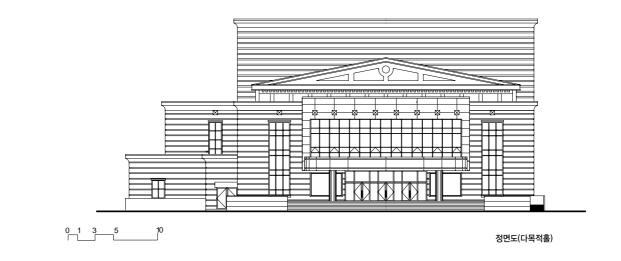
콘서트홀 동측 벽면은 Out of Scale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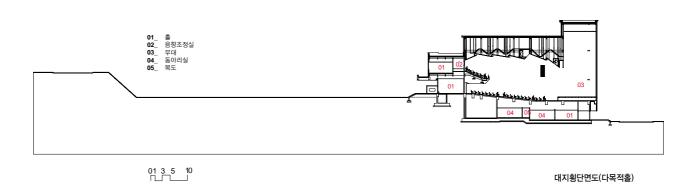


한 위화감과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 곡면처리와 수평띠를 사용하여 수직성을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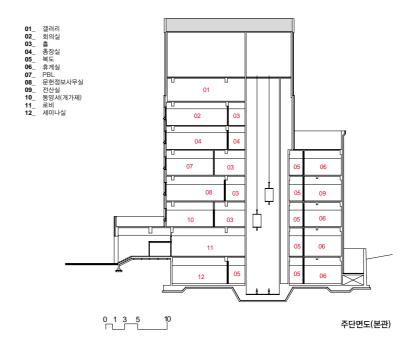
주변의 단과대 건물들이 적벽돌을 사용하여 캠퍼스 전체의 색감은 붉은색인바 본관과 콘서트홀의 상징성과 장중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건물외벽은 화강암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 붉은색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 이질적이면서 조화적인 색채계획이되도록 했고 캠퍼스 정문에서도 알아볼 수있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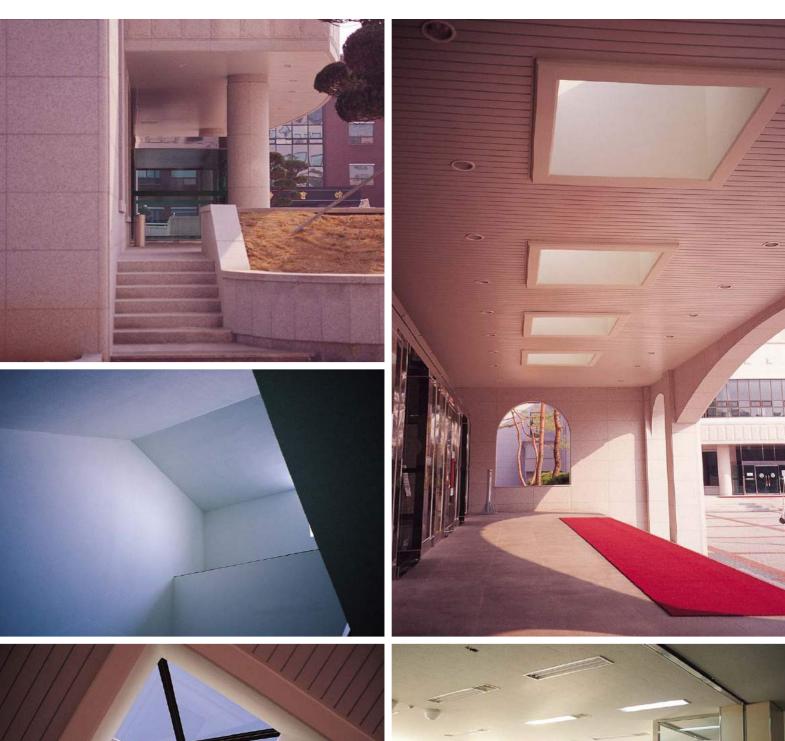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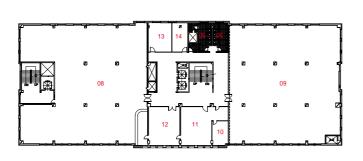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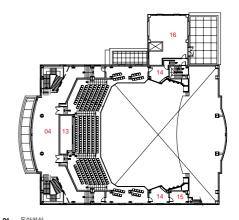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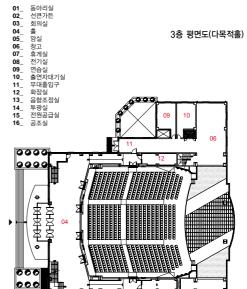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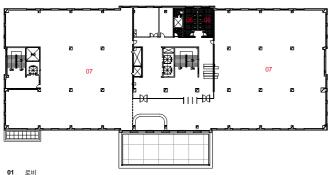
● 042 Korean Architect Decemb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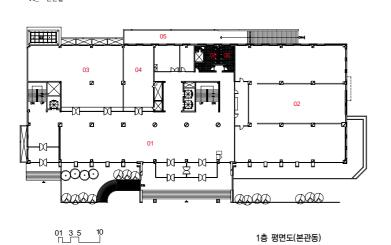
3층 평면도(본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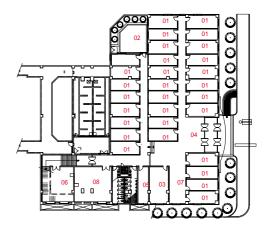




01. 로비
02. 자유열람실
03. 전자정보실
04. 아동열람실
05. 휴개실
06. 화장실
07. 개가서고
08. 참고열람실
09. 서양서(폐가제)
10. 도서관장실
11. 문한정보서무실
12. 도서정리실
13. 교육매체제작실
14. 전산실

2층 바닥 평면도(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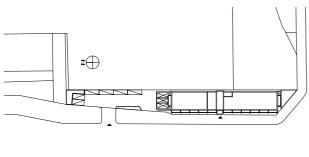


• 043

1층 평면도(다목적홀)

수지 빌딩 2004

Suji Building 2004





 ● 배치도
 ● 건축개요

 \ | |
 대지위치 용인시수지읍 죽전리 1003-112

지역지구 준도시지역(취락지구)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861,00m²

건축면적 360,77㎡

연면적 1932_.82_m

건 폐 율 49.37%

용 적 률 199.26%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지하-철근콘크리트조, 지상-철골조

주차대수 14대

내부마감 THK30 화강석 물갈기, 내부용 본타일 및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철골위 페인트, THK250 ALC블럭위 수지모르터,

THK30 화강석

시 공 우륭건설(주)

감 리 (주)예창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이정재, 김재욱, 최광순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Site

이 건물이 위치한 죽전리 1003-112번지는 분당의 성남대로 끝의 고가도로와 수지의 43번국도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다.

대지 폭은 10m가 안되고 길이는 95m정도 되는, 좁고 긴형태를 가지고 있어 직각주차도 안되고 건물폭도 7.6m밖에 확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전면도로에는 고가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 건물의 인지성은 떨어지고 뒤에는 기존의 고층이파트 단지의 큰 매스가 버티고 있다.



Concept

이 부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여기에서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들은 주변과의 조화, 솔직함, 환경친화적, 전통미 등 이었다.

Planning

고층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하여 버거 운 고가도로를 마주하고 사거리 한쪽 모퉁 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건축물은 교차 로와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조화로워야 한 다. 이것은 18층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인해 가로변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완화시 키는 높이로 계획되고, 동쪽인 아파트 쪽은 창문을 최소화 하고 유리를 불투명으로 처 리하여 주민들의 privacy를 지켜주려 하였 고, 주민들에게 보여 지는 입면도 너무 답답 하지 않도록 격자의 pattern으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건물의 색채도 아파트와 유사한 색상계열을 채택하여 거부감을 줄였다.

건물의 평면은 중앙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쪽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된 단순한 구성이나 양쪽 끝에 다용도의 발코니를 설치하여 각 unit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면의 구성은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시켜 골조를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여 구조체인 철

골을 노출시키고 그 사이에는 유리로 마감 하였다. 다만 발코니는 설비 및 배관이 노출 되면 미관상 좋지 않아 난간대신 목재판을 천정까지 설치하였다.

환경친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 제인 바, 재활용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는 부득이 지하층에만 사용하고 지상은 철 골구조로 하였고, 외벽에는 시멘트블럭 대신 ALC블럭과 유리를 사용하였다. 옥상에 설치한 옥상녹화는 벽돌보다는 목재와 석재를 사용하여 조경구획을 하여 건물이 조금이라도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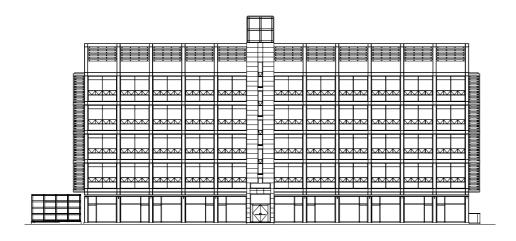
건물의 입지 및 용도의 제약으로 전통건축의 공간론적 구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세부 디자인에서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을 응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건물외벽은계단실을 구심으로 하여 격자창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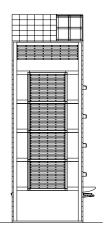
Pattern이 반복되도록 하였고, 1층 shop의 전면차양은 초가집의 처마처럼 서가래 선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아파트 쪽 배면은 대청에서 뒤뜰 쪽으로 난 쪽창의 느낌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가로변을 구성하는 하나의 건물로 서 있는 건축물이 눈에 드러나 시선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주변의 개발되어가는 상황과 융화되고 기존의 건물들과 조화롭게 오랫동안자리했으면 한다. 圖

01_ 근린생활시설 02_ SHOP 03_ 물탱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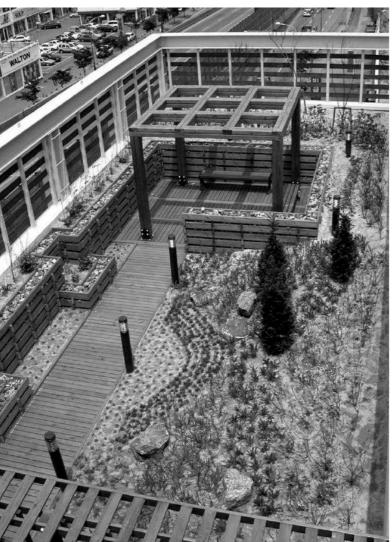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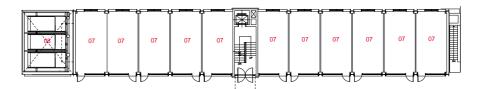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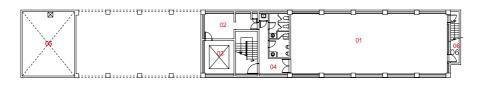




- 01. 근란생활시설 02. 기계실 03. 돌탱크실 04. 복도 05. 기계식 주차장 PIT 06. 창고 07. SHOP 08. PUZZLE PARKING 09. 발코니 10. 옥상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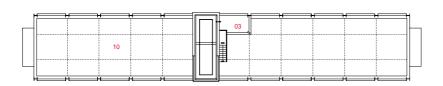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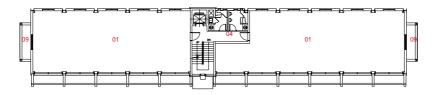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048





지붕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 049

고려대학교 정보통신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enter, Korea University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번지 외 26필지

● 건축개요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시문화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대지면적 640,260.00m²

건축면적 1,094,84m²

연면적 7,712.97m²

건 폐 율 0.17%

● 배치도

용 적 률 0,82%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대리석, 화강석 물갈기, 비닐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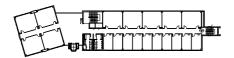
내벽/화강석물갈기, 본타일

천정/ 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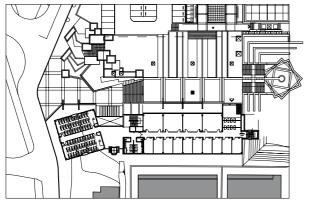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마감 + T24 저반사복층유리

설계담당 이완용, 박성진, 양정호, 황동선, 김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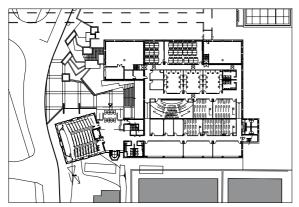




2~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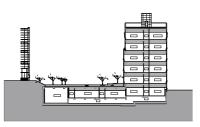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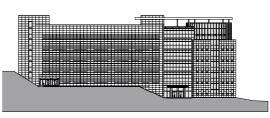
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학생시절의 그 때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어서 좋다.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건물이 개선되었으면 하곤 했는데, 이제 막상 그런한 고민들을 해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니 약간은 긴장이되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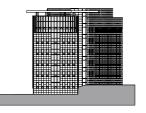
현 대지는 고려대학교 이공대학에 속한 부지다.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고덕양식의 고전적 이미지의 건물이다. 하지만 본관 건물과는 거리상 떨어진 곳(안암로타리)에 위치한 이공대학내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현대적 이미지의 건물들이다. 문과대학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양식을 떠나나름대로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어서 부담감은 덜하였다.

동측 후문을 통해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바로 돌아서 면 과학도서관 동측으로 낮은 아산이 있다. 기존 생명 환경과학대학 실험실습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생명환 경과학대학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그 옆에 정보통신관 건물이 신축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초기안에서는 배치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되어있었으나, 대지 남북방향으로 폭이 줄어들어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학교 출입문 방향에서 접근할 때건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지 형상에 맞게 설정된 배치축과 진입축을 어긋나게 형성하여 건물배치와 건물인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지 전면과 후면의 대지 경사차가 10m 정도 차이가 나서 이러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여 출입구는 전면에서는 지하1층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 후면에서는 지상1층에서 외부와연결하도록 했다. 또한, 조경설계에서는 계단식 화계를도입하여 자연스럽게 단차를 극복하도록 했다. 외장재료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강석 버너구이와 투명유리를 사용하였다. (글/임기평) 圖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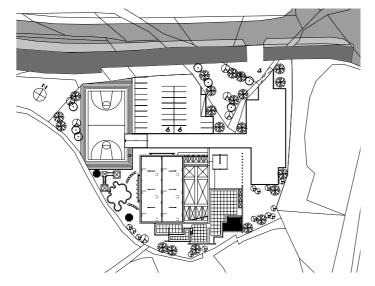
입면도

정읍신광 교회

Jeongeup Shin Kwang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복도 정읍시 송산동 52번지

지역자구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대지면적 5,253,00㎡

건축면적 1,049,37㎡

연면 적 3,182,10㎡

건 제 물 19,98%

용 적 률 56,88%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철골조예배당지능)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 카펫타일
무늬목 마감

외부마감 5천째 1등 지상생기 일부 테라코터미감

설계담당 하재형(총괄), 손혜정, 김상범, 남궁현, 송우철



건축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는 매순간 각기 다른 환경조건, 용도, 이용자 행태의 분 석과 그것들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여러 조 건을 포용하며 주변과 상생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것은 건축이 그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종교건축에 있어서는 경제논리만으로 우후죽순처럼 생산되는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이용적인 측면에 국한 되어 있지 않고, 종교적인 심미적상황의 요구에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

현재 신광교회의 성전은 1968년에 완공되어 37년을 넘게 사용한 비교적 짧지 않은 이력으로 세월의 표정이 묻어있다. 성전을 면밀히 보면 건축당시의 여러 조건과 시공 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예배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그러했고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외 관의 돌출부위문양들이 그러했다.

2003년 9월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출발한 성전건립 추진은 교회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신앙심으로 내딛은 첫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회건축위원의 추천을 받은 4개의 건축사사무소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고, 그로부터 한 달여간의 기간 내에 설계안을 제출하는 지명현상설계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현장설명회와 설계지침으로 미루어 보건데, 교회성전건립추진은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지선정과 이용자에 따른 용도간의 공간조건을 치밀하고도 효율적으로 오랜 기간 구상했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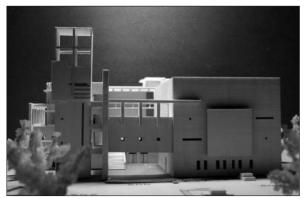
대지 읽기

대지는 정읍시를 관통하는 정읍천의 상류 이며, 내장산으로 향하는 국도 사거리에 위 치하고 있다. 현재 그곳은 대추농원으로 쓰 이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빼곡히들어 서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몇 동이 위치해 있고, 넓게 뻗은 국도가 횅해 보일 정도로도시적 맥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공존하고 있는이 땅은 법정 건폐율로 인해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되는 면적은 충분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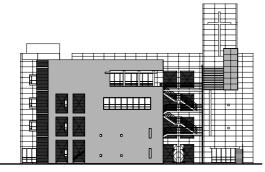
먼저 배치에 있어서는 외부공간의 활용을 높힐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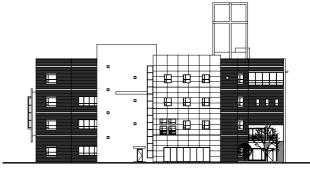
주변에 인접건물이 없다는 상황으로 인해 모든 면이 정면성을 갖는다는 점에도 유의해 야 했다. 대지의 위치가 다소 외져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동선의 배려 도 놓칠 수 없는 점이였고, 운동시설과 놀이 터의 배치도 건물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결정 지어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지 주변의 국도를 하나의 축으로 설정 하여 그 축에 순응하면서 인지성을 부각 시 킬 수 있는 곳을 설정하여 배치하였다









좌측면도

배면도

하늘, 대지, 성전 잇기

건물 전체의 요소는 예배당매스와 벽, 종 탑 그리고 부속용도의 매스로 이루어진다.

이 요소들은 각각 마당을 중심으로 하늘과 대지와 성전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부공간인 마당을 감싸고 있는 배치는 내외부의 공간적 요소를 더욱 풍요롭게할 것이다.

예배당에 대치되어 있는 긴장감 있는 벽은 그 두께를 60cm로 하여 원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왜소함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벽과 예배당사이의 마당으로 향하는 동선에는 벽과 예배당을 이어주는 매스를 도입하여 누하 진입적인 요소로써 마당의 공간

연출을 돕도록 하였다.

평면구성에서는 1층에 유아시설인 유치원 과 교회사무실 그리고 사택을 서로 분리하여 배치하였으며, 예배당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 는 계단을 마당에 위치시켜 동선의 재미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하였다.

2층은 교회의 중심시설인 예배본당과 소규모이 지만 다목적 홀을 분리하여 계획하여 예배당의 보 조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예배당은 목사님의 각별한 의도로 구 상한 153평을 꼭 맞추어 달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은 수)요구를 반영시켰다. 3층은 각 기능의 실들과 식당을 배치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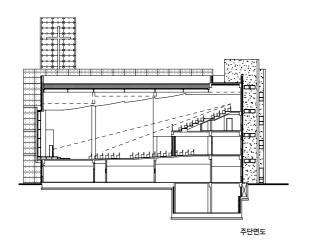
고, 4층에는 멀리 보이는 경치를 즐기며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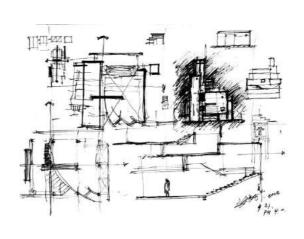
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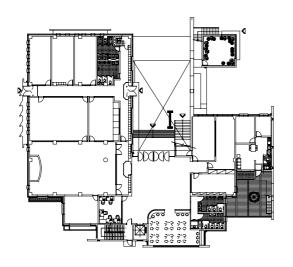
입면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료 선택 이었으며, 무채색의 노출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벽과 종탑에 적용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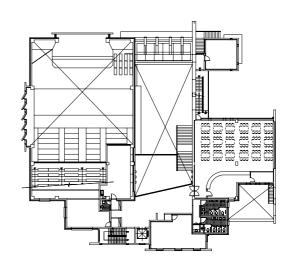
다사다난 했던 2004년도가 다 지나 갔다. 2004년도에 고건축답사를 포함 하더라도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전북 정읍이다.

한달에 두 번 꼴로 1년간의 숱한 협의를 거치면서, 계획의도를 잘 이해 주신 목사님 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2005년말에 완공되 는 신광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글/허재형) 圖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054

특집 SPECIAL ISSUE

우리 협회 정관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Thoughts on Amending KIRA's Articles

2년 전부터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총회 이후 법제위원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밤새운 보람도 없이 아쉽게도 이사의 수와 선임문제 등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 안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여 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쪽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및 제3의 안을 제시하는 위원들에게 골고루 원고를 청탁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회원들께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진취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협회도 경쟁력이다

Institute Should Also be Competitive

이종정 / (주)호암 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공제사업위원회 by Lee Jong-Jeong

정관개정의 변화와 의미

협회창립의 법적근거는 건축사법에서 사무소개설자의 품위보전 및 업의 개선과 건축물의 개량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 토록 법으로 강제했다. 먼저 정관을 제정하여 인가를 받아 1965년 10월 23일 협회는 창립되었다. 이와 같이 정관이 협회설립에 우선하여 정부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관개정의 원인이 되는 건축사법 중 협회에 대한 내용이 크게 강제기, 완화기, 자율화 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는 협회창립에서 1995년 건축사법 개정 이전까지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와 정관의 내용에서도 임원 수와 취임 승인 등 경직된 운영을 요구하는 강제시기였다.

둘째는 1995년에서 2000년 건축사법 개정 이전으로 협회설립 강제는 유지되면서 임원 수는 스스로 정하고 취임 승인도 회장, 부회장만 승인 받도록 하고, 협회사업의 내용 폭이 넓어지는 완화시기로 볼수 있다.

셋째는 2000년 건축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로, 협회설립 전체를 강제에서 임의화함으로써 복수단체를 허용하여 선의의 경쟁이 이루 어지도록 한 것이다. 물론 정관개정의 승인은 받아야 되나 임원의 수 와 취임도 회장, 부회장 성명과 임기만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자율화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줄기의 변화에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지만 국제개방화시대에 대한 경쟁력강화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만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자유경쟁시기로 돌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의 정관개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회원과의 관계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근본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관개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회원과의 관계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근본규칙이 되어야

회원은 협회에 무엇을 바라는가

회원은 진실로 건축사로서 바른 위상과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협회의 대책과 대정부의 이해와 함께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애로의 원인으로 설계비의 저하,업무량 감소,계획 설계비의 수령구조 부재와 소규모 사무소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회원 스스로 알아서 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할 수도없는 일이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고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고전적 의미의 사무소 운영시대는 지나간 것을 알지만 건축 사 혼자서 이미 환경 문제와 결부된 복합적 도시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정보소유 계층과 정보소외 계층간의 거리가 커지 고 변화에 편승한 중, 대형 사무소와 그렇지 못한 소규모 사무소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사무소의 빈부격차 심화로 불안전 운 영계층의 비중은 늘어만 가 이미 4인 이하 소규모 사무소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회원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건축사의 작업양상은 조직성의 도입뿐 이라고 생각하고, 전문화와 여러 분야의 조력자와 함께 함으로 변화 된 시장구조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회가 역할을 시급 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 전문화를 위하여 학문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정보센터)
- 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제도, 내용, 방식의 연구와 교육실시 (교육원)
- 개인주의에 입각한 작품 활동으로부터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 작업체의 모색 방안 연구(연구소)

등으로 회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대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 건축문화 발전과 국민을 위한 좀 더 나은 미래 환경을 위하여 건축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협회에 바라는 것이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건축은 인간역사와 함께 한다고 한다.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건축사가 역할을 다 할 때 당당히 건축이 문화임을 말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정관개정은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는 정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담아내는 사회성 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사가 하는 일이 사회에 바르게 인식되기 위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크다 고 생각한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에 있어서도 이미 보급률이 100% 시대를 지나 선진국의 130% 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주택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교통과 환경, 삶의 질에서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대도시의 뉴 타운 개발문제, 기업도시, 각종 기능도시,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카운터 파트너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서 건축사로서 위치를 다져야 한다. 우리의 업무가 공공복지와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설계의 평가에서 사후관리까지 재산으로 수요자의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하므로 국민과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무주택자를 위한 해비타트 (habitat)운동,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의 확보된 유지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을 설계에서 관심과 소외된 계층의 주택개량문제를 실천하므로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건축사가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당당히 건축이 문화임을 말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회원과 협회는 피나는 자정과 뼈저림의 고통을 요구할 것이고, 이때 협회의 경쟁력은 생길 것이다.

정관개정에 바란다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협회는 강한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다. 회원의 욕구가 분출되고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모 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협회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건축사 의 권위와 위상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쟁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 건축사로서 제 역할을 하였을 때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모든 외부와의 경쟁과 내부로부터 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코피티션(Copetition)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정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강한 협회 조직이 요구된다.

현재 건축사회는 협회로부터 권한 흡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과 분란을 초래하고, 전문성 활용이 곤란하여 재정의 확 보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 이러한 때에 건축사의 국제자격 확보와 유 지를 위한 제도, 회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거시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협 회 중심 조직강화가 요구된다.

회원은 힘이고 재산이다.

회원의 구성은 개업자중심에서 건축인 모두가 입회할 수 있는 개 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원의 층과 구분에 따라 자격과 권리, 특권 등 가입방법을 정하여 관리하므로 사실상 건축대표단체로서 힘 있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협회의 운영은 책임경영으로 해야 한다.

협회의 운영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회무의 집행 업무추진을 위한 상근 CEO 경영부회장의 사무기구로 1체제 2조직으로 편성하여 업무추진의 계속성과 추진성을 갖고 책임경영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 위원회는 부속기구로 속히 운영되어야 할 연구소, 교육원, 정보 센터의 전문성을 위한 업무를 회원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소극 적 의미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원의 업무지원, 사회참여와 봉 사, 수익사업을 원활히 하고 적극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검토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라.

협회의 운영은 강제가입시의 회원 회비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협회 설립과 가입이 임의화되고 이미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회원의확대로 수익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회비는 기본회비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책임경영조직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사업, 전문성인증 및 평가사업, 출판사업, 이벤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연금과 공제사업의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시작에서 노후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협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외에도 부속기구와 관련기구를 확대하면서 조직의 네트워크구 축으로 폭넓은 건축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관개정은 일반 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는 정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협회 정관개정에 대한 스케치 A Sketch •n Amendin• KIRA's Articles

박종철 / 인터플러스 건축사사무소, 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by Park Jong-Cheol

쓰기를 고민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협회에서 법제도개선기획단에 참여해 협회의 운영제도 등을 포함하여 협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본의 아니게 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의 소리 대변인을 맡다보니 협회 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법제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협회발전위원회와 함께 다루었던 정관 개정작업에 대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부분과워크숍과 수차례의 합동회의를 하면서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었던부분을 위주로 스스로 한번 스크린 해보면서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좀 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혜안을 가진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는다.

정관을 개정하는 이유

정관개정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을 우리 대한건 축사협회(이하"협회")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회원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65년 협회가 설립되고 40년이 지난 현재의 정관까지 30여 차례 이상 개정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또 다시 정관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뭔가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사실 총회가 있을 때마다 개정되었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의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이루어지는 이번 정관 개정작업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여러 가지 법제도 변화에 따라 협회의 결속력과 영향력이 날로 약해지고, 장기적인 건축경기침체를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 불황속에서 협회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현 시대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주목, 예측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인

어구의 해석보다는 뜻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욱 절실 큰 원칙과 전제를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지, 아니면 정관이 새롭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협회조직 내부의 또 다른 현실적인 갈등요소나 지역이기주 의는 없는 것인지, 솔직히 필자 자신도 그 관심의 이유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단지 우리 협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회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많은 회원들의 깊은 애정이 그 배경의 전부이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근본적인 조직의 재구성

정관은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과 규범 그리고 규준과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니 그 어구의 해석보다는 뜻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관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의 정관은 총칙에서 포상 및 징계까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에서는 협회의 명칭, 목적, 조직 그리고 사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 정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제3조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관개정의 출발점이 이 조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제3조 조직의 요지는 협회는 시, 도에 지부인 건축사회를 둘 수 있고, 건축사회는 분회인 지역건축사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우리 협회 정관의 기본적인 조직구성이 협회를 중심으로 중 앙집권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여 이 중앙집권형을 서 울지역중심이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사실 총체적으로 정관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도로 정관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직체계(중앙집권형, 지방분권형, 연방제 등)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인 정관 개정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협회 회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기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조직의 역할 분담은 정관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 내용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은 대다수의 회원들이 현 시대에서 우리 건축사의 위 상과 중앙정부와의 튜닝과 대응력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에서 미 래 협회의 새로운 역할론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의견을 한곳으

> 나를 희생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조직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이사 수의 증원을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상임이사제도 고려해 봐야

로 모을 수 있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이고, 정관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회발전위원회나 법 제위원회의 중론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집권형을 원칙으로 정관 개정작업이 시작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 협회가 하나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즉 법인으로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 하나인 것이다. 단지 그 아래 하부 조직으로써 지부인 건축사회와 분회인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간과하고, 일부 건축사회는 별도의 법인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아마도 그 주된 원인은(현재 교부금 형태로 협회에서 건축사회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사회의 재정관리와 운영이 협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협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체제로 운영되려면 그 재정과 직원의 인사관리 문제부터 개편, 통합 관리되어야 하고, 당연히 재산도 협회 하나의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찰도 예상되며, 단기적인 과제로 실현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상당한 논의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큰 원칙과 전제를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나를 희생해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기에는 그 강이 너무나 넓고, 하나 됨을 외치는 그 목소리는 이제 잘 들리지도 않을 지경이다. 우리는 협회의 하나 됨에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되는 것부터 정돈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협회의 미래가 너무나도 창창하다. 이제우리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것이 협회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근간부터 바로잡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하나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그리고 운용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사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도 중요 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사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절대적으 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협회의 이사회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보다는 소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아는 인맥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우리는 이사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협회의 대내적인 일에서 대외적인 업무까지 중요한 모든 일들을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고 또 집행까지 하고 있는 만큼 그 이사회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실 회원들이 협회는 뭘 하느냐고 반문하는 대상이 결국 이사회는 뭘 하느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만큼 이사회의 활동유무는 회원들에게 중요하다. 이제 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협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이사들로 구성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외부의 자극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내부의 꿈틀거림을 밖으로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사회가 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그 틀을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협회가 그 흐름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전문성을 가진 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여 국제문제와 국내문제 그리고 정책과 재정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성으로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에 있는 건축사회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최근 30~40대가 회원의 70%를 구성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참여와 요구를 유도하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회원의 증가에 따른 남녀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적정 이사 수는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을 모두 갖추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최근 들어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며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다. 16개 시도건축사회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건축사회마다 1인의 이사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고, 그 배경에는 건축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협회에 전달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건축사회의 불만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현행 정관에서도 건축사회의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을 본다면 건축사회의 요구사항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건축사회는 단지 그들의 의견이 협회에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그들 스스로 의결에 참여하고자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이 중론인 듯 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개정되는 정관에는 건축사회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시도건축사회 회장 또는그 대표단이 정기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대의원의 수를 정예화 하여 그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연의 임무인 회원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고 이사회의 상정안건이나 의결안 등도 특정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적정수의 이사를 선출, 구성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이라는 또 다른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사회를 모색하지면 우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 협회 정관개정의 기본들이 중앙집권형이라는 대 전제를 앞에서 언급했고, 이 의미는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과 그 집행부가 소신 있고 책임 있게 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러한 맥락에서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연령과 성별 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소위 임명이사는 회장 직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는 회원들이 그 임명이사의 전문성을 공인할 수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인력풀 제도 등)가 필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사회의 회원 수 등을 고려한 비례대표를 채택하여 해당지역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사전에 정한 이사 수만큼 소위 선출이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선출 이사 수보다는 임명 이사 수가 많아야 됨을 전제로 하며, 그 이유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소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를 기본적으로 갖추자는 의미다. 현재 협회의 조직구성으로는 최근 늘어난 회원 수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이사 수는 개인적으로 20인을 넘지 않는 것이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전국의 건축사회가 각각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회 하나의 법인조직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이사 수의 증원을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상임이사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조직과 관련된 회원문제

협회는 현재 개업 건축사를 위주로 한 회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건축사 자격소지자는 물론, 미래의 건축사(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건 축사보, 건축 관련학과 학생) 그리고 건축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교 수, 연구원, 기술사 등)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건축 전반에 걸친 문제 를 수용할 수 있는 회원제도로 유도하고, 특히 5년제로 개편된 학교 의 재학생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협회의 회원으로 자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원구분별 권리와 의무를 실효성 있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의 조직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협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지부인 건축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사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분회인 지역건축사회가 활성화 되어 야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말초 혈관인 지역건축사회가 왕성해야 협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와 관련하여 위임된 모든 문제 특히, 협회가입과 퇴회문제 그리고 회비 등은 해당 건축사회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역건축사회에도 회원들이 그 절차의 강제성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거기에 따른 견제기관으로 대의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회원 20명당 1인 정도인 400여명으로는 순발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지금 까지는 회장 선거용으로 전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구성도 시도건축사회장과 지역 건축사회장이 임의로 지명하여 선출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협회 대의원으로써 그 본연의 자세를 가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의원의 수를 정예화 하여 회원 40명당 1인 정도인 200여명으로 하고, 또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그 권한을 확대하고, 대의원을 총회 때에만 가동시킬 것이 아니라 ON-OFF 라인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인터넷카페 등을 운용하여 평상시에도 협회의 업무를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협회가 유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며, 본연의 임무인회원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줄이면서

많은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고, 상당히 상세한 부분들은 기급적 언급을 자제했다. 정관 전체 내용 중에서 거론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다같이 중요하고, 다같이 간과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그 부분 중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합의도 있었지만 가끔은 밤늦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했던 부분도 꽤 많았던 것 같다. 아직 여러 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오늘의 이러한 모든 고민들이 우리 협회와 회원들을 위한 좋은 밑 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회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 A View on Amending KIRA's Articles

강성익 /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협회발전위원회 위원장 by Kang Sung-Ik

대한건축사협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크 게 4가지 분야 (협회의 정체성 확립, 조직의 운영 및 관리방향, 제정 운영 방향, 회원 업무개선 및 지원분야)로 나누어 협회 법제위원회와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 는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그동안 대체적으로 협의된 내용과 필자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일부분만 정리해 본다. 결코 확정된 안이 아님을 첨언하며, 참고로 현행 정관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 쟁점사항이거나 변경된 부분과 추기할 내용만 언급하기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기술의 향상 및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 및 지원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제화에 부응하며,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증진,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 4.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건축관련 신기술의 교육, 자격인증 프로 그램 개발 및 관리
- 6. 국토계획 및 건축에 관한…
- 16. 건축관련 신문, 방송, 통신 등 정보 관련사업
- 17. 회원 업무 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18. 건축박물관 및 체험학습장 설치운영
- ② 협회는 제1항4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사 보에게 매년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4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그 단수가 2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하되 협회의 역대회장과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협회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 는 예외로 한다.
- 2.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 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9조(임원)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1.회 장:1인

2. 부회장: 4인 (상근, 내무, 외무, 국제담당부회장)

3. 이 사: 35인 이내 (회정1인 부회장 4인 포함)

4. 감 사: 2인

② 이사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 도 회원이사

회원 500인 이하 1인 / 12 = 12명

회원 501-1000인이하 2인 / 2 = 4명

회원 1001-1500인이하 3인 / 1 = 3명

회원 3001-3500인이하 7인 / 1 = 7명 소계26명

2. 비례전문이사 26명/30% = 8명

계 34명

제21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② 이사중 제19조 2)항에서 정한 시, 도 회원이사는 해당건축사회 에 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③ 비례전문이사의 선출은 직능대표, 여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 ④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⑤ 이사 정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취임한 날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③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건축사회총회)②

- 3. 정회원 총수의 3분의1 이상(단 회원수가 600인을 초과할 시는 6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5. 1000인 이상인 건축사회는 200인 이상으로서 정회원의 8분의 1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하며.

제55조(회비미납의 징계) ① 정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은 이사회 또는 간사회의 의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경고 및 권리정지

2. 18개월 이상: 제명

3. 제1항1호의 징계를 받은 정회원이 회비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It's Never T●● Late

임두기 / 다공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by Lim Doo-Ki

협회의 바로잡음이 우리의 살길이다. 우리의 현안적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협회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연한 계기로 지역건축사회의 지구장 겸 운영위원과 2년여의 서울건축사회 홍보위원회의 활동으로 조직을 알게 되었고, 2003년 말 협회의 '법, 제도개선기획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공부했다. 연초부터 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협회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정관개정 작업의 일원이 되었다.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이 전제되며, 구성원간의 의견 충돌 등 난해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간의 감회와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절충적인 개선안을 최소공배수로 제안하고자 한다.

과정과 서두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협회의 체제

우리 협회의 집행부(회장단)도 독자적인 역할이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이행하는 임무'이며,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행하는 집행부, 책임지는 집행부가 필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협회의 탄생이후 유사성격의 타 단체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렇다하게 뚜렷한 변화를 못이루고 작금에 이르렀다. 급격히 늘어나는 회원 수의 변화나 시대의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체제에 대한 개선요구는 우리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각 시도건축사회의 법제위원 등이 주축이 된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선안은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협회발전위원회에서 수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완성된 개선안 역시 이사회에서 기각되어 총회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무산된 바 있다.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정과 객관적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단순히 집행부의 임기 또는 임원의 숫자에 대한 변화에 치중한 개선안들로 설득력이 없었다고 진단할 수 있으며, 확고한 체제변화의 의지가 결여된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연초부터 기존의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협회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하여 다시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다. 임원의 겸직금지 문제 등 조항별 종속요소보다는 뚜렷한 개선이라는 주 요소를 설정하는 데에 가장 많은 애로가 있었고, 다분히 참여인들 모두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들 간의 의견일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종속요소인 시도건축사회의 위상과 임원의 숫자, 선출방법 등에 대한 문제들로 할애했다.

동일한 법체계와 일관된 업무체제하의 전문인들이 모인 단체에서 행정구역별 분권화를 거론하고, 근거 없는 막연함으로 서울과 지방을 구분 지으려는 일부의 의견들은 실로 안타깝기까지도 하다. 하나로 결집하기도, 결집하여도 어려운 시국임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빠진 협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수많은회원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삶이 고단해서만은 아니다. 내일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일 것이다. 법인체제에서 이사회의 바로잡음은 대안이고, 내일이고 희망이다. 작금과 같이 오로지 지방의 시도건축사회의 권리와 생존만을 생각하는 단편적인 주장들은 공멸의지름길이고, 대안도 내일도 희망도 될 수 없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무엇보다도 전문인들의 이익단체로서 공익은 차치하고라도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옹호에 그 기능적 역할을 다하여 야 하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느끼듯 현실은 너무나 부족한 면들이 많 다. 개혁이든 개선이든 정관개정은 과정상 필수 불가결하며, 피폐해 진 건축시들의 직업 환경에 늦은 감도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과정이 따르겠지만 양질의 의견들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현행의 문제점들

1. 회원 대 협회

- 회원(계란): 이런 문제는 협회에서 해결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 야? 협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회비가 아깝다. 자 리싸움만 한다며?
- 협회(닭): 회원들의 관심도 저조, 참여의식 결여. 회비 납부상태 불량. 예산 부족, 목소리(의견)의 다양성. 회원들의 업무속성 및 지역편차 등에 따르는 계층화.

2. 대의원(총회)

- 회장의 선출만을 위한 기구로 전락, 책임감 결여 및 참여의지 부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관개정, 임원선출 또는 예산 및 결산 의 승인에 한정되는 결의안적 한계
- 상향식 선출이 아닌 하향식 임명으로 인한 대표성의 결여

3. 위원회

- 연 1~2회 소집되는 등 대부분 형식적이고 현실성 없음.
- 구성원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활성화되지 못함.
- 관련 위원회 및 이사회 등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활동결과가 실제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함.

4. 이사회

- 회의체 운영의 대부분을 결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집 행부로서의 실질적인 역량 및 기능의 상실
- 이사의 선임에 각 지역별, 계층별 안분으로 인한 부차적, 비합리적인 문제점 파생으로 대표성 문제 상존
- 지방회원들의 참여기회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문제 대두
-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도 책임구분이 불분명하여 실질 적인 집행의지 실현 불가능, 책임적 신뢰도 결여
- 회원의 숫자에 비례하여 극소수로 제한된 회원만이 이사로서의 의결권이 있으므로 대의성에 대한 문제점 내재(유사 성격, 규모 의 타 단체와 비교 시 과부족)

5. 회장(회장단, 집행부)

- 회장의(하향식 임명에 의한) 대의원 간선제 선출로 인하여 회원

단순히 이사 숫자를 몇 명쯤 더한다고, 지방에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여 해결될 일은 없으며,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분권적 체제는 더더욱 정답이 될 수 없어 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도 저조

- 전임 회장단에 의한 예산집행 1년과 레임덕이 우려되는 잔여임
 기 1년으로 효과적인 집정능력 발휘기회 부족
- 회장단 또는 집행부라고는 지칭하나 이사회나 위원회 또는 사무 처라고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책임한계 또한 모호하여 실질 적이지 못함. 이사회의 구성 성격상 자의적인 집행부(참모진)로 보기 어려움.
- 회장에게 집중된 기구 또는 조직 편제이나, 대부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소신에 의한 능력 발휘기회 부족

6. 기타

- 사무체(행정조직)를 제외한 모든 기구가 현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의 지속성, 신속성 결여

체제개선의 대원칙

- 1. 회장의 선출은 선거방법을 연구하여 직선제로 하고, 임기를 현 행과 같이 연임이 가능토록 하되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함.(합의)
- 2. 부회장의 직능별 역할부여와 대외활동의 위상강화를 위한 인원 수 확대(합의)
- 3. 이사의 상향식 선출과 인원확충으로 명실상부한 대의, 의결기 구 확립(합의, 회의진행의 효율성 문제 대두)
- 4. 실질적인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상임이사회의 기구 설치(제안)
- 5.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건축사 상근이사제도 도입(합의, 유급직)
- 6. 예산집행의 감시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에 치중할 수 있도록 감 사 1인 증원 또는 감사조직 구성(합의)

체제구성에 대한 제안

- 1. 현행의 체제를 개선하여 회원(선거) 대의원회(총회) 이사회 (의결기구) - 상임이사회(집행기구)로 구분하는 상임이사제도 도 입으로 의결과 집행업무를 명확히 구분함.
- 2. 대의원회(총회)
- 회장의 직선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의 상승에 기여하는 반면, 그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 검토 필요(구성인원의 축소 검토)
- 200인 내외(회원 40인당 1인 기준, 소집 횟수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기존안과는 일치하나 성격이 다름)
- 3. 이사회, 상임이사회

- 법인의 유지는 이사회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나 8,000여 대규모 단체의 특성상 기능성 발휘와 효율성을 목적으로 대표성이 확립 되는 이사회의 결의 도출, 상임이사회의 회무집행에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성 부여
- 시도건축사회의 상향식 선출 42인(현 시도건축사회 소속회원수 대비 최소 1인 기준, 200인기준 사사오입) + 상임이사 13인 전 후(부회장 5인, 상근 2인 포함 전문이사 8인-현 위원회 직능기 준, 회장이 직접인선)

4. 집행부(회장단)

-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회를 집행부라 하고, 권력기구(의결)가 아닌 실행기구(집행)가 되도록 함.
- 회장의 실질적인 참모진으로서 책임을 강화시키고 권한(자유인 사권 등)도 부여함.

5. 위원회

- 책임(전문)이사에 의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로서 분야별 정책의 입안에 초석을 구성토록 함.
- 신설된 연구소와 역할을 구분하여 자료의 수집 제공 등 원활한 공유체계 확립

회의소집 효율 비교검토(회장별도)

1. 현행

- 이사회: 18인 × 12회 = 216(회.인)

- 대의원회(총회) : 약450인 × 1회 = 450(회.인)

- 합계 : 666(회.인)

2. 개선

- 상임이사회: 13인 × 12회 = 156(회.인)

- 이사회 : 55인 × 4회(분기별 1회) = 220(회.인)- 대의원회(총회) : 약200인 × 1회 = 200(회.인)

- 합계: 576(회.인)

3. 비교분석

- (회.인)별 단순비교로 연간 약 90(회.인)이 절감되며, 의결기회 횟수가 13회에서 17회로 증가됨.
- 상임이사회의 구분으로 결의의사에 대한 책임적 집행력이 강화 되
- 시도건축사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이사회 참여기회로 의 결의 신임도가 고양됨.

상임이사회의 역할

회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구성되고, 분야별 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함.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4. 회칙(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 7.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이사회의 역할

- 기존의 이사회의 역할에서 상임이사회로 업무 분장되는 역할을 제임하고 보완
- 주로 회원들의 업무와 관련되는 협회의 정책적 입장에 관한 문 제(대외적)에 대하여 의결
- 집행부(상임이사회)에 업무부여 및 직접적인 통제와 견제

총회(대의원)의 역할

- 기존의 역할에서 회장의 선거역할 등을 축소하고 보완
- 일부 임원(감사 등)의 선출 및 임원의 임, 면 결의
- 주로 협회의 운용과 조직 및 회원의 관리, 권리 등에 관한 문제 (대내적)에 대하여 의결

상임이사회(실질적인 회장단, 집행부)의 구성

- 회장
- 부회장(5인)
- 1. 수석부회장(1인) : 회장업무의 직속 총괄보좌
- 2. 행정, 복지 담당부회장(1인, 상근): 사무처를 총괄하고 대 건교 부업무 등 행정업무 총괄, 예산 및 자금, 공제사업 및 회원들의 복지업무 담당
- 3. 정책 담당부회장(1인) : 건축사 업무관련 법규, 제도 및 협회의 정책 등을 총괄
- 4. 국제업무 담당부회장(1인) :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대외적, 국제 적인 업무 총괄
- 5. 공보 담당부회장(1인) : 협회의 대내·외의 홍보를 총괄하며, 협회의 대변인격 역할을 함
- 전문이사(8인)
- 1. 건축 및 법제 담당이사 : 상근(유급)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의결과 집행의 올바른 체계를 갖추어 실효적인 회장단 또는 기능적인 집행부를 만들어야

- 2. 국제업무 담당이사
- 3. 홍보. 편찬 담당이사: 상근(유급)
- 4. 공제사업 담당이사
- 5. 정보관리, 교육, 시험 담당이사
- 6. 협회발전위 담당(문화체육, 청년, 여성분과)이사
- 7. 중앙윤리위 및 고충처리(회원 민원) 담당이사
- 8. 무임소 이사(유사 시 특별업무 담당)

비고

- 나름대로의 사적 의견임에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회장의 선출 역할이 배제된 대의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지는 추가적 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존치 여부 등 이사회와의 상관관계 설 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이사회에서의 집행부(상임이사진)의 수적 열세는 집행부의 역량 여부에 따라 그 기능이 좌우되는 것이며, 회무집행의 장악력 상 실 시는 지도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수적 우세를 전제 한다면 개선의 의미가 없음.

맺음말

회비문제 등 회원의 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업무나, 기본업무인 설계, 감리 업무정상화도 요원한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폐지입안 건의 현안에도 이렇다하게 명쾌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국제화 또는 업무영역 확대, 수익사업 등의 허울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독자적역할을 부여받으며, 유엔의 모든 결정을 이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우리 협회의 집행부(회장단)도 독자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이행하는 임무'인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행하는 집행부, 책임지는 집행부다. 이행과 집행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안으로 큰 아이템으로만 50여 가지가 산재해 있다.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으로는 점점 더 누적될 뿐 해결이 가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함이 우리에게는 슬프지만 냉정한 현 실이다. 단순히 이사 숫자를 몇 명쯤 더한다고, 지방의 시도에서 이 사회에 참여한다고 하여 해결될 일은 결코 없다.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분권적 체제는 더더욱 정답이 될 수 없다.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결과 집행의 올바른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실효적인 회장단 또는 기능적인 집행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충분한 권한도

주어야 하고, 명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된다. 그런 연후 라야 그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치이며 도 리이기도 하다. 집단으로 모은 힘의 가장 유익한 활용방법이기 때문 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근간(根幹)을 고치자 Let's Rething Our Reets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본협회 홍보편찬위원회 위원장 by Chang Yang-Soon

정관의 현실 - 무엇이 문제인가

본 협회의 정관은 1965년 협회 창립과 함께 제정된 후 40년 동안 31회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는 거의 매년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횟수만으로 보면 매우 훌륭하고 완벽한 정관이 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본 정관이 태동한 후 20수년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만하면 소위 밥벌이가 보장되던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IMF 환란 이후 줄어드는 일감과 늘어나는 건축사의 숫자로 옛날은 향수가 되어버렸고, 한 사무실에 보조원 보다 건축사가 더 많은 기현상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기실 이러한 문제는 IMF 환란이 아니더라도 주택수요가 100%를 넘어서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부터는어느 나라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비한 근본적인 정관의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임시방편만을 되풀이 해왔다. 한마디로 시류를 앞서가지 못하고 뒤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더구나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감지하지 못했으며, 화두로 떠오른 연합제에 대하여도 10여 년전부터 연구를 해 왔으나 항상 지지부진하였다. 또한 현 중앙제와 비교하여 그의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논의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정관개정 작업을 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도 원인의 한 요소라 하겠다.

작년도 협회발전위원회에서 정리한 안에 첨삭을 한 금번 안은 협회발전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합동으로 숙박까지 하면서 밤새워 워크숍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에서 위원들 간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미완의 형태로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노력에 비해 빛 바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중앙제냐 연합제냐 근본부터 정립해서 정관의 기본 틀부터 다시 짜야

이 또한 위에 열거한 근본적인 성찰 없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개정의 전제조건

모두에서도 기술했듯이 집행부는 중앙제냐 연합제냐를 회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어느 한쪽으로 합의도출을 해내야만 한다. 현재의 안을 보면 분명히 현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안을 못내는 것은 지역건축사회의 이사회 참여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현재의 난국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연합제보다는 중앙제가 낫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를 증원하여 모든 지역건축사회에 배려하라는 것은 모순되는 요구이나 소외감이란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이 반나절 권 안에 속해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 권력은 지자체의 유아기를 벗어 나 정착기에 있다. 이런 점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제를 할 수도 있고 연합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안을 직시한다면 중앙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날로 좁아지는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대처, 정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300인 이하의 대부분 지역건축사회 그리고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건축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교육 등과 FIKA 3단체에서 우리의 권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앙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집행부는 이러한 것들을 막연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의 뜻이 한곳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이 중앙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입각하여 제반 문제를 다루어 보자.

문제와 해결 방법

첫째. 회장 선출 방식이다.

현 개정시안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회장의 선출을 회원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간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당연한 것 이다. 400명 미만의 대의원, 앞으로 40명당 1인이면 200명 정도의 대의원 숫자이다.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회장 되기보다 한결 쉬운 것이 본협 회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선거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이며, 많은 숫자로 정족수 파동과 회의의 비효율성 등 폐단이 많은 제도이다. 이제 1억~1.5억 원 정도면 금융결제원 방식의 카드를 만들어 전자투표에도 쓰고 건축허가 접수나 감리 관계 등에서 본인확인을 관청에서 하게 함으로써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경제가치가 높으며, 설령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이다.

둘째, 이사회의 2원화와 대의원제도 폐지이다.

총회에서 대의원이 하는 일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 정관개정,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회장을 선출할 때 감사와 이사까지 선출(감사는 회장과 동일한 방식, 이사는 러닝메이트 제도 등)해 버리면 정관과 예결산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명당 하나냐, 40명당 하나냐 하는 대의원의 역할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대의원제도를 없애고, 이사회를 2원화하여 이를 대치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지역건축사회의소외감도 없어지고 결속도 다져지며 회의 능률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나눈다.

상임이사회는 위원회 숫자와 동일한 이사 수로 하여 소위 유임소이사가 되게 한다. 이들의 임무는 현재의 이사회와 같다. 이사회는 지역건축사회당 최소 1명~5명 정도를 회원비례대로 할당하되 당해 건축사회가 선임토록 한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2명 정도를 이사로 호선하게 하면 전체 숫자는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이사(유임소이사) 20여명, 지역건축사 지분 30여명, 위원회 20~30여명 그리고 역대회장 20여명 등 90~100명이 되며, 그 외 지역 건축사회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의원의 임무를 대체할 경우 다음 과 같은 당위성과 장점을 갖는다.

- 각시도회에 최소 2명의 이사가 있음으로 지역간 소외나 갈등이 없어진다.
- 인원이 100명 정도이므로 400여명이 모이는 대의원 총회보다 정족수 문제, 장소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문제해결을 쉽게 하여 회의 능률을 제고시킨 다.
- 경비가 1/3~1/4로 축소되고, 사안에 따라 자주 소집할 수 있음

어차피 필요한 금융결제원 방식으로 회장 직선해야 비능률의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사회로 대신, 기동성 살려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2원화 하여 지방의 소외감 덜어줘야 전문화된 위원회와 전문인에 의한 책임 경영 실현해야

회장은 예지의 형안으로 밑그림만 그려야 회장이 없어도 지장 없을 정도의 체제 갖추어야

으로 현안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셋째, 위원회 활성화 문제이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위원회 중심의 협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어서는 안 된다. 3년 정도임기에 몇 명은 연임을 하여 해당 분야에서만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의 경우 해당 위원회 활동을 5년 이상 한 회원으로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가 위원장을 겸무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규정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간 우리는 언젠가부터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이사와 위원장을 분리함으로써 위원회의 모든 사항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비능률적인 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위원장간의 대화가 단절됨으로서 위원회가 고립되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얻을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맹점과 단점을 알면서도 신임회장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이 제도를 방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신임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의 인선을 정관대로 위임하고 월권하지 말아야 하며, 임기 중 만기된 위원만 교체할 수 있게 함으로서 누가 회장이 되던 추진 업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회장 등 직제의 개편이다.

상근부회장을 복수로 하여 하나는 대관관계 및 법규, FIKA 등 건축분야를 전담하는 현행 부회장과 유사한 업무를 맡기고, 또 하나는 경영계의 명퇴자들을 영입하여 기금의 활용방안, 수익사업의 극대화, 사무처의 업무 능률제고 등 경영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양두마차가 협회라는 수레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며 회장은 마부의 역할만 하면 된다.

개편의 효과

위와 같이 정관과 체제를 개편할 경우 대한건축사협회는

- 각 위원회는 전문화된 위원들의 깊은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협회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이고.
- 상임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유관 위원회 담당 이사들과 그자리에서 협의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부회장들은 자기 분이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하며, 의결사항을 잘 집행하면 될 것이다.
- 이사회는 정관의 개정, 예결산의 승인 등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된다. 감사 또한 주어진 감사의 직분을 다하면 될 것 이다
-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회장은 이러한 의결사항을
 양 부회장에게 배분하고, 감독하는 선장의 역할과 대외에 건축
 사의 얼굴이 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직성 예산이 태반인 상태에서 전임회장이 세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말년에는 레임덕 현상 운운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아닌 협회에서 레임덕이 무엇이며 무슨 예산을 더 세운단 말인가. 위와 같은 정관이 되면 회장이 없어도 협회는 돌아갈 수 있다. 회장은 대외업무와 큰 밑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제반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규정의 개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말썽이 되었던 이사의 겸직사항 등도 보다 완벽한 조문이 없기에 발생한 것이다. 정관 개정 후 다시 고치더라도 우선 미비한 것은 고치고 봐야 할 사항이다

회장 불신임의 조건이 '2/3 발의로 과반 참석에 2/3 찬성' 이라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법리에 맞지 않는다. 개정안 중 이러한 무리수가 눈에 띄나 이러한 것들은 지엽에 불과하다. 문제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다.

맺는 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 활성화, 유임소이사에 의한 능률적인 상임이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각 지역의 대표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역대회장들로 구성하되 그 인원이 적어 기동성이 강화되고, 속전속결로 항상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사회 그리고 앞날을 예지할수 있는 형안과 어려움에 굳건히 앞장설 수 있는 패기 있는 회장이 있을 때 우리의 협회는 21세기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서두르지 말자. 새 회장 선임 후 1년간 모든 회원들의 뜻을 집약하여 새로운 정관을 만들자. 그리고 실천해 보자. **尚**

건 죽 기 행 ARCHITECTURE TRAVEL

<mark>김 석 환</mark> 터·울 건축사사무소 ▶y Kim Suk-Hwan

일본건축기행-()1

An Trip on Japanese Architecture

답사 출발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건축 기행을 다녀왔다. 일본에 가고 올 때 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 답시한 날은 4일간이었다. 일본에는 1991년 한처례 다녀온 일이 있는데, 이번은 그 후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그 때는 배로 하카다항에 건너가서 북해도까지 일본 열도를 종단하며, 중간중간 교토 등 경유지에 들러 일본의 전통문화유산과 안도 다다오의 몇개 건축물, 도쿄 근처 우에노 공원에 있는 르 꼬르뷔제가설계한 서양 미술관을 돌아보았었다. 그런데 이번답사에는 규슈지역 현대 건축만을 돌아보게 되었다.

8월 7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내려가, 오후 6시 부산 국제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합류키로 한 일행들을 만나 탑승 수속을 하고 여객선 안으로 들어가 선실에 짐을 푼 다음 갑판에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배가 풍경을 이루며 오가고, 부두에서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으로 콘테이너를 싣고 부리곤 했다. 터미널 옆에 서 있는 영도가 서양으로 기울어 가는 햇살을 받아 황금색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랫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항구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주변이 어두워지고 영도도 휘황찬란한 야경 불빛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11시 45분 약간 지루해진 시각, 일본으로 향한 배가 부두를 떠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산항의 밤바다는 날이 파랗다. 낮이나 밤이나 바다 위를

떠다니는 큰 화물선들이 짐을 가득 싣고 떠나가고, 고깃배는 다른 쪽으로 조용히 물살을 해쳐 나갔다. 그리고 여행객을 태운 여객선들은 미지의 꿈을 싣고 떠난다. 12시 30분 멀리 불빛 따를 이루는 부산항이 아득히 보였다. 밤바다에서 바라보이는 불빛이 중국갈 때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 그만큼 이 쪽해상활동이 많다는 증거다. 태평양을 가득메운 바닷물 위에서 목적대로 이리 저리 항로를 잡으면 배는 어디든지 닿을 것이다.

밤바다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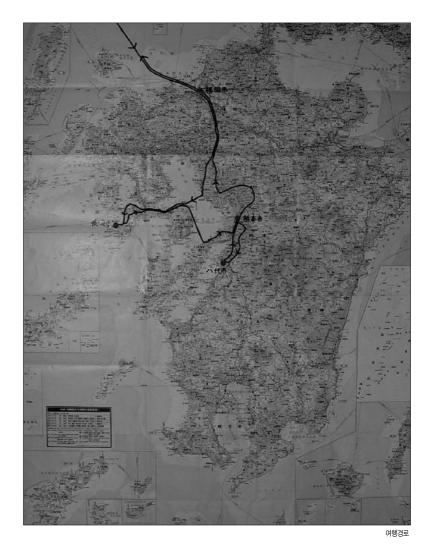
꿈에 부풀은 여행객을 싣고 출항을 기다리는 배

항구에 어둠이 내려도 미지로 떠나는 젊은이의 가슴속은 오늘밤 마냥 하얗다

수속을 도운 직원들은 집으로 가고 저쪽나라 직원들도 이 밤이 지나야 일터로 나올 사이

고국산천 검은 실루엣 사이로 휘황한 도시 불빛이 멀어지며 밤바다로 나간다

비릿한 내음과 함께 불어온



따스한 바닷바람이 한 여름밤 별처럼 스쳐간다

다음날 8월 8일 아침 5시 20분경 우리가

탄 배는 후쿠오카(구 하카다)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항구에서 업무 를 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도착한지 한시간 후쯤부터 날이 밝아 주변 풍경이 보







3

1.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내부 2. 부산항 영도 아경후쿠오카 3. 여객터미널의 하선

였다. 그런데 십여년전 왔을때 보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때 부둣가에서 본 모습은 시멘트 포장된 공터 주변에 블록으로 지은 창고가 있었던 듯 한데, 현대식 여객터미널 뒤로 번화한 도시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하기야 그때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닿는 곳이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 건설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침 8시 입국수속을 하고 나와 9시에 버스에탑승했다. 45인승 버스에 여행사 사장과 가이드 그리고 운전기사를 포함해 29명이 탑승했다. 모든 일행의 확인 후 곧 바로 여객터미널 광장을 출발하여 이번 답사의 첫 방문지인 넥서스 월드로 향했다.

넥서스 월드

9시 19분 넥서스 월드에 도착해서 답사를 시작했다. 넥서스 월드는 후쿠오카시가 스티 븐 홀, 램쿨하스, 뽀잠박, 마크 맥, 오츠카 투 스게츠 그리고 참기한 6인의 건축가중 유일 한 일본인인 오사우 이시이마 등 세계적 건 축가들을 초청 그들의 작품성을 살려내도록 했다. 낵서스 월드 건설은 일본 현대 건축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일로써 건축의 가치성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결국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같은 프로그램까지 태동되었다고 본다.

그 곳에 지어진 건물중 필자에게 가장 인 상적이었던 작품은 스티븐 홀과 램쿨하스의 작품이었다. 스티븐 홀이 설계한 작품은, 도로 방향으로 길게 놓인, 앞쪽 보도에 면한 1층 상가와 후면의 주거부분 매스가 건물 앞도로에 직각으로 병치된 4개의 매스를 결합하고 있다. 그로써 도시 가로 질서에 부응한합리적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층의 병치된 매스가 경직되어 보일 수 있지만 건물사이에 형성된 중정의 개방감과, 복층으로구성된 주호부분 공간의 상호 침투 및 개구부의 자율적 배치로 인해 생긴 구성미를 띤다. 그리고 섬세하게 쓰여진 재료가 그와 함께 형태적 감각을 살린다. 건물 후면으로 돌아가면 지면으로부터 마치 길을 만들 듯 설

치해 놓은 외부 계단이 위층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따라 올라선 테라스에서 시선이 탁트인 쾌적한 개방감을 느낄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건물은 지나치게 회화적 이미지를 땀으로써 건축적 체취가 달해질수도 있다.

램쿨하스의 작품도 그의 독특한 건축적 감각을 표출하고 있다. 램쿨하스의 건축은 90년대 중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었다. 특히 그의 건축은 현대 의 대표적인 건축적 경향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가 설계한 이 건물에서는 기능 블록과 그 사이 동선에 의해 공간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의 커 사이에 빛이 유입되게 했다. 나아가 그 켜는 통로와 세대앞 광정 등 이동 장소에 따라 마치 빛의 스펙트럼처럼 투명, 반투명, 불투명의 대비를 통해 감각적 층위를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반투명 공간에서 정제된 공간의 감각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창호지를









4. 스티븐홀 블럭 전면 외관 상세 5. 스티븐홀 블럭 뒷면 외관 6. 램쿨하스동 외관 7. 넥서스월드 뽀잠박동 외관상세

사용한 공간 분위기와 유사하다. 그것은 어 쩌면 램쿨하스 자신이 동양건축의 공간적 분 위기를 좋아하고 본받으려 한데서 비롯되었 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형태상에서는 외벽에 사용된, 석축에 쓰이는 형태의 견치돌에서 순수 예술적 조형감각을 표출해 보이고 있 다. 또 그의 독특한 건축 방법론으로 이해되 는, 건물과 외부공간이 함께 적극적으로 디 자인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의 진입 및 접근 과정이나 내외부공간 모두에서 건축 가의 의도로 연출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의 건축은 칸의 건축에 느껴지는 것 처럼, 사물의 질서를 다툼으로서 얻어지는 본질적 표상과 구별되는, 도시와 관련지어 다루어지는 기능 프로그램에 맞춰 조직된 건 축 공간과 도시가 연계되는 과정 전체를 다 루려는 현대건축의 경향을 보여준다. 램쿨하 스의 건축에는 그런 성향중에서도 공간의 감 각 창출에 탁월한 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건축의 예술성은 공간과 형태를 나누어 생각 할 수 없는. 건축만의 특성이 갖는 본질적 추 구로 얻어지는 고유 속성이 있을 것이다.

길을 돌아선 끝 모퉁이에 위치한 뽀잠박 의 작품에서는 경직되기 쉬운 현대 도시 건축 상황속에서 낭만적 즐거움이 베어 나온다. 그러나 한때 명성을 떨친 그의 건축에서 그러한 면모 외에 심오한 어떤 느낌은 찾아지지 않았다. 다만 외부 공간에 물길 등 생태적인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루게 한 것은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단지를이루는 이시아마 등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들도 건축가의 개별적 특성을 표출해 보이며전체 단지의 건축적 특색을 함께 형성하고있지만 건축적 건강한 힘이 크게 와 닿지 않았다.

10시 30분 넥서스 월드를 출발해 17분 후 모모찌 단지에 도착하였다. 먼저 스텐리 타 이거만이 설계한 씨사이드 모모찌 복합용도 아파트를 본 후, 인근의 니켄세케이가 설계 한 사이부 가스 박물관과 마이클 그레이브스 가 설계한 후쿠호가 타워 등을 돌아보았다. 모모찌 복합용도 아파트는 외부로 나타난 그 리드의 추상적 이미지와 그 안쪽에 둔 내부 중정이 특징이다. 그리고 가스 박물관은 노출된 구조체와 규격적인 검은색 금속판낼을 미니멀한 감각으로 사용하여 추상적 느낌이 드는 작품이다. 그리고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설계한 후쿠오카 타워에서 인상적인 것은, 외부 전체가 유리로 덮인 고층 건물 내부에 천창으로부터 1층 바닥까지 뚫린 썬큰을 두어 자연광이 비추게 하였다. 그래서 마치 높다란 유리 튜브와 같았다. 1층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에레베이타가 마치 케이블카처럼 노출 상태로 움직임을 보이며 운행되고 있었다. 그 곳을 보고 나와 일행은 후쿠오카시 소재 현대 건출물들을 보기 위해 떠났다.

후쿠오카시 소재의 현대 건축들

후쿠오카는 인구 130만으로 일본에서 8 번째 큰 도시이다. 그곳으로부터 직선거리가 동경까지는 850Km, 서울까지는 550Km로 서 서울이 더 가깝다. 우리가 밤에 항해해 온 항로는 세종 1년 때 일본 정벌 길이기도 하







8. 이시야마동 외관 9. 뽀잠박동 건물외관 10. 후쿠오카 타워

다. 과거 이 곳 규슈지역은 9개 나라로 구성 되었었는데 지금 8개 시가 있다. 다음 답사 지로 가면서 후쿠오카 변두리에 있는 나고시 마 국제공항 옆을 지났다. 나고시마는 도공 으로 잡혀간 심수관 후예들이 사는 곳이다.

12시 30분 후쿠오카 시립 하카다 초등학 교에 도착했다. 그 학교는 초등학교와 나라 야 커뮤니티 센타가 합쳐 있다. 그처럼 하는 것이 현재 일본 건축의 추세라고 한다. 보호 자들이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일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사회적 생활리듬에 적합 하게 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그러한 복합 프로그램에 적합한 매스 구성과 노출콘크리트와 금속 등 사용된 재료의 감각 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드 공간과 데크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의 허락을 받기 의해 가이 드가 대화하는 동안 운동장까지 들어가 둘러 보았으나 허락을 받지 못해 더 이상은 보지 못했다. 사전에 연락이 되었었으나 사정이 생긴 듯 했다.

그 곳을 나와 2시 24분 카지와라에 도착해 카지와라 커뮤니티 센타를 보았다. 이 건물에서 인상적인 것은 진입으로부터 내부에이르는 건물의 사이공간의 적극적인 디자인이다. 몇년전부터 유행한 대지 건축의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것은 건물과 외부공간이 일체된 디자인 효과는 보여지지만그냥 손길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지녀지는 여백적 정서는 없게된다.

다시 그곳을 떠나 3시 30분에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설계한 후쿠오카 하얏트 리젠시호텔에 도착해 30분쯤 그 곳을 둘러보았다. 이 건물은 이번에 돌아본 다른 현대 건축들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을 개착한 건축가로서 그가 설계한 이 건물에서는 그러한 사조의 인상이 표출되고 있다.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고전적 어휘와 색체의 장식적 사용이 읽혀진다. 이 건물에서는 특히 로툰다 로비에서 올려다보이는 피라미드형 광정은 벽에 장식적 으로 배열한 네모난 참과 원색의 색

체 장식으로 환상적인 느낌을 자이낸다.

다시 그 곳을 떠나 4시 12분 아크로스 후 쿠오카를 답사했다. 그 건물은 내부에 높은 천창으로부터 지허층까지 빛을 비추는 너른 광정을 두었는데, 과거에는 건물의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내부에 보이드 공간을 두는 것을 꺼리었으나, 자연광에 의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는 의식이 그러한 공간을 많이 낳고 있다. 그것은 특히 이번 일본 기행에서 일본 건축의 한 단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다른 인상적인 것은 건물 남쪽 공원에 면한 외벽에 발코니를 두고 조경을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아산처럼 건물이 수목으로 뒤덮여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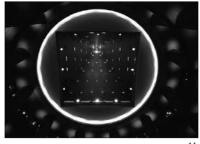
그 곳을 나와 알도 로시가 설계한 호텔을 보았다. 이 건물을 설계한 로시는 이태리 건 축가로서 80년대 이른바 신고전주의 작품을 선보이며 많이 알려졌었다. 이 건물에서도 기단과 기둥 그리고 엔터블러취라는 고전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외관에서 그의 독특한 건축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것이 시













11. 후쿠오카 타워 내부 12. 하카다 초등학교 외관 상세 13. 카지와라 커뮤니티센터 외부광장 14. 후쿠오카 하얏트 호텔 내부 로툰다 상부 15. 이크로스 후쿠오카 외관 16. 캐럴시티

● 072 Korean Architect December 2004

대에 뒤떨어져 보일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각각의 요소들은 매우 단순하고 매끄럽게 다 듬어져서 현대적 감각을 띤다. 이 건물에서 특이한 것은 그 건물 정면 앞으로 흐르는 나 가스 강을 향한 창을 두지 않고 모두 벽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것은 건물이 앞뒤로 길게 복도를 두고 그 양측에 방들을 배치했는데, 전면 이외 방들이 양옆으로 창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창의 위치를 통일시키며, 건축사의 개념을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을 보고 나와 그 앞을 흐르는 강기를 걸어 캐럴시티로 행했다. 강가에 면해 있는 건물들이 소박하고 오래되어서인지 강과 평화롭게 어우러져 보여 잠시 서서 스케치했다. 강변 보도에는 역시 오래된 작고 맵시 있어 보이는 구식 포장마차가 막 장사 채비를하고 있었다. 거기를 지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캐럴시티와 이웃 간물들 사이에 조성된지하 광장으로 들어갔다. 거기서는 백화점및 상점들의 건물 사이에 분수와 연못 등 공들여 만든 조경 공간을 두어 건물 내부와 외부

를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인상적이 었다. 그 곳을 보고 시내를 빠져 나와 7시경 가까운 교외의 아메시 호텔에 도착했다. 시설의 격은 높지 않지만 주변이 시골동네 분위기를 하고 있어서 좋았다. 그 날 돌아본 후쿠오카 지역 건물들에서는 신고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현재의 주된 경향이 된하이테크 건축까지 여러 가지 건축 사조를 접할 수 있었다. 그 날 본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생각해보니 넥서스 월드 외에 본건물중에서는 하카다 초등학교가 가장 나아보였다. 데크처리된 교실 밖 오픈 스페이스와 그 공간에 작용하는 섬세하고 감각적인 외벽 처리가 돋보였다.

전쟁의 상처가 남은 나가사키 지역의 현 대 건축들

다음날인 8월 9일은 오전 8시40분에 나가스 항에서 나가사키로 출발하는 배를 타기위해 아침 일찍, 7시에 호텔을 출발했다. 가는 사이 차창 밖 날씨가 참 맑아 보였다. 8시

20분에 항구에 도착해 배를 타기 전까지, 이 시다 토시아키가 설계한 나가스 항 여객터미 널을 먼저 둘러 보았다. 단순한 흰 직육면체로 이루어진 그 건물에서는 우선, 건물의 2층 매스가 허공에 걸린 듯 길게 뻗쳐나와 있는 것이 인성적이었다. 1층 외벽이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건물 전체가 들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후면에서 보면 건물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배에 탈때까지의 동선에 맞춰진 매스구성이 보이는데, 매스별로 본체의 단순한 흰색 매스와 조화 되도록 검은색 금속판으로마감하여 조화로운 감각을 띠게 했다.

거기를 떠나 일행이 탄 배가 9시 30분 나가사기 항에 도착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서해안에 면해 핵점함 시설이 있는 곳이다. 우리에게는 히로시마와 함께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원폭을 받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이곳에는 제철 군수시설이 있었고, 히로시마에는 해군기지가 있었다. 1945년 원폭투하 전날 미군이 있는 지역에 소개 목적으







17. 아크로스 후쿠오카 내부 광정 18. 후쿠오카 가로변의 전통양식 건물 19. 후쿠오카 일파라조 호텔 정면 외관

로 소이탄을 투하했었는데, 원폭을 실은 조 종사가 그 연기 때문에 한시간이나 못 찾고 헤매다 연료가 떨어져가자 오전 11시 50분 군사시설이 없는 이 지역에 투하했고, 그 것이 나가사키 형무소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 때 7만 5천명 사망했다.

이웃나라끼리도 역사에서 애증이 세월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기억이 훨씬 클 것이다. 과거사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의식하게 되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인상도 상대적으로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2 월드컵때 일본사람들로부터 한국사람의 주가가 최고조로 올랐다고 한다. 버스 기사가 일본사람이 떠들면 "한국사람 탔에! 조용히 해"하며 우대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근래는 욘사마로 불리는 배용준에 의해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국제 감각이 가장 뛰어난 곳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나비부인 은 사세모 미군기지에서 생긴 미군 장교와 일본 아가씨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리 고 나가사키는 소서행장의 영지였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으며, 풍신수길의 말을 안 들 어서 임진왜란후 숙청되었다. 그 뒤 시마바 라의 반란이 일어나 그 진압과정에서 섬 인 구중 2/3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 을 당했다. 그리고 1962년 아마이 겐지가 설 계해 지은 그 곳 일본 26인 순교 기념관은 그 때 박해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교인들의 넋을 모시며 세운 것이다. 9시 30분 우리 일 행은 그 이래 도로 건너편에서 내려 언덕길 을 걸어 올라 50분 정도 머물며 그 성지를 답사했다. 그 건물은 자유스런 형태로 높이 솟은 첨탑에 타일 파편 등으로 꼴라주 하듯 장식한 모습때문에 금새 가우디가 떠올려진 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흰 벽으로 마감한 내부는 기능에 충실한 근대성을 띠고 있다.

거기서 이동해 11시 30부터 30분쯤 다까 마스 신이 설계한 나가사키 페리 터미널과 그 옆 마이클 로톤디가 설계한 나가사키항 창고 C동을 보았다. 터미널은 거꾸로 세운 원추 모양의 매스와 수평을 긴 타원형의 매스가 교차하며 강한 기하학적 볼륨감이 표출된다. 천창으로 자연 채광되는 외부 광장같은 완충적인 공간의 켜를 두어서 건물 내부에 쾌적한 활력을 갖게 했다. 그것은 이번 답사지 여러 곳에서 느껴진 감각이었다. 이어둘러본 창고 건물은 건물밖에 강관구조로 피막을 추가하여 차양공간을 만들고 외부 형태상으로는 스텔스기 같은 경쾌하고 현대적인이미지를 갖게 했다. 그 곳을 보고 인근에서 1시까지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 비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는 일행이 난처해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운전 기사가 우산을 한아름 들고 와서 모두들 그 친절에 감동케 했다.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나를 잘 보이지 않는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늘 친절한 미소를 짓고 욕도 잘 안한다. 기껏 한다면 "데 마끼 데메 (이 새끼가)"정도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속내는 모른 채 일본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만을 갖게 되는 수







20. 나가스항 터미널 21. 나가사키 일본 26성인 순교기념 교회 22. 나가사키 페리 터미널 내부

● 074 Korean Architect December 2004

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명함 꺼내 주고받을 때 예를 깍듯이 한다. 명함을 받으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책상에 올려놓는다. 명함을 집 어넣으면, 얘기 끝났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차 한잔 더 하시겠습니까?"도 "더 할 말씀 있습니까?" 뜻으로 할 얘기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한다.

2시 28분 시마바라항 출발하여 3시 25분 미즈미 항에 도착했다. 흐린 날씨에 항구로 들어가는 동안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갑판에 나와 있기 곤란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항구까지 섬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는 동안 주변에 펼쳐지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바닷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내리자마자그 항구 시설인 미즈미항 항구 시설을 돌아보았다. 건물 안은 달팽이 집 같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건물 높이가 높지만 그 안은모두 텅 빈 단일 공간이다. 기능상으로는 기념품 등을 파는 매점이 있을 뿐이다. 이 건물은 내 외부에 정점으로 오르는 나선형 램프를 설치하여 마치 산에 오를 때처럼 순환로

를 따라 생기는 시선의 변화와 시간적 간격을 의식할 수 있게 했다. 그로써 원추형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를 일치시켜 놓았다.

그 곳을 떠나 미즈미 댐으로 가는 동안 운전 기사가 길을 못 찾고 잠시 헤매는 사이 시간이 많이 지체된 탓에 6시경에야 댐에 도착했다. 그 곳도 아트폴리스의 하나인데, 별다른 얘기 거리는 없어 보였다. 한가지 거기서 느낀 것은 토목 구조물인 댐 관리소까지 신경을 써서 찾아보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열정은 느껴지지만 건축물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그리 공감되지 않았다. 거기서 30분쯤 머물다 숙소로 향했다.

그 날 본 건물들은 대부분 우리 일행이 이동하면서 실제 이용하게 되는 공공시설이었다. 그것들을 보고난 후 일본의 현대 공공건축에 대한 어떤 공통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공공건축에 상품적 가치를 담으려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그것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특징 있게 잘 지어 도시이지도 활용하려는 생각이 느껴졌다. 그래

서 돈이 더 들더라도 상품가치의 수준을 확보하려는 것 같았다. 그것이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라는 프로그램도 생겨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았다.

7시 30분 구마모토 시 외곽에 있는 시라 카와 시로가네호텔로 갔다. 이 곳에서는 이 틀을 묵게 되어 있어 편하게 여장을 풀었다. 그 말 밤 거기서 경전철을 타고 구마모토 시 내를 관광했다. 귀가 때 일행과 만나기로 한 지점을 가다 구마모토 성이 보여 잠시 둘러 보았다. 圖













23. 나가시키 페리 터미널 전경 24. 나가시키항 창고 C동 25. 미즈미항 터미널 26. 미즈미항 터미널 내부 27. 야쓰시로 시립 앙노노인홈 28. 야쓰시로 시립앙노노인홈 입구쪽 외관

연구STUDY

이 관 직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y Lee Kwan-Jick

디지털환경과 건축설계

Digita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Design

문화 혹은 문명으로서 건축의 지위

모든 예술은 기호, 표현, 소통 즉, 미디어적 과정을 본질로 가지고 있다.

건축은 용도와 기능이 기본속성이다. 이 기본속성에 더해 예술일반의 미디어적 과정을 함께 가지고 있다. 건축은 공간, 형태, 용도(기능), 구조, 재료의 종합구성으로서 의미와 표현 이전에 인간의 거주성(장소의 창조)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다. 생활을 담는 그릇, 장소로서, 삶 자체를 규정한다. 그 장소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관심, 욕구, 생활, 기술, 비전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표현이다. 도시와 건축은 이 거주와 장소성을 통해 역사 이래 오랫동안 인류의 표현욕구를 실현하는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왔다.

그러한 건축의 예술적이고 용도실현적인 종합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건축은 특정한 장소와 공간의 창조라는 구체적 거주성을 갖는다.

2)건축은 중력과 환경을 해결하는 기술능력과 관련된 도구성을 갖는다.

3)시대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담는 공간, 형태, 구조, 기능, 재료의 종합적 표현으로서 기호성을 갖는다.

4)사회적 욕구와 미래의 비젼을 반영하며, 지구의 생태적 환경속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예술은 인간 이상의 표현을 종합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세기에 바그너는 오페라가 인류이상의 새로운 종합표현양식이 되어야한다고 천명 하고 극장을 스스로 만들고 작곡과 공연을 통해 실현한다. 그의 새로운 오페라는 시, 음 악, 무대공간, 미술과 조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완벽한 표현양식일 수 있었다.

20세기에 영화는 종합미디어로서의 오페 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집과 복제를 통해 동시적인 확산을 가능하게 한 양식이다.

21세기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종합적이고 무한한 미디어적 능력을 실현한다.

오랫동안 건축이 누렸던 종합적인 인류이 상의 실현은 이 과정을 거쳐 멀티미디어의 세계로 이동했다.

건축은 용도와 기능이라는 그 본질 때문에 영화나 멀티미디어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왔다. 그런데,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축조되면서 그 의미는 복잡해 진다.

기계와 도구, 괴학에 대한 노력과 탐구는 컴퓨터를 발명시키고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지금은 더욱 확장되어 사용되는 사이버라는 말은 1948년에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논문과 1950년 「인간의 인간적 사용The Human Use of Human Being」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고 소개된 개념이다. 위너는 사이버네 틱스를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의 상호작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기술 진보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을 전송하는 과학이라고 규정한다.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은 '키잡이 (steersman)' 또는 '관리자(governor)'라는 그리스어에 근원을 두고있다.

월리암 깁슨는 1984년에 공상과학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유동적 건축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접속된 상황에서만 실재하는 공간이자, 무한하게 전주할 수 있는 영토이며,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공간으로서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주었을 뿐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서 현실건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거주성, 도구성, 기호성, 지속성의 건축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메타미디어의 개념과 만나면서 네트워크 개

그림 1 〈노버트위너 The Human Use of Human Being의 책표지〉〈윌리암깁슨의 Neuromancer〉

념이 첨가된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게 된다.

디지털 혹은 멀티미디어적인 환경과 건축

디지털 개념의 혁명적 발전은 21세기의 새로운 절대적인 환경이다. 이 환경은 건축의 본질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건축의 네가지 성격에 대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와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거주성의 새로운 해석

거주성은 신체의 개념에 국한되었던 것이 '접속', '몰입'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의 개념이 개입되면서 시각적 일루전이 시각적 실재와 혼란되고, 이것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포스트모더니스들의 시물라크르이론과 공명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립하여 가상과 실 재는 혼재되고 혼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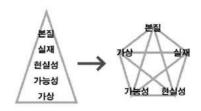


그림 2 (이데아론과 시물라크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전이건축 (transarchitecture)이나 유체건축 (liquid architecture, 마르코스 노박/Marcos Novac) 개념과 혼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interaction) 변형된다. 형태와 공간 개념이 무중력과 변형을 통하여 유체 흐름적이고, 벌레처럼 인위적 자극이나 바람 등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고 변형된다.

수천년에 걸친 건축이라는 개념, 구조라는 개념이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무한한 상상 력으로 변형, 가공되고, 현실의 건축은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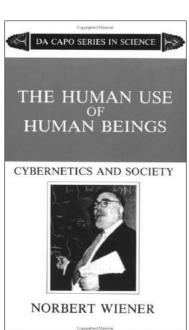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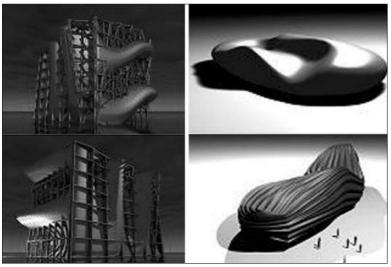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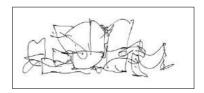


그림 1 〈노버트위너 The Human Use of Human Being의 책표지〉 〈윌리암깁슨의 Neurom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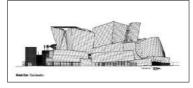




그림 4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 / 프랑크게리 / 스케치, 입면도, 사진〉

유체건축에 영향을 받아서 무중력을 꿈꾸고, 사이버 이미지로 변형을 시도하고, 매끄럽고, 휘어진 공간과 형태로 전이될 것이다. 신체와 신체의 구체적인 욕구에 적응하면서 말이다.

도구성의 관점

건축은 현실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이다. 신체의 보호라는 건축의 도구 개 념에서 디지털개념은 사이버스페이스건축과 상상력과는 다른, 현실적인 텍토닉적 능력 이 연관된다.

이 건축의 도구성은 기술적인 분야과 관점과 연관되며 설계프로세스와 건설과 관련된 컴퓨터의 이용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있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아직도 시행착오와 낙관이 혼재되어 있다. AutoCAD, 3Dmax, form-Z, Maya, CATIA 등 건축관련 소프트웨어들은 2D 도면을 전용으로 그리거나 투시도적인 효과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툴로서의 과거의 단순한 CAAD (Computer Aided Architectural Design)에서 벗어나 CAD/CAM병합(intergration)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프랑크 게리 사무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 트 홀 공모전에 당선된 후 10년동안 CAD/CAM병합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찰 흥과 카드보드로 만든 모형을 3D 디지타이 징하여 도면화하는 역공학시스템(Reverse Engineering)과 비행기의 설계 제작에 쓰이는 CATIA의 프로그램과 RP(신속조형기술 Rapid Prototyping)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실현된 디자인과 컴퓨터상의 도면들은 철골과 거푸집 등 자유형태로 디자인된 실제 스케일의 건축부품(Full-Scale Building Component)을 제작하는 과정에까지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CAD/CAM통합시스템은 이미 우리나에 서 건설공사의 표준으로 체택하고 있는 CALS/ES와 함께 디지털 개념과 시스템의 건축적 적용의 중요한 국면이다.

디자인 단계에서의 CATIA와 같은 구체적 인 3차원 실물화 설계개념 소프트웨어의 도 입은 구조, 재료, 생산, 조립, 건설의 전공정 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하게 하여 건축의 도구성을 개선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의 기호적 성격

건축의 기호적 성격은 일반 예술에서 미디어의 문제, 미디어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기호성은 건축을 창작과 감상의 관계로, 소통의 관계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표현주의 건축인데, 굳이 표현주의 건축만이 아니더라도 역사이래, 건축은 늘

건축가의 이상과 지역, 도시, 국가나 민족의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드러내고 있다.

또한 건축은 사진과 설명, 비평에 의해서 건축의 본질인 공간, 형태, 기능을 직접 경험 하지 못하는 감상자에게 읽혀져 왔다.

현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디지털 네트워 크,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거주성 개념의 창조와 함께 새로운 건축적 언어의 세계를 만든다. 그것은 건축의 새로운 서사 성의 국면이라 이야기할 수있다. 안방에 앉 아서 아크로폴리스의 완벽하게 복원된 파르 테논 신전을 거닐고 그 시대와 공간감과 기 둥의 플루팅을 만져볼 수 있다.

지속성의 문제

건축은 가상적인 이미지나 천재적인 착상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건축은 지구에 구축 되며, 고형물이고, 인공물이라는 것이다. 나 무를 베고, 산을 밀어 한번 건축해 놓으면 수 십년, 수백년을 간다. 새로운 건축적 이유로 이 건축을 부수면 처리곤란한 엄청난 쓰레기 가 된다.

환경과 관계하며 미래적인 비전을 찾기 위한 건축적인 노력도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 여야 한다. 이 생태적 테마는 디지털과 만나 지는 국면이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생태적 테마와 관련해 디지털의 문제는

기술적 낙관주의와 기계만능주의에 대한 혐오가 교차한다. 기술적 낙관주의는 기술 정보를 선취한 그룹들이 가지게 되고, 더불어선진적 기술 지식에 대한 진보적 이용자들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미래 공학적 환경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은 생태주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기계주의에 반대하는 인본주의자로서 미래를 회의하고, 기계에 대한 막연한두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매체(콤퓨터와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친화와 학습에실패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건축에서도 공학적 생태주의는 피할 수 없는 다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생태적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날카로운 대립점이 있다.



그림 5 〈로봇군대 드로이드 / 스타워즈 〉



그림 6 〈유전자 복제 군대 – 클론 / 스타워즈 〉



그림 7 〈오시이마모루 극장판 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 에서 2030년 미래/내무청 직속 공안 9과 소속 쿠사나기모토코 소령은 뇌와 척수를 빼고 몸을 거의 의체화한 사이보그이다.〉

유전공학적 발전과 기계적 디지털의 개념은 서로 다른 대안이 되기도 한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클론의 군대와 로못병사 드로이드에서 보듯이. 이들은 유전적 방법인 대량복제와 기계적 방법인 대량제조라는 상대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 물론 3PO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오지만 확대된 디지털의개념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과 회의의 혼란에빠지게 한다.

건축 설계와 디지털 환경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설계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본다. 분야별 작업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 가능한 디지털 작업을 연결하였다.

> predesign

사업분석, 개발계획, 대지확보

- 타당성조사 feasibilities study, programming
- *** GIS, data분류, 비교, 검색, OA프로 그램

분석 Analysis

- 0. 대지 분석 site condition
- 콘타contour모형, 스케치, 환경분석 (지형, 일조, 조망, 소음, 기후, 인문적환경)
- *** data분류 저장 검색,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0A 프로 그램
 - 0. 건축주요구 및 프로그램 program
- --- 도서자료, 분석, 사례조사, 건축사적 해석
- *** data분류 저장 검색, OA프로그램
 〉 개념, 착상, 계획 Concept, Idea & Planning
- 스케치, 모형, 토론, 사례조사, 형태및 공간 구상, 프리젼테이션
- *** cad, 3차원 모델링프로그램, 시뮬레 이션, RP, 3D프린팅 / 3dmax, 폼지, 스케치

업, CATIA, 인디자인 등등

-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 스케치, 모형, 이론연구, 토론, 도면작성, 보고서작성, 프리젼테이션, 구조개념
- *** cad, 모델링프로그램, 시믈레이션, RP, 3D프린팅, OA, 그래픽프로그램, DTP, OA / 3dmax, 폼지, 스케치업, CATIA 등등
 - 〉디자인디벨롭프(D.D), 실시설계
- 건축 및 구조 도면작성, 재료일람표, 분이별 도서작성, 취합, 시방서, 분이별계산서 *** CAD, CALS/ES, OA프로그램, cad/cam intergration

설계와 관련된 작업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 디자인작업
- 〉 프리젠테이션 작업
- 〉도면작업
- 〉서류작성작업
- 〉 스터디모델제작
- 〉통합 공정 작업(CAD/CAM intergration)





그림 8 〈 RP기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 한국아크, 큐시스〉

디자인 작업에서 디지털 개념과의 문제는 현재 설계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이 구상 과 2D로 계획한 후 도면을 그린다거나 투시 도로 시물레이션해 보는 정도의 활용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미 미국에서는 일부설계 사무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RP(신속조형기술, Papid Prototyping)기술을 이용한 3D프린팅과 같은 모델작업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장비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현재는 레이저 커팅기정도를 외주를 주어서 쓰고 있지만 전략적인투자를 결심하는 사무소가 조만간에 등장할 것이다. 이미 기계 금형 분야는 RP 기술이다수 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새로운 환경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건축 설계 분야에도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은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건축 행정 경우 2001년부터 건축행정정보화추진기획 단에 의해 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업무를 비 롯한 건축 민원을 전산화 하고 있다. 지방 자 치단체에 허가시 허가서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고, 허가 도면을 오토캐드로 그려진 데이터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건교부는 전산화와 더불어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속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까지 건 축허가시스템 e-AIS를 개발하고 2007년부 터 전국적인 인허가 업무의 완전한 인터넷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 행정도 CALS/E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s / Electronic Commerce)의 도입으로 전산화와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특정 프로그램 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의 독점 문제를 제외하고도 표준화 작업은 분야 전체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이 따라야 하는 등 종이 서류를 없애려는 정부의 계획 은 멀어만 보인다.

중국과 십여년을 걸쳐서 설계업무를 교류 한 경험이 있다. 1993년 처음 중국과 일을 했을 때는 설계 분야에서 상당히 낙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2003년 사이에 중국 천진의 설계 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열흘 정도를 같 이 작업했다. 설계 사무실에 컴퓨터나 출력 장비의 수준도 우리나라와 비슷했고 3D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수준은 우리나라 5, 6 년 이상의 경력자들 보다 상당히 높았다. 오 히려 2D 도면 상태에서 평면을 밀도 있게 계획하고 발전시키거나 입면을 디자인적이 나 현실적으로 재료, 디테일 개념을 가지고 다듬는 것은 생각보다 미숙했다. 아마 대학 교에서 3차원 프로그램과 표현력을 훈련 받 은 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나 라와 달리 컴퓨터의 보급이 3차원 프로그램 이 어느정도 정착되었을 때 이루어진 이유일 것이다.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은 어느정도 교 육을 받지 않으면 두려움을 벗어 버리기 어 럽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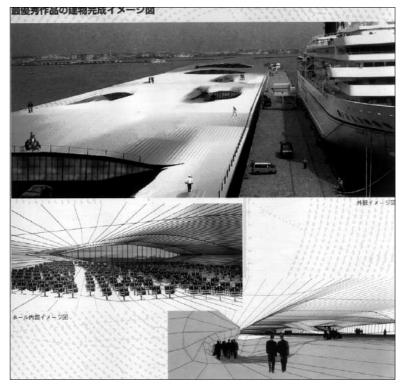




그림 9 〈요코하마 씨 포트 /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화시드 무사비 / 현상설계당시의 투시도, 완공된 전경 사진〉

본적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접 근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로 진행하고 있지만 투자의 효율과 경쟁적인 우위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의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고, 개인과 사무소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재교육에 투자하고,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학교는 전문적이고 진보적인 교수자원을 확보하고 신축성있는 커리큘럼으로 건축적인 상상력과 디지털 마인드를 학생들이 갖도록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책임과 즐거움으로서 건축행위

건축의 거주성, 도구성, 기호성, 지속성은 각각 건축가의 상상력, 현실적 구성능력, 표 현력, 철학에 대응한다.

건축가는 공간과 형태, 건축개념에 있어서 창의적이어야 한다.

텍토닉적 구현에 있어서 교육되고 훈련된 전문가일 뿐 아니라 현실 인식하고 작가적인 표현욕구와 문화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건축의 지속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철학과 문화적 이해는 시대를 건축은 '본래적'으로 보게할 것이다.

1994년에 우리 사무소에서도 참가했었던 일본 요코마하 시포트에 대한 국제 현상설계가 있었다. 1등 당선된 유럽의 작가 알레한 드로 자에라폴로는 위상수학적인 감각의 공간을 개발 초기의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구상하고 표현했다.

자신의 구상이 먼저 있었겠지만 모형을 만들고 단면을 끊어보는 것만으로는 그런 공 간의 구체회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드로잉 도구는 오토캐드 릴 리즈 10 정도나 인텔리 캐드였을 텐데 지금 에 비하면 아주 조잡한 단계였다. 그러나 surface나 mash, ucs등의 명령으로 3차원을 그릴 수 있는 툴이었고, 입체적이고 수학적인 공간을 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건축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새로운 조형을 실험하게 한것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축 재료 공법, 상세(detail) 에 대한 자료집이 없다. 데이터 베이스가 없 는 것이다. 건축 역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 지로 공법과 시방서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 스 구축과 활용도 중요하다. 미국과 같은 나 라는 전문적인 협회가 구성되어 구성원의 이 익을 옹호하고 일반인들에 대하여 구성원 개 개인이 전문적인 권위를 가질 수있도록 보장 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성있는 자료 축적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원과 일반인은 필요한 경우 무료 혹은 유료로 그 자료를 배 포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건설회 사가 중심이 되어 방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 스를 출판한다. 누적이 없는 우리의 생활 습 관은 과거의 보존에도 일부 실패했지만 현재 의 자료도 제대로 정리해 나가지 못하고 있 다. 경쟁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 한 것은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의 마인드 즉 디지털 마 인드가 더욱 문제인 것이다

디지털 개념의 특성은 첫째 기호화되 자료의 무한 증식과 검색이고, 둘째 몰입 통한 가상적 공간의 경험과 무한한 가능성이고, 셋째 기기와 접촉되어야 하는 물리적 기계적환경, 넷째 욕망의 끊없는 연쇄와 확장의 자본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디지털의 원리는 과학주의적이고, 기술주 위적 기계주의 원리에 의하므로 무한 속도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될 것이다. 아직은 그런 염려까지는 이른 감도 있지만 유전공학과 마 찬가지로 가치와 인간 존중, 지구 생태를 중 심으로 기본 방향을 견지하지않으면 언제든 지 어떤 분야의 기술이나 학문도 비본래적 경향에 빠질 수있다.

언제나 발전과 진보와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건축이지만 무엇을 위한 창의적 인 노력인가를 살펴서 지구 환경 중심의 인 간주의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인간의 뇌는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조합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디지털과 컴퓨터가 신호를 전기적 기호로 전달하고 저장하는 대뇌신피질의 유수신경 이 모델이라면 앞으로 발전될 컴퓨터는 간뇌 와 대뇌변연계를 이루는 무수신경과 화학적 시냅스와 홀몬 체계를 모델로 한 아나로그방 식이 보완 되어야 할지 모른다. 기억과 학습 은 단순한 전기적 기호에 의하여 저장되고 불러와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적 모티 브에 의해서 작동되는 아나로그-디지털 복 합체계이다.

건축은 거주와 도구의 기능적 측면과 표현과 생명력의 가치적 측면의 결합이다. 이는 디지털과 아니로그, 지능과 감성 결합의 모델로서 우리의 머리를 닮았다.

설계작업의 창의적인 과정도 신체의 직접적인 훈련에 의해, 비주얼 감각이 아닌 촉감과 근육에 의해 그려지고 느껴지는 공간과형태에 대한 촉각적 상상력과 몰입에 의한사이버스페이상의 시각적감각적 상상력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 우선으로 친다면 촉감적이고 직접적인 상상력이 먼저일 것이다.

생산성과 효율에 병행해서 즐거움과 가치를 위해 직접적인 신체에서 비롯되는 스케치와 모델만들기 등과 같이 손과 펜으로 그려진 일차적인 방식은 여전히 힘을 유지할 것이다. 圖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6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ㅊ

- 01 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 02_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 03_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 04_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 05_ 전원도시의 전통
- 06_ 집합성과 공유공간
- 07_ 표준화
- 08_ 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 09_ 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人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穗플 구시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이다.
-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설계・의장 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iji)'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함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 한 한국 건축역사학회 · 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집합성과 공유공간

밀집되고 둘러싸여 있는 완전한 폐쇄형 주동으로부터 공유공간(communal garden)을 갖는 폐쇄형 주동으로의 전환은 1920년대 새로운 공간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정원뿐만 아 니라 자연과의 접촉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폐쇄형 공유정원은 단순한 정원과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다. 나중에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이 주동의 폐쇄 성을 반대하였지만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공간의 공동적 특성을 갖는 중요한 요소였 다. 공유성의 상징화 시도는 긴 독립된 형태 의 블록을 갖는 일자형 주동(strokenbouw) 의 문맥에서 지속적인 중요한 관심사였다.

단지의 폐쇄형 주동에 둘러싸여 있는 옥 외공간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외부 주거 공간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광범위 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생법의 영향

베를라헤가 어떻게 2개 혹은 그 이상의 출입구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동 내부의 폐 쇄형 정원 이념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는 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테의 논문에서 지적 한바 있다.1) 베를라헤 자신은 별도의 폐쇄적 정원 이념에 대한 실천의 기회를 갖지 못하 였지만, 1908년 헤이그 시(市) 확장계획은 이런 방향성을 암시하였다.

노동자용 주택에서 주동내부의 공유정원 이 갖는 특별한 목적은 1909년 암스테르담 주택회의의 소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되었 다. 이 소위원회는 암스테르담 신시가지의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붙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였다.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자연광과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얻은 결론과 추천 은 주거계획 이상의 것으로 발전하였다.

"주동의 남북측 단변부(가능한 방위로 설 계하는 것)가 건설되지 않든지 아니면 통행 로의 설치로 내부 정원은 거대도시의 과밀 성 안에서 접근 가능한 오아시스가 될 것이 다. 이런 녹지대는 '도시의 심장(city lungs)'으로써, 또한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일과 후 직장인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될 것 이다."2)

이런 이념은 1912년 로흐다레(Rochdale) 주택조합이 추진하고 펙(J.E. van der Pek) 이 설계한 집합주택(그림1~2)이 바탕이 되 었다. 소위원회는 또한 건축물 사이의 거리 를 표준이상으로 할 것과 그리고 이런 '도시 의 심장 은 지자체의 소유로 할 것도 제안하 였다

공유공간과 개인주거 뒤뜰과의 대등성이 전통으로부터의 파괴를 대변하는 것이었으 나 토지를 공공(public)의 것으로 보는 소위 원회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 기 초 암스테르담은 토지의 취득과 유지를 시도하였지만 이런 시유지를 조합 혹은 개 인 투자자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 관심하였다. 결국, 에르흐파흐트(erfpacht)의 시스템 아래서 지자체의 소유권을 유지하면 서 건설업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09년 위원회가 보고서를 간행할 때까지 에르흐파흐트의 시스템에 의한 토지소유권 은 광범위하게 실천에 옮겨졌다.

당시 '도시의 심장' 개념은 폭넓게 응용 되고 있었으나 주동내부의 이런 접근은 독 창적이었다. 나중에 주동에 인접한 형태의 공유정원을 설치한 경우와 대조적으로 이데 올로기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었으나 19세 기 위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호훼의 전통

지금까지 공유정원 운동이 단지 호훼 전 통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에 대해 서 잘못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3) 그러나 형 태적 원형(morphological prototype)으로



펙 로흐다레 집합주택의 전경(암스테르담 몰루꺼 거리) 1912 그림 1 로흐다레 집합주택은 노동자용 주택에 공유정원이 도입된 네덜란드 최초의 사례로, 주거공간에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1909년 연구위원회의 의뢰로 부지의 단변부에는 주동을 배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집합주택은 일자형 주동배치(strokenbouw)의 원형이 된 것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 기능주의적 이데오르기 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정원은 로하다레 주택조합의 공동체 정신을 구체한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공유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라든가 일반대중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주택조합이 지원을 하였다.



그림 2. 공유정원의 모습

¹⁾ H.P. Berlage, De Kunst in Stedenbouw

기가 그 Bellings, De Kulfan Gledembodw. 2) Amsterdamsche Woningraad, Rapport over de Volkshuisvesting, p.41. 3) 예를 들면, 르흐헴(Van Loghem)의 작업과 호훼(hofie) 이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J. van de Beek, Tuinwijk Zuid, Women TA/BK, No.29(1974), p.6을 참조.

서의 호훼는 폐쇄적 공유정원의 중요한 사 례였다. 호훼의 물리적 개념의 연속적 관련 성에 대한 설명은 1917년 바우쿤디흐 베이 크블라트(Bouwkungdig Weekblad)지에 게재된 메이여스(M.J.Meijers)의 논문『건축 가와 주택」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호훼건 축(Hofbouw) 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발표 한 내용의 일부로 여기서 메이여스는 실질 적 호훼와 노동자용 주택과의 관련성을 구 체화하였다. 암스테르담의 스푸이(Spui)에 있는 잘 알려진 수도원(Begijnhof)의 평면도 를 게재하고 동시에 델프트에 있는 수도원 의 언급에서 메이여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공간적 정원(spacious courts)은 국민주택(volkswoningbouw)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 념이 되었다."4)

그러나 메이여스는 호훼의 기본적인 형태 와 그 자신이 예시하는 형태를 구별하였다. 메이여스는 호훼정원은 지나치게 좁으며 여 기를 통하는 한 개의 출입구는 부적절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호훼를 주동 으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을 주의 깊게 고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기사에서도 이것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메이여스가 지적한 특 징적 구별은 규모 그리고 호훼에 면해 주거 로 통하는 현관이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으 로 폐쇄형 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로에 면하여 현관을 가진다는 점이다.

주택법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1917년까지 건설된 집합주택 프로젝트는 메이여스의 논 문에 게재되어있다. 1911년부터 1912년까지 아넴(Arnhem)에 건설된 베르슈어베익 (Verschuerwijk) 집합주택은 근대 집합주택 에 호훼의 이념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다. 여 기서 가로나열형 주택들은 가로 패턴의 관 습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도로의 중 심과 중심 사이에 최소한 125m를 유지하도 록 하였다. 따라서 3열로 중복되어 있는 주 택과 학교는 슈퍼블록(super-block)안에 위 치하고 있다. 블록의 네 모서리는 건설되지 않았지만 중심공간으로의 입구는 외곽으로 배치되어있는 건물의 세 곳에 출입구가 설 치되어있다. 메이여스는 불록 내부공간에서 의 차량통행 금지 그리고 바람과 오염으로 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특징으로 지적하고



그림 3. 발렌캄프, 어트 베스떤 주택조합이 지은 집합주택의 주동내부 전경(암스테르담, 쏜호프), 1919 이 단지의 기본계획은 암스테르담 시(市) 주택국에서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단지 전체의 규모와 보차(步車)의 분리에 있다. 독립적 '주택' (the individual house)을 표현한다고 하는 건축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폐쇄성이라든가 출구로 인한 전체 매스의 관통이라고 하는 지테-베를라헤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배치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방어중심의 중세적 모티브는 건축언어에 반영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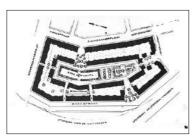


그림 4 배치도



그림 5.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정의 전경



그림 6. 로흐헴, 따윈베익 싸위드 주택조합이 지은 집합주택의 전체 전경(할렘), 1919~22 이와 같은 중산층을 위한 집합주택에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유정원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로흐헴의 첫 번째 시토였다. 공유정 원에 대한 로흐헴의 의지는 베를라헤를 거쳐 지테의 영향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지에 접한 도로는 계획이전에 가설된 것으로 충분한 도로 폭이 공유정원의 공간성을 좋게 하였다. 이것이 단위 평면계획(unit plan)의 단서가 되었는데, 정원 내부에 충분히 사용가능한 생활공 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쪽으로 서비스 시설을 집중화시켰다. 단위평면계획에 있어서 기능의 분극화는 높은 생활수준의 유연성을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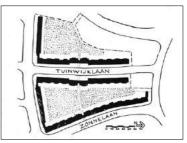


그림 7 배치도



그림 8. 1층 평면도 ① 입구,② 홀,③ 거실,④ 식당, ⑤ 부엌,⑥ 창고,⑦ 화장실



그림 9. 2층 평면도 ① 홀,② 침실,③ 다용도실, ④ 욕실

^{4}} Mels J. Meijers, De Architecten en de Woningbouw Part I , Hofbouw, Bouwkundig Weekbald, 38, No.11(1917), p.1.
5) 메이여스(Mels J. Meijers)는 실수로 이 계획이 1892년에 작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된 호훼 양식(hof style)의 첫 번째 사례라는 기술은 틀리지 않는다. 건축가로는 로스(Roos)와 오버레이더(Overeijnder)로 이들은 얼마 후에 로테르담의 프레이익 전원마을에서 집합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있다. 특히 메이여스는 학교를 차량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하였다. 그 자 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적의 편안한 장소' 라고 지적하고 있다.6)

이와 같은 자세는 메이여스가 지적한 또 다른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암스테르담 스파른담머 근린지구의



그림 10 도로 측에서 본 전경



그림 11. 공유정원 내부의 전경



그림 12. 브린크만, 스빵언 시영 집합주택의 배치도(로테르담), 1919~21 브린크만은 로테르담 시(市) 주택국 국장인 플라떼(Plate)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니크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집합주택을 실현시켰다. 이런 성과는 베를라헤와 지테에 의해서 제안된 폐쇄성 과 매스의 연속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스빵언 집합주택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공간의 복합성과 전환성의 결과에 있다. 공중에 떠 있는 도로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가 세대의 '외부공간(outside)' 이라는 반전성 그리고 하나의 축 상에 대칭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간이 복합성(complex) 과 풍부함(rich)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기념성이 현존하고 친밀함이 풋만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가로벽(street wall)은 평탄하다. 그러나 이런 가로벽의 형 태는 주동의 단부에서 발전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폐쇄되어 있으나 공간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모든 세대는 동등하지 않지만 이들 몇 개는 대부분 나뉘어져 있다.

싼호프(Zaanhof, 그림 3~5) 집합주택에서 도 볼 수 있다. 이 배치계획은 1915년에 설 립된 암스테르담 시(市) 주택국에 의해서 실 현되었고 건축가는 내 · 외부의 주동을 설계 하였다. 여기서 아넴의 호후(hof)의 경우와 달리 차량은 건물동의 두 곳에 뚤려있는 통 로를 통하여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구를 분리하였다. 바렌깜프 (Walenkamp)의 주동 내부설계는 명백히 중세적이고 공간의 폐쇄적 성격과 더불어 중세 성곽(城郭)의 방어적 공간의 안전성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싼호프 집합주택 계획은 베를라헤가 1915 년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을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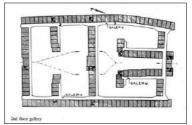


그림 13. 2층 갤러리의 동선도



그림 14. 1층 및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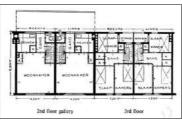


그림 15. 3층 및 4층 평면도

성시킨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 으로 여겨진다.77 메이여스는 베를라헤의 계 획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건축형태를 더욱 폭넓게 적용시킬 것을 희망 하는 견지에서 보면 베를라헤의 작업에 지테 의 기능적인 측면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집안은 그다지 작지 않다면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된 정원 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그림 16. 갤러리에서 여성들이 담소하는 모습



그림 17. 갤러리에서 리어카로 배달 서비스하는 전경



그림 18. 갤러리에서의 어른과 아이들

⁶⁾ Meijers, De Architecten en de Woningbouw: Hofbouw, p.1. 7) 싼호프(Zaanhof)의 건축가 발렌깜프(Walenkamp)는 인테리어 스페이스(interior space)의 경계를 정하는 인테리어 블록(interior block)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Greve, Kuipers, Ingwersen와 같은 건축가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어떠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된 매스(mass)에 위치한 놀 이공간이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개방된 '광장(squares)'에 위 치한 놀이공간보다 더 희망하고 있다."8)

리가 연속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의 좁은 폭 에 공유정원이 접근할 수 있는 두 개의 작은 게이트 하우스를 설치하였다. 1층의 거주자 들은 당시까지 작지만 개인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축선으로부터 2m이내의 장소 에 한정되어 있었고 여유 공간은 형식적 정 원(formal garden)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1912년 5월, 이 정원의 오픈은 암 스테르담 시(市) 전체에 걸쳐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또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

공유정원의 원형

주택조합은 1902년 주택법의 적용 하에 서도 19세기 투기업자에 의해서 건설된 주 택과 유사하게 완전히 폐쇄된 형태를 갖는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지만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된 옥외공간 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주택이 지어 진 후 투기업자와 거주자 사이의 유일한 매 체는 임대료의 징수였지만 조합은 주택계 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공동작업에 대 한 자존심과 1909년 암스테르담 주택회의 에서 지적된 바람직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바램은 처음으로 주동내부에 최초로 공유정원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동 기가 되었다.9)

1909년 주택회의의 연구위원 중의 한 사 람이었던 펙(van der Pek)은 로흐다레 (Rochdale)주택조합에 고용되었다. '인도인 거리'의 집합주택에 공유정원을 도입하기 위한 발의는 건축사와 이상주의적 협회와의 상호절충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이 계획은 1909년에 공표된 모든 원리를 통합시키지 는 못하였다. 주동은 남북축이 아닌 동서축 으로 건설되고 주동내부의 정원은 모든 거 주자를 위한 계획도 되지 못하고 조합의 관 리 하에 있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 는 정원을 갖는 몇몇 사례와는 달리 로흐다 레 집합주택 정원의 경우는 주동의 네 모서



그림 19. 갤러리에서의 아이들 스빵언 집합주택에 도입한 갤러리 이념 또한, 복합성에 기초한 풍부함의 창출이었다. 여기에는 내부와 외부, 앞과 뒤, 가장 공적인 요소(circulation)와 가장 사적인 요소(flower boxes)의 대립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물건을 운반하기에 충분한 폭(2.2~3.3m)이 확보되어 있는 갤러리는 공유적 발코니, 혹은 옥외공간으로서의 기능성도 갖고 있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대의 전면(후면)의 갤러리 공간은 단지 동선이상의 기능 성도 갖고 있었다. 하나의 공간에 사적 영역화와 공적 유용성이 동시에 갖게 된다는 것은 기능상으로 볼 때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1934년 건설된 베르흐폴더 고층집합주택에서 갤러리 형식이 도입 되었으나 여기서는 동선이라고 하는 기능성만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토입된 갤러리는 건물에서 기술적 측면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0. 스빵언 집합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전경



그림 21. 브린크만, 스빵언 집합주택, 주동내부의 공유정원 전경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유공간의 대부분은 작은 구획으로 분할 되어 있어, 1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이런 삼각형태의 정원 (triangular garden)을 내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층에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의 '존재감(presence)'이 강하게 인식되어 1층 세대를 위한 정원이 정돈되고 균형잡힌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1층과 갤러리가 있는 2층 사이의 쾌적한 배런스로 작은 구획으로 분합된 옥외공간은 부분과 전체와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적 조화는 스빵언 집합주택의 성격을 거의 모든 점에서 결정짓고 있다. 순환시스템의 수직적 요소 -1층에서 갤러리 와 연결되어 있는 계단- 는 구성주의적 갤러리(constructivist gallery)와 비교하여 볼 때, 극히 제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리의 경우와 달리 계단실에서의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는 갤러리와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런 공간에서의 개인적 영역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22. 스빵언 집합주택, 중정내부로 통하는 통로

⁸⁾ Meijers, De Architecten en de Woningbouw: Hofbouw, p.3. 9) 로흐다레(Rochdale) 주택조합은 자신들이 건설한 것이 처음이라고 주장한다.(Rochdale 50 jaar p.50을 참조) 그러나, 메이여스는 펙(Van der Pek)이 헤이그에 공유정원이 딸린 집합주택(block)을 건설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Mels J. Meijers, De Architecten en de Woningbouw, Part II, De binnenruimte van het woningbolk ala gemeenschappelijke tuin, Bouwkundig Weekbald, 38, No.5(1917), p.25.

였다. 초기의 공간에 대한 접근은 자연상태에서 대중을 의식한 것이고, 거주 노동자에 의해서 결성된 오케스트라와 비거주자에 의해서 초대된 코러스(chorus)협회와의 협동 콘서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¹⁰

앞과 뒤 : 할렘의 따윈베익 싸워드 집합 주택

1917년 건축가 로호헴(J.B.van Loghem) 은 2개의 집합주택을 계획하였다.¹¹⁾ 이 계획 은 베를라헤가 1915년 암스테르담 시(市) 남 부확장계획안에서 제안된 4개의 주동과 유 시하다. 첫 번째로 '공무원을 위한 정원지구' 의 집합주택은 5개로 분리된 공유정원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 2개의 정원은 베를리헤 가 계획한 것과 유시하다. 나머지 3개의 블 록은 주택의 뒤쪽에 공유정원을 갖고 있다.

하위스 테르 클레이프(Huis ter Cleef)로 잘 알려진 이 집합주택은 로흐헴이 근무한적이 있는 조합의 이름이다. 이 계획은 이중으로 된 주동 안에 공유정원이 설치되고, 또한 서로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테르담에 있는 브린크만(Brinkman)의 스팡언 집합주택과 유사하고, 주동 또한 공간을 통합하기도 하고 파괴하면서 오히려 통일성을 파괴하고 있었다. 따라서 크고 작은 규모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워드와 베를라헤의 이념에 의해서 생겨 난 공유정원은 전통적인 중정(hofje)과 마찬 가지로 따윈베익 싸위드 집합주택(그림 6~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로흐헴의 작업으 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윈베익 싸위드에서의 가로계획은 설계작업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큰 대지의 안 쪽 깊숙한 곳에 공유정원이 설치되어 있는 데 이곳은 주동의 뒤쪽에 해당한다.

이 집합주택은 중류층을 위해 계획되어진 것이지만 다목적 집합주택(multi-family housing)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기대되고 있었다. 로흐헴은 공유정원의 유효성을 매스 의 폐쇄성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하고 주거단 위와 공간과의 관계성으로부터 풀어나가려 하였다.

부엌과 창고 등의 서비스 공간은 모두 도로 측에 접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주택의 뒤편, 즉 공유정원 쪽은 주택의 폭만큼 사용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방



그림 23. 가로에 면한 건물 파사드의 전경 주동의 가로에 면한 파사드의 4면 중, 30에는 통상 가로 측에 한관이 없기 때문에 주동이 '가로벽(street wall') 을 형성하고 있어 대단히 단조로운 성격을 때고 있다. 그러나 브린크만은 단변부 두 군데에 갤러리를 가로 촉면까지 돌출시키고, 또 다른 단변부의 1면은 가로축으로 갤러리를 반전시킴으로서 지금까지의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이런 접근은 계획의 중요한 이념에 대한 모든 단편들이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소병인 집합주택에 외관상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시켜 주었다. 주동내부의 공유정원에서 각세대로의 접근과 가로면에서 육중한 파사드 특성의 강조에서 소빵언 집합주택은 몇가지 점에서 중세 성곽에 대한 심리적 상시와 네덜란드 호훼(Dutch hofje)가 갤럽하여 탄생하였다.



그림 26. 아우드, 스뺑언 시영 집합주택를 하늘에서 본 전경(로테르담), 1918~1920 스빵언 진합주택은 아우드가 로테르당시(市) 건축공유원으로 취임 한 이후, 처음 담당한 작품으로 이전에 설계한 스레베인선 해번가 진합주택 계획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스빵언 집합주택의 건설로 아우드는 구체적인 성취를 맛볼 수 있었다. 아우드는 1921년 원핸(Munich)에 소재하는 피셔(Fischer)사무소 에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거서 지테의 영향을 이미 받았으며, 1892년 지테이템(Sittes idea)에 대한 베를리헤의

지테이념의 요소로 폐쇄형 주동, 주동내 공유정원, 가로에 면한 연속적인 매스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주동 내부로 들어가 는 출입구에 의해서 깨져 있다. 그러나, 아우드는 평탄하고 단순한 형태(planar simplicity)의 도입으로 베를라헤 이념을 잘 표현하였다. 아우드는 1층 세대에 한해 가로에 면한 전용

할 표단이었다. 아무는는 1층 세내에 만해 가는데 한단 안동 한관을 갖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으나, 이런 것만으로 각 세대의 독립성을 보여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파시드에 청문구조에 대한 구성적 리듬의 단순함이 존재할 뿐이다. 평면계획은 극히 단 순하지만, 여기서는 아우드가 나중에 보여주는 건축에서의 체계성 은 볼 수 없다. 부억은 거실과 식당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지어진 주택에서 부엌과 거실겸 식당이 한편 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발코니는 다목적용으로 설치되고 부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발코니는 다목적용으로 설치되고 부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스빵언 집합주택이 1937년 까지 로테르담의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집합주택의 형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이 집합주택에서는 알코브형 취침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24. 주동 단변부의 정원과 갤러리 전경



그림 25. 통로에서 본 중정의 전경 투시도



그림 27. 가로에 면한 파사드 전경

¹¹⁾ J.van de Beek and G.Smienk, Ir. J. B. van Loghem b.i. architect p.25, Plan, 2, No.12(1971)의 개정판 참조.

(mooie kamer) 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도로 측에는 거실, 뒤편에는 부엌-를 완벽하게 뒤엎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거의 뒤편을 지 나치리만큼 강조한 로흐헴은 뒤뜰과 공유정 원 사이에서 약간의 변화로 개인공간을 공 공공간으로 바꾸는 전환을 꽤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공존관계 (symbiosis)는 건물의 정면과 뒷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아우드가 설계한 로테르담 폐쇄형 주동의 집합주택에서는 개인정원과 공유정원 간에 부자연스러운 울타리로 보이지는 않았다. 장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건축의 정면과 뒷면의 평등화를 실현하였다는 것에 있었다.

1922년, 따윈베익 싸위드가 완성되었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도로 측 정원과 공유 정원 측 정원과의 건축적 취급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²⁾ 이런 해결법의 의의는 건물의 정면과 뒷면의 기능적 대립은 남아있지만 전통적 기능배치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로흐헴이 주동의 뒷면에 특별한 품위를 부가한 데에 있다. 그 이후 건축사를 매료시킨 공간의 균등화와는 달리, 이런 수법은 거주자에게 영역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창의적 자유를 지극하게 되었다.

안과 밖: 로테르담의 스빵언 집합주택

브린크만(Michiel Brinkman:1873~1925) 은 로테르담 시(市)의 의뢰로 독특한 집합주 택을 계획, 1921년 완성시켰다(그림 12~25). 전통적인 폐쇄형 주동은 안과 밖의 성격 차 이를 역전시킨다는 문맥에 따라서 적용되었 다. 기본적인 주거 모듈은 1층과 2층에 각각 의 주호를 배치하고, 각 주호의 입구는 주동 의 안쪽에 현관을 배치하였다. 상부의 3층과 4층은 메조네트 형식의 주호로 이 주호로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은 주동 내부에 연속적 으로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를 통하여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갤러리는 2층 이하 도로에 면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 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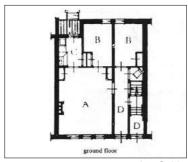


그림 28,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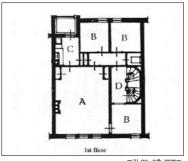


그림 29.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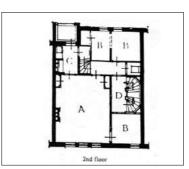


그림 30. 3층 평면도 여기서 보여주는 주동은 2개 건설된 것 중에 하나이다. 이 가의 주동 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동보다도 크다. 이것은 주동내부의 옥외공 간에 학교시설에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 옥외공간의 일부는 공유장원으로 되어 있고 교정은 주거의 1층 세대에 속하는 서너 개의 개인정원과 상충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성과 조화성이 결여되어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아우드가 단지의 일부만 설계하였다는 있다(사진에서 보여주는 집합적별은 아우드에 의해서 설계되지 않았다)

갤러리가 폐쇄형 주동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몇 년간의 이런 계획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³⁾ 건축적 이념의 원천을 추적하기 위한 성공적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브린 크만이 자신의 작품에 관하여 논하지 않았



그림 31. 헛간이 있는 중정 내부의 전경



그림 32, 중정 내부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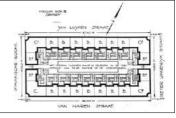


그림33. 아우드, 스빵언 시영 집합주택의 배치 평면도(로테르담), 1919~20

아우드가 스빵언 지구에서 세 번째로 설계한 집합주택으로, 이 집합주택은 얼마 후 건설된 뚜스센다이껀 집합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가로 벽과 폐쇄형 주동의 형태학(morphology) 이 아직까지 명백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 집합주택은 기본적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신조형주의 이념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주동의 모서리 부분과 출입구 상부가 보다 극적인 표현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런 표현에는 기능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공간의 개방성과 매스 처리를 통한 연속성은 아우드의 건축적 이념이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실이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 유정원을 향하여 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로흐 헴이 설계한 따윈베익 싸위드 집합주택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수평으로 연속한 발코니는 공유정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단지 공유정원내의 파사드가 통합화된 일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위층에 있는 거실이 발코니를 통하여 공유정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코니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완 충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요소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공유정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각 세대의 전용 정원과 헛간은 존재의 강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¹²⁾ J.van de Beek, Tuinwijk Zuik, p.5

¹³⁾ 바케마(J.B. Bakema)는 A House for 270 families in Spangen, Forum, No.5(1960-61)라는 논문에서 Bergpolder flat galleries(1934)가 건설된 이래 처음으로 갤러리 형식의 발상의 기초가 된 브린크만의 스빵언

집합주택에 관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파벨리(Giovanni Fanelli)는 그의 저서, "Architettura Moderna in Olanda (Florence, 1968)』에서 갤러리의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빵언 집합주택이 역사학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바케마(Bakema)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기 때문에 스빵언 집합주택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자신 상당부분 투기집단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1907년에 발표한 논문이 『Bouwkundig Weekblad』지에 게재되어 스빵언 집합주택에 대한 브린크만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¹⁴ 끄레르꿰(M.P.de Clerq)는 당시 대부분의 집합주택에서 공통적인 문제 였던 화재와 환기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집



그림 34. 주동 모서리의 전경



그림 35. 주동내부 중정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전경

합주택에서 현관문이 공동계단 쪽으로 열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주동 안쪽에 면한 '배 면 갤러리(rear gallery)'를 제안한 것이다. 돌로 만든 계단은 가로 면과 접하여 화재로 부터의 안전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개 념 또한 사회적인 차원과 관련이 있었다.

"각 세대는 전용 현관을 갖추고 있고 주 동 내부에 설치된 갤러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갤러리는 모든 거주자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상하층 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좀더 자유롭게 공 감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계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갤러리는 가 로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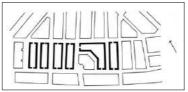


그림 36. 아우드, 뚜스센따이껜 집합주택의 배치도(로테르타), 1920~23 아우드는 당시까지 폐쇄형 주동형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스빵언 집합주택 계획에서 적용한 것과 같은 공유공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1층 세대는 공유정원 일부를 점유할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헛간은 볼 수 없다. 발코니는 같은 시기에 암스테르담에서 시행된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건물 전체의 일부로서 고려되고 통합되어있다. 1층과 2층은 총벌로 각각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메즈넷트 형식(duplex units)이 채용되었다. 이런 형식은 브리크만의 스빵언 집합주택에서도 도입된 방법이다. 그러나 아우드의 단위계획은 나중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간열생대지 조화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아우드가 더 스테일 그룹을 탈퇴한 것은 이 집합주택을 계획한 작후였다.



그림 37. 중정 내부의 전경

그는 당시 주동 안쪽 갤러리의 도입과 동 시에 개인정원을 없애는 대신 독서실, 집회 실, 유치원, 재봉 및 편물학교와 같은 시설 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어른들은 카페, 여관, 주점 등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생략) 어린아이들은 전차라든가 그 밖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서 놀필요가 없게 되었다."16)

스빵언 집합주택에서는 끄레르뀌가 기술한 것과 같은 많은 요소를 볼 수 있지만 공유시설은 부족하였다. 주동내부는 공유공간의 성격으로 보아 낡은 전통과 새로운 이념이 혼재되어 있었다. 1층 세대는 작지만 개인정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전체에 속하는 공간의 작은 단편적 존재였다. 이미 이런 시설은 사용되고 있지 않았지만 대중탕 등이 주동 내부의 기하학적 중심에 있는 공유시설은 주변의 거주 세대로부터 이질적인 건축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폐쇄형 공간은 개인과 전체에 속하는 넓은 갤러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동 내부의 필수요소라는 강력한 영역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폐쇄성과 개방성, 대규모와 소규모, 수직성과수평성, 공유성과 개인성이 공존하는 다의적건축(multi-valent architecture)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층(hierarchies)이 유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빵언 집합주택은 매스의 형태적 취급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생기는 행위의 연상(聯想)이 모서리, 다락방(garrets) 그리고 잊어버릴 수 없는 장소성을 가져다 준 몽상夢

¹⁴⁾ M.P.de Clerq, Verbetering in de Zogenaamade Kazernewoningen, Bouwkundig Weekbald, 27(1907), pp.47-50, 65-57, 97-98.

¹⁵⁾ De Clerq, pp.66-67

¹⁶⁾ De Clerq, p.67.

¹⁷⁾ Charles Jencks, Modenre Movements in Architecture (New York, 1973)를 참조.

想의 집이라는 은유의 집합체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18 공간은 복집한 구성이지만 단순한 건축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폐쇄형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옥외공간의 커뮤니티 감각은 입구에 의해서 과장되어있지는 않았다. 또다른 요소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상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브린크만이 도입한 커뮤니티 이미지는 기념비적인 입구 및 형식적인 정원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개인성의 대화가 공유적 특성을 쉽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주동의 한쪽 모서리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그 주위의 옥외공간에 면하여 현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갤러리는 가로 측에면하여 있다. 가로에 면한 세 곳의 입면은 어둡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갤러리 형식이라고 하는 구상 그 자체에 중요성이 있지만 이것만이 스빵언 집합주택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는 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진 것으로 미학적 수법이 아닌 대립성을 나열하는 것으로 품위 있는 장소성을 형성한 것에 있다. 그러나 폐쇄형 주동의 중심에 위치한 공유정원의 경우와 달리 스빵언 집합주택 내부의 옥외공간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혼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받게 되었다.

아우드

브린크만이 계획한 스빵언 집합주택은 지자체가 주택조합과 동등한 개량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동조합 정신의 많은 것은 지자체가 주택법의 차관으로 건설할 무렵 명백히 보여준 아이덴티티와 자부심에

대한 감각을 깊이 느끼게 함으로서 병치되어 있었다. 아우드가 계획한 로테르담의 집합주택은 주택개량이 개인 클라이언트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커뮤니티 감각을 상징화하는 수단이 변하고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아우드가 로테르담 시(市)의 건축가로 임용된 후 가장 먼저 관여한 집합주택은 스빵 언 I & V지구이다(그림 26~32). 그는 이 지구의 불록내부에 학교를 설치하여 일반적인 블록의 크기보다 크고 폐쇄적인 주동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의 일부를 공유정원으로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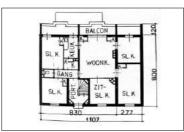


그림 38. 1층 및 2층 평면도



그림 39.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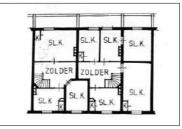


그림 40. 4층 평면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 정원과 1층에 사는 거주 자 개인정원과 사이의 경계 문제로 가끔 분 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블록 내부에서의 이와 같은 모순은 아우드가 주동 내에서 각 요소간의 관계를 미흡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아우드는 스빵언 IX지구의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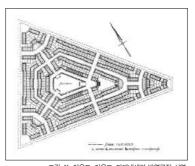




그림 42.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의 전경



그림 43. 주동사이의 전경

¹⁸⁾ J.B. Bakema, A house for 270 families in Spangen과 G. Bachelard, The Poetics of Space를 참조

주택(그림 33~35)¹⁹ 에서 새로운 공유정원의 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당시까지 비교가되지 않을 정도로 심사숙고하였고, 일관된시도를 보여 주었지만 여기에서도 1층 세대는 암스테르담의 로흐다레(Rochdale) 주택조합에서 보여주었던 사례와 유사하게 개인정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우드의 뚜스센따이건 블록(그림 36~40)은 스빵언 IX지구집합주택을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다.

아우드가 설계한 일련의 집합주택에서 폐쇄된 공유정원이 감소하는 대신 공유성 (communality)의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건축형태의 도입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다. 아우드가 계획한 마데네세(Mathenesse) 집합주택(그림 41~47)은 공유정원의 감각이잘 나타나 있다. 이 집합주택은 전통적 마을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한 형태적 발전만이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1924년에 계획된 아우드의 훅 반 홀란드 (Hoek van Holland) 집합주택에서는 새로운 건축재료가 사용되었지만 공간 그 자체는 그다지 혁신적이지 못하였다. 도로에서본 전체적 이미지는 매스와 연속적인 입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것은 개인주택 규모에서 보여주는 어떤 공간적 분절보다도우위(優位)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합주택의 뒷면에는 아우드가 투스센따이껀 집합주택에서 보여준 방법과 동일하게 공유정원과 1층 세대의 전용정원 사이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얼마 후 끼프훅 집합주택에서는 예산과 설계 프로그램 때문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외하고는 공유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 다. 끼프훅 집합주택과 아우드의 폐쇄형 블 록 형식을 갖는 집합주택의 공간적 언어의 차이는 구체적인 건축재료와 잠재적인 활동 성을 암시하는 공간적 특성의 이념과의 양 쪽에 나타나 있다. 폐쇄형 공유정원은 집합 성을 규정하고 그리고 끼프훅 집합주택보다 도 더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집합성에 대 한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끼프훅 집합주택 의 미학적 수법은 위층을 향한 침실 창문의 연속성이 집단의 명료성을 강조하는 고안이 제안되었다. 폐쇄형 블록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지 않았던 거주자 사이의 평등성이 조금 씩 시도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끼프훅 집합주택에서 볼 수 있는 공유성 본래의 정신은 모든 거주 자가 가로와 거주자 개인정원과의 평등한 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양쪽 모두 상징성은 있지만 공간을 통일하는 방 법은 각각 다른 형태로 공유개념을 실현하 고 있었다.



그림 44. 아우드-마데네세의 전체 전경



그림 46. 브린크만, 스빵언 시영 집합주택(로테르담), 1919~21



그림45 보에인하 따윈도르프 오스트싼 시영집합주택(암스테르담 북부) 1922~24 중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형식은 네덜란드에서 오래된 건축적 요소중 하나이다. 기끔 이런 요소는 호훼의 출입구에 도입되었다. 1892년 베를라헤가 지테의 이념을 소개할 당시 이것은 폐쇄형 주 동내부 의 공유정원으로 들어가는 접근방법이 도입되었고, 1905년 전후부터는 이런 방법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특히 매스의 연속성과 시각적 폐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선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점진적으로 이런 출입방식은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시키는 접근방법으로 바뀌고 있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3개의 사례는 평면계획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한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위베익 싸위드 집합주택의 공유공간은 스빵언 집합주택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폐쇄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에, 따윈도르프 오스트싼 집합주택에서 는 스빵언 집합주택과 같이 출입구를 통과한 후, 그 안쪽에 거주자용 도로가 따로 있다. 가로에서 매스의 연속성은 나중에 발생한 신즉물주의적 건축에서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메르 乏謨恙 까르스떤이 1935년부터 1938년에 걸쳐 설계한 건축물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47. 로흐헴, 따윈베익 싸위드 집합주택(할렘), 1919~22

¹⁹⁾ 집합주택 Spangen 〖는 1919년에 설계되었다. 이 집합주택은 나중에 건설된 뚜스센다이껀 집합주택과 가끔 혼동되고 있다. J.J.P.Oud, Gemeentelijke Woningbouw Spangen te Rotteradam, (Bouwkundig Weekbald, 44, No.1,1923), pp.15-20을 참조.

집합적 상징주의

폐쇄형 주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공유정원의 계획은 위생적인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지만 여기에는 건축사와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블록 내부에 공간을 계획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레크레이션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1920~30년대 초기와 비교해 보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공유정원의 설치는 장식적인 효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유정원의 설치가 집합성의 시각적 언어를 창조하기 위한 충동에서 온 것만은 아니다. 일부 건축사에 있어서 전통적 마을 이미지는 집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끌러크 뿐만아니라 아우드가 계획한 로테르담의 아우드—마데네세 (Oud—Mathenesse) 집합주택에서도 볼 수있다.²⁰⁾ 이런 전원마을에서는 전통적 마을이미지가 적용된 경우이다.

한편,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전원마을은 전통과 다른 형태의 도입 및 새로운 공법이 적용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종래와 같은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마을 이미지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두 개의 테마가 정해졌다. 하나는 건축형태(architectual form)의 인용을 통한 낭만적인 암시이고, 또 하나는 공간구성(formation of space)을 통한 낭만적 암시이다. 나중의 경우는 주로 어원과 지테의 이론에서 비롯된 중세주의가 표현되어있었다.

건축형태의 인용을 통하여 집합성을 상징 하는 것은 모든 건축적 전통을 서로 뒤얽히 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폭넓게 침투하고 있던 당시 네덜란드 문맥으로 보 아 전통이 강요되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이런 접근은 공유공간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처리에서 볼 수 있다. 베를라헤는 1892년 지테 이론의 해석에서 폐쇄형 주동내부 공유정원으로 통하는 출입구로서의 문(portal)을 다루고 있었다. 이런 접근은 점차중요한 건축요소로 정착되고 때로는 표현주의적 특징을 갖는 요소로 발전되었다.

로흐헴은 입구로서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따윈베이익 싸위드(Tuinwijk Zuid, 1919~1922) 집합주택 내부의 공유정원으로 들어가는 문 양쪽에 2개의 작은 탑을 계 획하였다. 이것은 베르언(Bergen)의 메이르베익 공원단지(Park Meerwijk)내에 여성 건축사 끄로폴로(Kropholler)가 설계한 표 현주의적 주택에서 차용한 아이디어라고 보여진다.²¹⁾

그러나 문으로서의 입구라는 이념은 끊임 없이 적용되고, 공유정원으로서의 개방적 계획방법이 적용되어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계속 존속되어 갔다. 따라서 따윈도르프 오스트쌘(Tuindorp Oostzaan) 전원마을의 거대한 문은 상징적인 중심인 쏜너 광장(Zonnerplein)으로 통하는 입구임을 가리키고 있다. 작은 규모에서는 계획방법이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변화했음에도불구하고 이런 모티브는 형태라든가 공간을통하여 집합성의 감각을 유지시켜야만 한다는 의도처럼 보였다.

신즉물주의 건축사는 사회적 평등성을 상 징하기 위해서 반복적 적용에 대한 베를라 헤의 신념뿐만 아니라 비록 그 동기가 상징 주의 건축사 만큼은 명백하지 않지만 입구 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전통성도 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계단실 처리에서 특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규모 정도로 계획된 베르흐폴더(Bergpolder)집합주택와 부룩의 부루센란(Vroesenlaan) 집합주택의 계단실이 유리로 덮여 있는 것에서 상징적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계단실을 강조하는 경향은 소규모 집합주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접근 은 로흐헴이 계획한 집합주택의 입구를 나 타내기 위한 탑의 표현이 상징성이 떨어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건 축언어가 변화했을 뿐이다. 圖

²⁰⁾ Helen Searing, Eigen Haard Workers Housing in the Amsterdam School, (1971) No.2, Architectura, p.161을 참조

²¹⁾ Dennis Sharp, Park Meerwijk, Perspecta 13 (New Haven, 1971), pp. 176-188(이것과 그 Hall 표현주의 주택을 개관해 보는 것이 좋다)

\supset Ы Ш 건축마당 T

소 식

news

 Ω

협회소식 kira news

제14회 이사회

2004년도 제14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7일 개최 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관 신축공사 입찰공고 (안) 승인의 건. 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 및 차입금 상환기한 연장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에 관한 건, 선거관 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건축사법령 개정 건의(안) 에 관한 건, 소규모 건축 민원해소방안에 관한 건,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회관 신축공사 입찰공고(안) 승인 의 건
- 제1호의안의 안건과 제목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하여 의결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으 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는 사항을 입찰기준과 함께 공고(안)에 명시 하기로 함.
 - · 안건명 : 회관 신축공사 입찰기준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 본 협회 회관 신축공사 입찰기준 을 다음과 같이 승인키로 의결한다.
 - 가.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한 경쟁입찰을 실시함.
 - 나. 낙찰방식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다. 예정가격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 (85억+10%)내로 함.
 - 기타 입찰공고(안)의 내용은 회관건립 위원회에 위임키로 함.
- •제2호의안: 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 및 차입 금 상환기한 연장 승인의 건
- 일반회계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지금 일시차 입 및 업무실적관리회계 차입금 상환기한 연 장을 원안대로 승인함.
 - · 재정운영 지금 일시차입

- 차입재원 : 일반회계 임의적립금

- 차입금액: 320,000,000원

· 업무실적관리회계 차입금 상환기한 연장

- 당초상환기한: 2004, 12, 31

- 연장상환기한 : 2007, 12, 31(년차 분할상

•제3호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2004년도 기금관리운용회계 예비비 사용을 원안대로 승인함.

· 예비비 사용 : 폐업위로금 · 승 인 금 액 : 44,000,000원

• 제4호의안 :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 에 관한 건

-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중 본협회 분담금 3,000만원을 원안대로 집행키로 함.
- 제5호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위원장은 고문(이의구 또는 우남용)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 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령 개정 건의(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건의키로 함

• 제2호 : 소규모 건축 민원해소방안에 관한 건

- 문안을 일부 수정하여 규제개혁기획단 및 건 설산업연구원에 제출하고, 협회의 의견과 대 안 등은 규제개혁기획단에 지속적으로 제시 하기로 함.
- •제3호 :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관한 건
- 소송대리인을 선임키로 하되 선임에 관한 사 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2004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송년회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홀에서 건축인 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자 공동 송년모임을 가 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송수구 회장대행을 비롯한 윤석우 한국건축가협회회장과 이리형 대 한건축학회회장 그리고 오시덕, 조정식 국회의 원과 송용찬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박석안 서울 시 주택국장, 이재옥 한국건설교통평가원장 등 건축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02-581-5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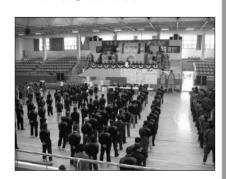


대구건축사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대구광역시 건축사회(회장 도무찬)에서는 지 난 2004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대구시민체 육관 시민운동장 내에서 '제2회 대구건축사한마 음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회원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 코자 하는데 역점을 둔 행사로서 내빈을 비롯한 4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 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한 층 더 돈독히 하는 자리였다.

문의: 대구광역시건축사회 053-753-8980



<u>경북건축사회, '동료건축사돕기운동'</u> <u>펼쳐</u>

경상북도 건축사회(회장 권오웅)는 어려운 경 제 여건 속에서 뇌졸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료 건축사 돕기 운동을 펼쳐 1천여만원의 성 금을 모아 가족에게 전달해 연말에 훈훈한 미담 이 되고 있다.

경북건축사회는 김상준회원(경산지역)이 지난해 5월 뇌졸중으로 입원해 현재까지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상태로 줄곧 진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도내 320여명의 회원은 어려운 건축경기에도 불구하고 동료 김상준 회원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

문의: 경상북도 건축사회 053-744-7800



경남건축사회, '경남건축대전' 및 '도민 건축대학 건축물 답사', '구마모토현과 국제교류' 가져

경상남도 건축사회에서는 제14회 경남건축대 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175개의 출품작 중에서 'JINJU HISTORY THEME PARK'의 정다영(경상대학교 4년)씨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이설희(경상대학교 4년)씨의 'JINJU BULLS FIGHTING THEME PARK'와 'Where Are We Going?'의 양종윤(창원대학교 4년)씨가 수상하였다.

우수상에는 'Urban Acupuncture'의 심남당 (경남대학교 4년)씨와 'Cultural Urban Review'의 이병재(경남대학교 4년)씨가 수상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사업 시책에 부응하거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주요사업 내용을 테마로 한 건축계획안에 주어진 특별상(경상남도도지사상)을 'Hidden Street'의 곽선미(경남대학교 4년)씨가 수상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특선 28점, 입선 59점 등 총 94점이 수상작에 선정되었다.

이번 제14회 경남건축대전의 심사위원장인 이강훈 교수(경남대학교)는 "대상작품은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인 처리가 돋보이며,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최우수, 우수 작품의 경우도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잘 조화되는 외관과 용도를 선정하여 우수하게 디자인하였다."고 평했다.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11월 5일 경상남도청 도민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작품전시는 11월 5일~8일 경상남도청 도민홀과 11월 11일~14일 김해시 국립김해박물관, 11월 15일~18일까지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각각 4일간 개최되었다.

또한 경남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경남건축사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도민건축대학-건축물 2차 답사'를 일반인 및학생, 도내건축사, 공무원 등 약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

지난 6월 1차 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역사속의 건축기행이란 부제로써 이호열 교수(밀양대학교 건축학부)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답사는 우수한 건축물을 이해하고자하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축답사를 통해건축에 대한 기본상식과 정보제공, 건축관련 교양 증진이 주 목적이다.

주요일정은 밀양 표충사, 밀양 영남루 일대, 밀앙향교, 밀양 교동 손씨 고가, 예림서원 등 동 부 경남일대의 고건축물을 경유하는 코스로 진 행되었다.

아울러 경남건축사회에서는 국제교류관련 사

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3 박 4일간 일본 구마모토현(아트폴리스)을 방문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9일 경남건축사회와 구마모토현 건축사회와의 국제교류협력 체결에 따른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경남건축사 회 임원 및 회원과 도청 직원 등 총 36명이 참



경남건축대전 대상작 'Jinju History Theme Park'



도민건축대학 건축물 2차 답사



구마모토현 건축사회와 국제교류 협력체결 답방

가하였다. 특히 이번 답방은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기간에 맞추어 한 · 일 건축사단체 간 상호우의 증진 및 건축물 견학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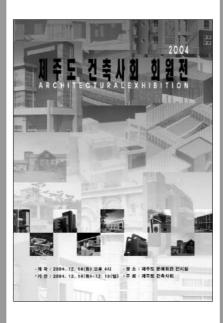
문의: 경상남도 건축사회 055-246-4530

2004 제주건축사회 회원전

제주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제주건축 사회 회원전을 개최했다.

변모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제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건축사회와 회 원들의 축제였던 이번 행사는 강문종 건축사(건 축사사무소 연건축)의 '성산포에 가면···'이란 작 품을 비롯해 총 47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호응이 있었다.

문의: 제주건축사회 064-721-3248



건축계소식_ archi-net

제14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제14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Travelling Fellowship)' 가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 주최로 개최된다.

재미 건축사 김태수에 의하여 1991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사에게 교육과 해외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해외건축여행장학제는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수 있다. 자격요건은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이며,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한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이 수여된다. 접수마감은 2005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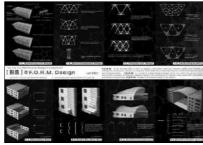
접수 및 문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빌딩 3층1호 (주)맥스트랫 內 「김태수 해외 건축여행 장학제」 담당자 앞 / 02-569-1536 / www.tskaf.org

HYU-NUS 청계천 국제공동 프로젝트 전시회

한양대학교(안산) 건축학부(HYU)는 싱가폴 국 립대학(NUS) 건축과와 Joint Lecture Program 을 운영, 현재 HYU학생 2, 3학년 20명과 싱가 폴에서 NUS학생 3학년 9명이 한양대 건축학부 에서 수강하고 있다. 이번 설계스튜디오에서는 작년에 이어 청계천을 주제(세운상가지역 도시 재개발)로 작업을 진행 해 그 결실을 지난 12월 6(월)부터 8일(수)까지 광화문 서울 파이낸스센 터 지하 3층 갤러리코리아에서 전시했다.



<u>제3회 이 상 막구조 공모전 시상식 및</u> <u>강연회 개최</u>



최우수상 '[形爲]設計 @ F.O.R.M. Design'

이상건축이 주관하고 한국공간쉘구조학회가 공동주최 한 '국제 막구조 디자인 공모전 및 학 술강연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 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 심사결과 최우수 상에는 常强(중국/淸華大學建築)計研究員)과 高 岩(중국/영국 AA스쿨)의 '[形爲]設計 @ F.O.R.M. Design'이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우 수상에 2팀 특선 2팀, 입선 3팀이 선정되었다.

문의: 이상건축 02-325-9872

제2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상작 'Scenario of The Fragmented Site'

한국건축가협회는 '제23회 대한민국 건축대 전'의 일반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지속성(持續性)을 주제로 공모한 이번 행사에는 총 2,057명이 원서를 접수, 심사한 결과 대상 1점과 우수상 5점, 특선 6점, 입선 117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남지원(홍익대학교)씨의 'Scenario of The Fragmented Site'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김경현(부경대학교)씨의 'An active void'와 김호중(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졸)씨의 'Elimination for Morphological Sustainability', 윤인근(호남대학교)씨의 'loonography tectonic', 박명재(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씨의 'Alt+Interaction', 염하나(홍익대학교)씨의 'Path of Complexity'가 수상하였다.

또 제26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에는 장석웅씨의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조남호·박종수·양원모씨의 '교원비전센터', 변 용·장응재·권태식씨의 '대구학생문화센터', 임재용씨의 '비대〉 코스모치과', 김개천씨의 '백담사 만해마을', 박영건·김준성씨의 '아뜨레온', 이민·손 진씨의 '안양천사유치원'이 선정되었다.

일반 공모전 수장작 및 초대작가 전시작품, 제26회 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제9회 건축사진전 수상작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u>제27회 한국건축가협회상 후보작 작품</u> <u>접수</u>

1979년에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Best 7)은 해당 연도에 완성된 건축사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작품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여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제27회 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대상: 2003년 12월 1일~2004년 11월 30일 사이에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작품
- 제출자료 : 작품카드양식 1부(홈페이지 다 운), 작품자료 1부(클리어파일로 제출, 사이 즈 제한 없음), 작품 CD제출(작품개요, 계 획도면, 작품 사진 4~5매 등), 준공검사필 증 사본 1부
- 접수기간: 2004년 12월 30일(목)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 총회관 501호 한국건축가협회
- 문 의: 02-744-8050

2004한국목조건축대전 심사 결과 발표



대상작 '산림생물 표본관'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과 산림청이 공동 주 최한 2004한국목조건축대전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에는 '산림생물 표본관 (설계: 김상식/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김홍식/명 지대학교)'이 선정, 수상하였고, 본상에는 민마루 II-205스튜디오(설계: 최삼영/가외종합건축 사사무소), 금강휴게소(설계: 인의식·장명희/종 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물이당(설계: 이윤하 /건축사사무소 노돗돌) 3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상 1작품과 입선 8작품이 선정됐다. 계획건축물부문 금상에는 'Eco-Metastasis(조 선대학교 박홍수, 송승진)'가 수상하였으며, 은 상 2작품과 동상 3작품이 선정됐다.

오토데스크코리아, 제1회 오토데스크 인벤터 디자인 컨테스트 시상식 개최

설계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 회사인 오 토데스크코리아(대표 남기환)는 지난 11월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1회 오토데스크 인 벤터 디자인 컨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하고, 일반 부와 학생부 2개 분야에서 총 12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우진기 계 김갑혁 부장이 일반부 금상을, 서울산업대학교 조준희씨가 학생부 금상을 차지해 각각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Go Further at Autodesk Inventor Design Contest 2004'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컨테스트는 지난 4월부터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응모를 받았고, 1차와 2차 심사를 통해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 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번 컨테스트의 수상작은 오토데스크코리아 홈페이지(www.autodesk. co.kr)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02-527-8717

민마루주택(최삼영), 원당성당(백문기) 2003~2004ARCASIA건축상 수상

지난 2004년 11월 30일 마카오 Taipa Houses Museum에서는 2003~2004 ARCASIA 건축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단독주택부문(Single-Family Residential)』부문인 『A-1』부문에 '민마루주택'을 출품한 가와건축(최삼영)이 금상을 수

상하였고, 『사회/공공시설부문(Social/Institutional Buildings)』부문인 『B-3』부문에 '원당성당'을 출품한 정림건축(백문기)이 입선을 수상하였다.

아카시아 건축상은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는 데,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며, 이 출품작들 은 각 국가별 심사를 통하여 제출된 작품들이다.





<u>프랑스 샹띠이 워크숍 및 유럽 건축</u> <u>여행</u>

[PARA-ZONE]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건축 워크숍과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프랑스 파리시에 인접한 샹 띠이에서 진행되며, 여행지는 프랑스 및 스페인, 포르투칼이다. 총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27일 시작해서 2005년 1 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그중 절반은 여행 프로 그램으로, 절반은 현지에서의 워크숍으로 진행 된다. 워크숍의 첫 주제는 [PARA-TERRA]이다.

문의: 02-515-7595(PARA-ZONE 임시 사 무국) 사무국장 홍윤식

웹싸이트: www.para-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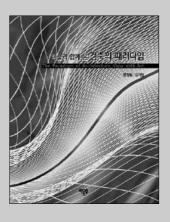
신간

미술과 함께 본 건축의 패러다임

이 책은 "미술을 통해 건축과 관련되는 각 시대의 화제를 바탕으로 건축의 한 비전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필자의 생각에서 집필되었다.

고대와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의 문화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건축과 미술이 관련되어 나타나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각 시대마다 새로움을 접하는 것으로서 '미술이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인가' 또는 '미술과 건축이 어떠한 공통적 관계로 접근가능한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술의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난 건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필자는 건축의 미래비전은 종교나 철학 보다는 실현 가능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 간에게 도래하게 될 미래의 시대상을 드러내어 미술의 변화와 건축 비전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



문정필·김기환 지음/176쪽/13,000원/도서출판사 비온후 발행 051-464-4115

A RCHITE PLAZA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광진구 화양동복합청사 9 8 판교지구공동주택 1 0 4

대구 MBC아트센터 110

광진구 화양동복합청사

Guwangingu Hwayangdong Office

당선작 / 성기문 (충주대학교 건축학과) + 차유성 (MEPU도시풍경디자인건축)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0-67외 7필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33m²

건축면적 416,24m²

연면적 2,487.62m²

건 폐 율 49.97%

용 적 률 229.9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외부마감 무기질세라믹패널, T24복층유리

설계팀 손한계, 이현욱

느티나무와 청사

경사지의 저층주택군으로 이루어진 화양동 일 대는 조금은 혼잡하고 외부공간의 여유가 없는 동네이다. 청사가 들어설 대지 일대는 문화재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어 역사적 정취가 묻어나 는 곳이며, 예전에 안골이라 하여 이 지역이 옛 마을의 중심이었다.

언덕위의 느티나무는 마을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며, 느티나무로 인해 마을의 구심점이 생기고 경관을 이룬다.

느티나무-공원-청사의 중정-투명한 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간 흐름은 느티나무와의 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외부를 품는 공간

느티나무 공원을 향해 열려있는 미당은 청사의 중심공간이 된다. 노인정, 파출소, 동사무소, 주 민자치시설 등의 다양한 공간을 수평적, 수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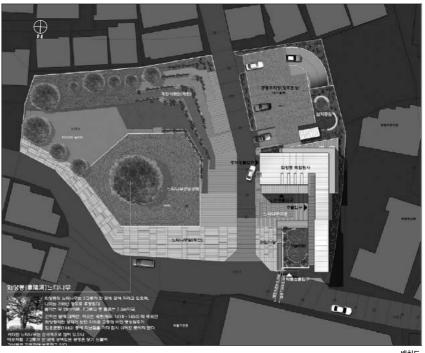


으로 매개하며, 궁극적으로 공원과 시각적, 공간 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투명한 벽

마당을 만들어내는 투명한 벽은 주변경관을 적 극적으로 흡수 또는 투영하기도하고, 반사하기 도하는 풍경을 담는 스크린으로 마당공간의 확 장과 변화를 유도하며,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모 호하게 하는 건축적 장치가 된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광진구 화양동복합청시

Guwangingu Hwayangdong Office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에이(유병오)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0-67외 7필지

대지면적 675,70m²

건축면적 398,70m²

연 면 적 1,421.34m²

건 폐 율 59.01%

용 적 률 145.63%

구 조 R.C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8대

외부마감 알미늄 복합패널+적삼목 싸이딩+복층유리

설계팀 정석영, 이창익

본 현상설계 계획대지는 북측의 10m도로, 동측의 6m도로와 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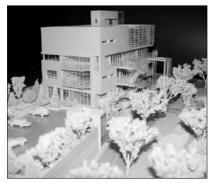
동측의 서울시 기념물 2호인 700년 수령의 느 티나무와 공원은 개방된 외부 공간과 충분한 녹 지를 공유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제공한다.

근래 동청사는 행정기능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주민 자치 센터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며, 문화, 정보, 복지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되 는 청사를 건립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더불어 동청사를 느티나무 공원과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이번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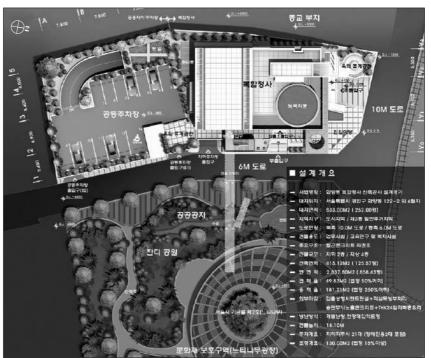
청사로의 진입부에 만남의 장을 제공하였고, 수 직 동선과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원활한 수평 동선을 확보하였다. 현대적 재료와 자연친화적 재료의 조화로운 사용에 의한 친근감을 부여했으며,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공원과의 공간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막힘과 트임에 의한 조화로운 매스 구성은 동측면의 녹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연채광, 개방감의 극대화 및 공원과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동측에 충분한 트임 공간을 두었다.

폐쇄된 전면에 유리 매스의 계단실과 수평의 그릴을 통해 투영되는 원통형의 매스는 차후 느 티나무 공원과 더불어 강력한 오브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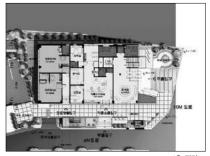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광진구 화양동복합청시

Guwangingu Hwayangdong Office

가작 / 단아건축사사무소(조민석)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0-67외 7필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33m²

건축면적 413,05m²

연면적 2,755,08m²

건 폐 율 49.59%

용 적 률 162,19%

주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28대

외부마감 알루미늄하니컴패널, 고밀도합성목재

화양정의 현대적 해석

본 대지의 동측에 인접한 화양정 느티나무공원은 세종 14년에 지은 화양정이 있던 곳이며, 화양동 이라는 동 이름도 이 정자에서 유래한다.

화양정은 조선시대 살곶이 목장의 중심부 언덕에 세워져 왕이 이곳에 나와 마소가 무리지어 다니는 광경을 보도록 지어진 정자이다.

우리는 이 화양정의 흔적을 찾아 현대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이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한가할 제 말이 가는대로 홍진 밖에 나오니 저 멀리 들판에 풍경이 새롭네. 하늘에 닿은 먼 산은 푸른 것이 그린 눈썹 같고, 비 온 뒤 방초는 푸른 요를 깔았네. 꾀꼬리 오르락내리락 아침 햇볕에 울고, 소 · 말들 부산하게 사방으로 흩어지네. 호탕한 봄바람에 3월도 늦은데, 술 가지고 나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네." - 梁誠之(1414-1482)의 화양정

도시맥락의 수용

화양동 복합청시는 공공 건축물이므로 미을의 랜 드마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진입도로에서 건물로의 접근시 인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각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단순 명쾌한 디자인의 매스를 계획하고, 그 매스 하부를 피로티로 열어주어 공원과 함께 마을의넓은 보이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주차계획

화양동 복합청사 부지와 인접한 남측의 대지는 향후 공공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이 공공주차장과 화양동 복합청사 주차장의 동선상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각각의 주차장이 통합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주차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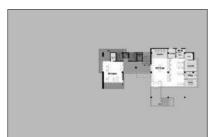
입출구는 지형차를 이용하여 입출구를 분리하고 일방향의 주차로를 계획하여 차량의 소통이 원활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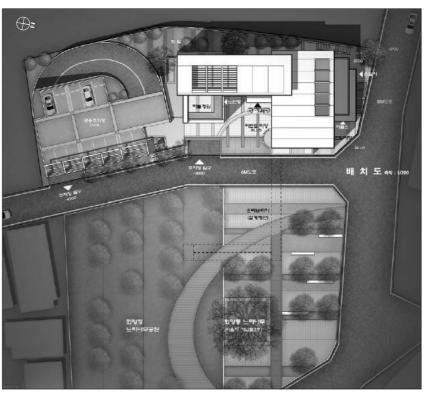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동측입면도

판교지구공동주택

Multi-Family Housing, Pangyo District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김종국)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7층~25층(15,408세대)

주차대수 17,035대

외부마감 외부용 수성페인트

설계팀 고성호, 류권현, 송현석, 이병석, 김형근,

신현호, 이기원, 송영우, 장명용, 이제헌,

김용하, 정명춘, 신중호, 강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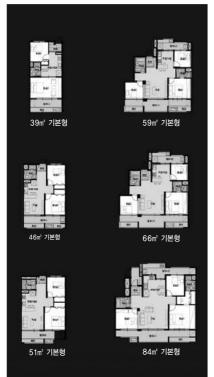
		17-2BL	18-1BL	18-2BL	24-1BL	25-1BL
대지	면 적	32,562,0m²	50,553.0m²	60,549,0m²	78,320,0m²	71,903,0m²
건 축	· 면 적	7,071.1m²	8,475,9m²	9,539.6m²	10,557.7m²	14,101,8m²
연	면 적	66,520.7m²	11,022,7m²	123,116,3m²	167,027,2m²	152,086,0m²
건	폐 율	21,7%	16,8%	15.8%	13.5%	19.6%
용	적 률	159.4%	169,9%	159.9%	165.9%	165.4%
도	로 율	26.1%	23,9%	26,7%	27.1%	27.4%
녹	지 율	31,2%	33,2%	32,5%	34.4%	32,6%
세	대 수					
39m²(16평형)	기본타입	264세대		316세대	534세대	504세대
	Ta타입			96세대	102세대	81세대
	Tb타입			94세대	108세대	80세대
46m²(19평형)	기본타입			497세대	130세대	426세대
	Ta타입	198세대			240세대	120세대
	Tb타입	96세대			240세대	59세대
51㎡(21평형)	기본타입	230세대		111세대	352세대	276세대
	Ta타입			236세대	176세대	176세대
	Tb타입			115세대	88세대	88세대
59m²(24평형)	기본타입		264세대			
	Ta타입		56세대			
	Tb타입		26세대			
66m²(27평형)			437세대			
84m²(33평형)			175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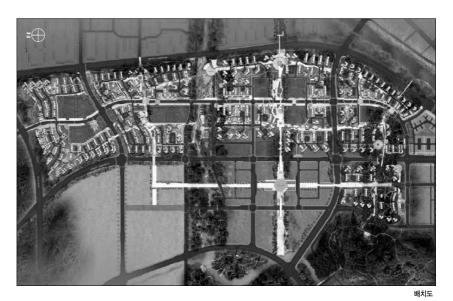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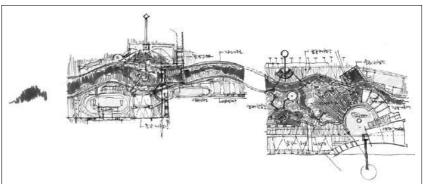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판교지구공동주택

Multi-Family Housing, Pangyo District

우수작 / (주)DA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김현호 · 조원준)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7층~25층(15,408세대)

주차대수 17,024대

외부마감 외부용 수성페인트

설계 팀 김병기, 하지영, 박재우, 한민종, 지금선, 유원재, 임흥선, 김미현, 이돈업, 정세영, 우근영, 김남규, 김범식, 이치만, 김성태, 석주화, 임형식, 고성호, 변혜선, 안정호

		17-2BL	18-1BL	18-2BL	24-1BL	25-1BL
대 ㅈ	면 적	32,562,0m²	50,553,0m²	60,549.0m²	78,320,0m²	71,903,0m²
건 축	· 면 적	5,122,76m²	10,247.73m²	9,907.23m²	8,437,23m²	12,102,9m²
연	면 적	68,036,74m²	117,541,87m²	127,989,57m²	167,843.55m²	160,831,48m²
건	폐 율	15,73%	20,27%	16,36%	10,77%	16,83%
용	적 률	159,93%	169,96%	159,75%	165,94%	165,97%
도	로 율	25,24%	17.52%	24.42%	19,31%	21,03%
녹	지 율	59.03%	62,21%	59,22%	69.92%	62,14%
세	대 수					
39m²(16평형)	기본타입	262세대		525세대	745세대	669세대
46m²(19평형)	기본타입	290세대		492세대	619세대	585세대
51m²(21평형)	기본타입	236세대		448세대	606세대	556세대
59㎡(24평형)	기본타입		346세대			
66m²(27평형)	기본타입		438세대			
84m²(33평형)	기본타입		174세대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판교지구공동주택 Multi-Family Housing, Pangyo District

가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조 철근콘크리트조

모 지상 7층~25층(15,408세대)

주차대수 17,035대

외부마감 외부용 수성페인트

설계팀 권기제, 정재호, 김경순, 홍을경, 성미향,

변혜선, 최병기, 김정민, 강정호, 신혜진, 김문환, 윤서연, 정진철, 이정민

		17-2BL	18-1BL	18-2BL	24-1BL	25-1BL
대 지	면 적	32,562,0m²	50,553.0m²	60,549.0m²	78,320.0m²	71,903.0m²
건 축	면 적	5,022,5m²	5,133,2m²	6,759.2m²	7,558.1m²	8,688.5m²
연	면 적	66,946.7m²	109,330.6m²	123,798,2m²	165,921,5m²	152,779.3m²
건	폐 율	15.4%	10,2%	11,2%	9.7%	12.1%
용	적 률	159.9%	169.9%	159.9%	165,9%	165.9%
도	로 율	31,8%	23,3%	31.6%	32,5%	32,6%
녹	지 율	34,7%	34,5%	34.8%	34,2%	34.8%
세	대 수					
39㎡(16평형)	기본타입	282세대		552세대	764세대	708세대
46㎡(19평형)	기본타입	289세대		501세대	560세대	600세대
51㎡(21평형)	기본타입	217세대		412세대	646세대	502세대
59m²(24평형)	기본타입		372세대			
66㎡(27평형)	기본타입		430세대			
84m²(33평형)	기본타입		156세대			

















단위세대 평면도

대구문화방송(주) 아트센터

Dae Gu MBC Art Center

당선작 / 이창하디자인(이창하, 채상우) + 아키랩건축사사무소(최종천, 권태홍)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용 도 영화관 및 다목적극장 8관(1,872석), 갤러리, 홍보관, 근생 등

대지면적 18,859.8m²

연 면 적 29,416,76m²

규 모 지하 5층, 지상 3층

주차대수 479대

외부마감 석재, 트레스파, 메탈, T24복층유리

설계팀 이창하디자인: 김종구, 전진환, 강인성,

이은숙, 임은경

아키랩: 이옥화, 윤성일, 유연주, 한기정

대구는 지난 40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영남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선도 산업의 부재와 이로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는 현실이다. 참단 산업유치도 대안적 모색으로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산업의 육성과 그 인프라확충은 지역 공동체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성과 산업화 중추세력으로의 경험은 이를 기능하게해주는 큰 배경이 된다. 문화적 모색은 일상에 감춰져있는 대구성(大時性)의 재발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있는 지역문화산업이 견인되고 새로운 문화 담존생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범어泛漁

대구MBC가 위치한 범어동(泛魚同)이라는 지명 은 원래 물고기 한 마리가 냇물에 떠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질서에 대한 오랜 바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모 습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충동하고 과장하기보다 는 자신 속에 내재된 정체성을 담담하게 표현하 고자하는 무의식속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구 문화방송 아트센터에서는 이러한 맥락적 정서를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지를 직교하는 시간 축을 중심으로 물고기한마리가 시냇물을 유 영하듯이 열린 공간의 흐름을 통해 작은 우주에 서 확장된 우주에 이르는 일련의 시공간적 경험 을 하게 된다. 주진입구의 파빌리온(pavilion M) 은 전통적 우주인식의 시간적 허구와 이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파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어서 시간축을 따라 전개되는 공간의 드러내짐 과 감추어짐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바 닥의 오픈 스튜디오에 다다르고, 지하의 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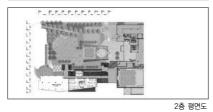


극장은 물론, 지상의 갤러리에도 쉽게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연결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업공간들은 우리의 문화적 체험을 더욱 여유롭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남측입면!

대구문화방송(주) 아트센터

Dae Gu MBC Art Center

우수작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중

심지미관지구 등

대지면적 18,859.8㎡ 건축면적 7.392.87㎡

연면적 27,462,35m²

L L 7 21,402,00

건 폐 율 39.20% 용 적 률 145.61%

규 모 지하 5층, 지상 1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부마감 THK24 투명복층유리, THK3 알미늄쉬트,

THK30 라임스톤

디자인총괄 박종남

설계팀 경민호, 김종호, 김정란, 강창수, 김민기, 이원호, 박성호, 김동욱, 이명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MBC 문화방송 전면 공원부지에 8개의 영화관람 상영관과 더불어 판매 및 전시시설을 포함한 멀티플렉스 아트센터를 지하 5개 층에서 지상 일부 2층 규모로 계획한다. 기존공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변 가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면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조성의 의미는 대구시민들에게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활동 및 방송관련 야외 무대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문화 외부공간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공모지침서 내 설계 기본방향에 대한 지 침 전문내용이다.

대구MBC는 지난 41년간 대구MBC를 성원해준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멀티플 랙스를 주축으로 한 종합문화휴식공간인 대구 MBC아트센터(가칭)를 건립하고자 한다. 대구MBC아트센터는 대구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인 MBC네거리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지역 건축문화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창조적미를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즐거움이 가득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MBC는 내실 있는 유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CONCEPT

기존 시설의 활용과 더불어 영화관람, 판매, 식음, 갤러리, 홍보관 및 이에 부수하는 주차와 설비시설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을 기반으로 전체의 틀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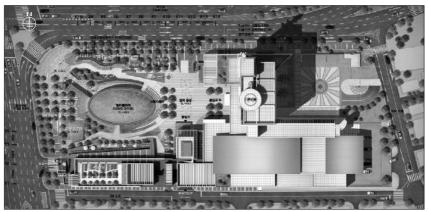
수직으로 연결되는 기능의 연결 고리들을 수평으로 넓게 퍼져있는 지상의 OPEN SPACE와의 유



기적이고 긴밀한 동선의 연계를 이루기 위한 매 개체를 제안한다. 이는 주변 대로변에서 다양하 게 들어오는 동선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신속하 게 지상 및 지하 시설로 유입하는 하나의 거대한 동선교환장치로 타원의 멀티프라자가 설정된다. 지하 공간의 기능 해석으로부터 발생된 타원형 의 플랫 판은 전체 부지 중앙에 위치하여 지하시 설로의 흐름을 흡수하며, 전체의 다양하고 복잡 한 시설군들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상징적인 구심점이 되어준다. 이 타원형의 멀티플라자는 다양한 해프닝과 이벤트를 유발시켜 대구 시민 들에게 도심 속의 특별한 장소와 풍경을 제공함 과 동시에 대구 MBC의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를 줄 것이다. 또한 바닥분수와 조명장치가 설치되 어 있어 하늘의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연출로 주 간과 이간의 색다른 시각적 유희를 제공한다.

다양한 옥외 행위를 유도하는 미디어 테마의 외 부공간과 이를 마주보는 투명한 볼륨의 지상 전 시공간과의 유기적인 만남 속에 대구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 어본다. 전체 대지 약 5,700평에서 기존사옥이 약 3400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300 평을 활용한다. 영화관 8개관 중 2개관은 공연 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무대와 부수시설이 설치 되며 지하1층의 시네마홀, 지하 2층의 영사실 층, 지하 3층에 상영관 진입 층, 지하 4층에 퇴 장 층으로 구성 된다. 공원 내에는 공개방송이 가능한 다목적 야외공연장을 조성, 휴식은 물론 낮과 밤 공연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공원구성의 테마는 미디어 테마 파크로서 가로 뉴스광장, 드라마 가든, 픽셀가든으로 미디 어 관련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공원 중심을 향해 두 개의 대로변과 더불어 남측의 8m 소방도로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틈새를 구성하고 전시 및 식음 관련 기능의 분리와 프로그램 별 공간의 실내조건을 파악하여 매스를 분해해 나간다. 분리된 매스들은 또다시코어와 수평 데크의 이음 요소들에 의해 적당한간격과 연결을 유지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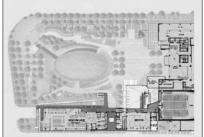




북측면도



1층평면의



2층평면되

\triangleright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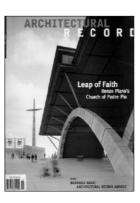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erd **Demus** 신건축 a+u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1월

최근 완공 된 주목할 만 한 건축작품 로 는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이 탈 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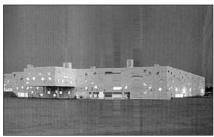


Pietrelcina Padre Pio 성당과 Kazuhiro Kojima + Kazuko Akamatsu/C+A, Arata Isozaki & i-NET의 카타르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를 소개하고 있다. 매월 건물타입별로 최근 경향을 살펴 보는 코너에서는 집합주택을 주제로 근작들 을 살펴보았다.

■ 근작소개

Kazuhire Kejima + Kazuke Akamatsu /C+A, Arata Isezaki & i-NET의 카타르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

다수의 일본 건축가들이 참여한 카타르의 이 대학 건물은 이중 입면조직을 취하고 있다. 유리 섬유로 강화된 콘크리트 패널로 구성된 바깥 입면 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밤에는 기하학적 패턴을 따라 후면 조명이 들어옴으로써 인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내부는 고정된 강의실과 사무실, 유동적인 교육



카타르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

공간과 중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와 철재로 된 스크린과 반사면들이 내부로 유입된 빛을 공간 전체에 전파시킨다.

그 외에 SMWM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Ferry Building,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이탈리아 Pietrelcina Padre Pio 성당을 소개하 고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집합주택

도시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지만 양질의 건축을 찾아보기 힘든 분야가 바로 아파트 이기도 하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되고 있 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다세대 주택은 여전히 '보 통 건물'의 대명사가 된 박스형 건축인 경우가 대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발업자들은 독창 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며 도시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기존의 도시 조직 속에서 독특한 주거 환경을 구축한 집합주택 의 예로 Archi-tectonics의 미국 뉴욕 Greenwich가 497번지. Public의 미국 캘리포니 아 Laurel 아파트, Engelen Moore의 오스트레 일리아 Barcom Avenue 138, Julie Snow Architects의 미국 미니아폴리스 Humboldt + Annex가 소개되어 있다.



이탈리아 Pietrelcina Padre Pio 성당

■ 조명

최신 조명 설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Suzanne Powadiuk Design의 미국 워싱턴 국립자연사박물관, Cosentini Lighting Design의 미국 뉴욕 Columbus Circle Equinox 헬스클럽, Virgile and Stone Associates의 독일 베를린 Radisson SAS Hotel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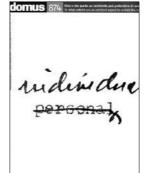
Bruce Mau의 Massive Change 전시회 소식, Lebbeus Woods의 전시회, 제9회 베니 스 비엔날레 미국 파빌리온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상세 소개, 제1회 베이징 건축 비엔날레 단신. 98세가 된 Philip Johnson의 건축계 은 퇴 소식, Yoshio Taniguchi가 설계한 뉴욕현 대미술관 증축계획의 완공 소식, 얼마전 세상을 뜬 Enric Miralles의 영국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 완공 소식, 뉴욕의 세계무역회관 Freedom Tower의 설계비를 놓고 벌어진 개 발업자 Larry Silverstein과 마스터플랜 건축사 Daniel Libeskind의 법적 분쟁 합의 소식, Building the Cold War: Hilton International Hotels and Modern Architecture 등 신간 소개, 제8회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상 수상작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다.

Domus

2004년 10월

■근작소개

T●y● It● 의 마츠모토 공ゼ극장 도시의 구 시가지 중심 에 위치하며, 마츠모토 역



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은 주거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서측으로는 도시의 주 도로가 지나가며 남측으로는 신사가 인접해 있 다. 길쭉한 대지의 형태는 건축사로 하여금 일 반적인 극장의 레이아웃을 다시 구성하게끔 만 들었다. 그 결과로 도시의 랜드스케이프를 가늘 게 잘라내는 배아와 같은 형태가 생성되었다. 이토는 이렇듯 분명한 사이트적 상황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평면적 구성을 풀어내었다. 외 벽의 곡면은 극장의 말굽 형태의 객석 배치를 따라 형성되었다. 기본적인 평면의 조직은 진입 계단과 포이어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 은 마치 바로크적인 공간 계획처럼 '진입의 드 라마'를 강조한다. 극장을 감싸고 연결하는 자 궁과 같은 공간은 'tabula rasa'의 평평한 판 으로 이루어졌다. 이토는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평평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길고 부드러운 곡선의 계단을 지나면 방문객은 'Theatre

어오는 이 공간에는 거품과 같이 생긴 의자가 비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Park'에 이르게 된다. 자연채광이 은은하게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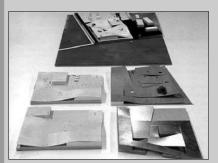
PLOT의 코펜하겐 Maritime Youth House

코펜하겐의 새로운 Maritime Youth House 는 Bjarke Ingels와 Julien de Smedt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이 건물은 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젊은 덴마크 건축그룹 PLOT의 재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PLOT은 2001년 1월 코펜하겐에서 시작되었다. 14명의 건축가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 프리랜스 건축사들이 더 참여 하기도 한다. 지역내의 건축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에서 건축사들이 프로젝트에 따라 참여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주제에 따라 팀을 이룬다. 건축의 전통적 범주를 넘어서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습관적인 건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형태에 있어서는 덴마크 영화계에서 선언하였던 도그마와 같이 매우 단순하다. 특성의 복합성과 깊이를 강도 깊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Maritime Youth House는 코펜하겐 항구에 위치한다. 이 곳은 금속에 대한 토양의 오염이 심한 곳이었으며, 공해를 피하기 위해 보트를 보관할 창고와 그와 동시에 비행 청소년의 방과후 시간을 보낼 시립 센터를 필요로 했다. PLOT은 두 프로그램을 담을 건물을 위해 목재로 땅을 덮는 작업을 하였다. 목재 데크는 위로 솟았다 가라앉아서 자연스럽게 보트와 아이들의 쉘터를 형성한다. 각각 서로 다른 주제로 작업하는 방식은 열린 디자인을 가능케 한다. 이



마츠모토 공연극징



코펜하겐 Maritime Youth House

러한 긴장은 PLOT의 디자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모순되는 요구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지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만들어낸다. 상상, 참조, 일대일 대응 등은 그들의 작업에서 금기시된다. OMA에서 이전에 작업했듯이 컴퓨터를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 시각화하고 재조합한다. MVRDV, Periperique와 같은 많은 사무실들도 데이터와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고들을 실험하는 모델을 이용하는 다윈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미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전개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structure)를 가진 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정의한다.

■ 기타

1996년, 2000년 베니스 비엔날레 디렉터였던 Massimiliano Fuksas와 Hans Hollein과의 인터뷰, 2004 Lille European Capital of Culture에 Droog Design이 소개한 작품들로서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예술간의 복합과 접류를 강조한 작품 특집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u>신건축</u>

11월호

이번 호에 는 그간 세지 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 에이(SANAA) 의 대표적 계 획안이 었던 카나자와21세 기미술관이



완공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또한 안도타다오가 설계를 맡아 페트병을 주 재료로 사용한 무대장치인 오페라 알반 베르 그 '보체크(Wozzeck)'의 무대디자인 그리고 1929년 완공된 코준빌딩의 새로운 복원 증축도 매우 흥미로운 기사이다.

카나자와(金沢)21세기 미술관

카나자외21세기미술관이 지난 9월 완공되었다. 이로서 카지마 세즈요(妹島和世)와 니시자와 류에이(西沢立衛)가 이끄는 SANAA는 자신들의 아카이브에 새로운 컨셉의 이 미술관에는 건축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술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서로다른 비례와 볼륨을 갖는 여러개의 백색 입방체들이 원형의 투명 울타리로 한데 묶인 형상을 한 이 미술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미술관의 컨셉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일본 미술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관객 수의 감소이다. 최근 10년간에 일본 전국 의 미술관, 박물관의 입장자 수는 1000만 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미술관이 계몽의 시 설로서 작품을 일방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내보였던 그간의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정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각 정보나 스펙터클의 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나게 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미술관 공간이 갖는 권위성과 작품의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외부로부터 단절된 폐쇄성이 관객의 발길을 끊게 만든 원인일 것이다.

'카나자와21세기미술관'을 21세기 미술관의 하나의 공간모델로서 제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술관 컨셉의 신선함과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 미술관의 스태프. 아티스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토론을 지속해 온 점 때문일 것이다. 건축설계를 맡은 SANAA는 클라이언트의 컨셉을 미술관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맞추어가며 검증하였으 며, 엄밀한 스터디를 수행했다. 이와 같은 피드 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 방의 이해를 조정하였다. 그러한 외중에서도 건 축사와 미술관측 모두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 및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풍경'을 어떻 게 아름답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 해를 보였다. 'PLATFORM(1988년)' 이래 SANAA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외관 디자인의 중



카나자와(金 沢)21세기 미술관



카나자와(金 沢)21세기 미술관

요한 요소로 생각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카나자와21세기미술관은 3M(Man:개인주의, Money:자본주의, Materialism:물질주의)으로부터 3C(Coexistence:공존, Collective Intelligence:공유지식, Conscience:의식)로의이행을 컨셉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양방하적인 참가, 공동의 창조라는 가치관이 스며있다.

각 방이 자립해 있으며, 서로 다른 비례를 가 진 미술관은 독일의 인젤 혼브로이히 미술관(이 것은 야외에 점재(點在)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 안에 이와 같은 배치를 취한 예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소 리나 향기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의 자 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룹전의 경 우 한 작품의 인상이 다음 작품에 영향을 미려 기억이나 인상이 과도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감 상자의 명확한 시각체험을 지켜나가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연광과 인공광의 공존에 의하여 자 동적으로 일정한 조도가 유지되는 공간은 외부 광선의 변화를 실내에 반영하면서도 조도를 유 지한다는, 자연과 인텔리전스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아트 등의 버츄얼한 영상과 음향공간에 있어서도 종래의 미디어랩 등에 흔 히 사용되었던 중장비를 갖춘 다크룸(블랙박스) 의 형식을 피했다. 영화관적인 다크룸은 아무래 도 20세기적인 것이다. 휘도가 높은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화이트 큐브(자연광이 들어옴)의 백색 벽면에 영상을 비추도록 하였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들의 피 지컬한 신체감각과 정보화된 버츄얼한 신체감각 을 단절하는 일 없이 공존시키려는 시도의 하나 이다.

자연의 변화와 테크놀러지에 의한 오퍼레이션을 중첩시키면서 실내는 가능한 한 미니멀하게 하였으며, 건물전체 혹은 공간전체가 작품을 담아내는 백색의 팔레트화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내의 볼륨의 다양성을 통해 표현의 배리에 이션에 대응한다는 것. 이것이 전시실의 요점인 것이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으나, 투명한 레이어(외벽, 유료존과 무료존을 감싸고 있는 아크릴의

벽, 광정의 벽 등)는 관객이나 통행인들이 다른 사람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공존, 공동창조의 장 (場)이라는 인식의 공유를 촉진시킨다. 디자인 측면에서의 주장이나 컨셉을 감소시키고 단지 필요한 것들만을 최소한도로 남김으로 인해 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 감소 하는 건축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개관 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관의 빛에 대해서 놀라운 감상을 가졌다. 외부의 빛, 전시실속의 빛, 그 안에서 빚어지는 빛의 다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들 빛의 변화는 사람들의 내적, 심적 풍경을 비출 것이다. 모뉴멘탈한 조각대신에 만남을 위해 만들어진 3개의 인터페이스터렐(空), 카프아(地), 에릿히(水)의 경계면처럼이들 모두는 매일 매일 바뀌어가는 우리들의 생활을 투영해내고 힘을 실어줄 장치인 것이다.

오페라 알반 베르그 '보체크(W●zzeck)'의 무대디자인 – 안도 타다오

변(Wine)국립극장 음악감독이며 지휘자인 小澤正爾가 그의 스승인 故 齊藤秀雄을 기리며 매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개회하는 음악회인 「사이토우 키넨 페스티벌」사이토우 키넨 페스티벌」사이토우 기념 페스티벌」 은 금년 13회째를 맞았으며, 오페라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19세기 독일의 자연학자인 게오르그 부히나의 유고에 기반한 희곡에 빈의 작곡가 아르반 베르크가 작업한 '보체크'이다. 이 오페라의연출은 현 베를린 국립가극장 총감독인 피터 무스바흐가 맡았다. 정신과의사이면서 동양의 단澤사상에도 조예가 깊은 무스바흐는 일본에서의 공연에 '동서(東西)의 만남'을 의식했다고 한



오페라 알반 베르그 '보체크(Wozzeck)'의 무대디자인 – 안도 타다오

다. 이와 같은 주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실천으로 서 안도 타다오에게 무대장치의 기획을 의뢰하게 되 거이다

무스바흐의 연출은 시대, 국경을 넘는 추상화에 의해 완전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저한 추상화를 통하여 역으로 그 안에서 공연하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인격 그리고 작은 장소성들이 보다 선명히 연출되고, 그 너머에 쌓여진 인간의 마음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연출무대에 무스바흐가 요구한 것은 순수한 큐브의 공간. 거기에 다른 세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의 깊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페트병 약44,000개로 구성된 빛의 큐브를 제안하였다. 이현대적인 소재감은 가시(可視)로부터 불가시(不可視)로, 거리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표정을 변화시키고, 빛에 따라 다양한 색체를 발하게 된다.

페트병의 벽은 두게 3mm의 아크릴 플레이 트와 병의 캡으로 수평방향으로 구속된 유니트 를 지름 2mm의 와이어로 달아맴으로써 완성 되었다. 객석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류에 의 한 흔들림, 가동부의 정밀도, 음의 공명 등 오 페라 무대장치로서 성립하기 위해 많은 유념사 항이 있었으나 현지에서의 Mockup모델을 포 함해 시공팀과 함께 실험을 반복해 가면서 만 들어갔다. 이 작업을 의뢰받았던 그 순간이래로 안도 타다오는 빛과 공기만으로 구성된 듯한 추상도 높은 공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이미지를 어떠한 소재로 구현해 낼 것인가 를 계속 고민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 이 작년 여름 田中一光展의 최장 구성에 사용 한 페트병이었다. 그 스케일감, 빛의 효과와 함 께 오페라의 무대라는 비일상적 공간을 일상에 서 흔해 빠진 베트병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 에 가능성을 느낀 것이다.

무스바흐는 이 빛의 큐브가 갖는 개성을 최 대한 끌어내면서 의상, 조명, 장치를 포함한 전 체를 긴장감 넘치는 구성으로 정리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시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한 추상 적 표현 속에 인간의 나약함과 생명의 덧없음 이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의 소우주와도 같은 것이었다.

코준(交詢)빌딩 - 시미즈(淸水)건설 〈코준빌딩 외관, 이축 복원된 실내〉

1871년 시카고 대화재와 마찬가지로 1872년에도 대화재는 가로의 모습을 근대도시 동경의 것으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긴자의 거리는 괴멸상태였고, 가로의 폭을 넓히는 사업과 가로변 건물들을 불연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때 영국인 기술자 T.J. 월터스의 안에 의해 시구(市區)개정의 효시라 할수 있는 '긴자연와가(煉瓦街)'가 완성되었다. 같은 시기 긴자에 거점을 정한 후쿠자와 류우키치(福睪諭吉)는주재하는 신문사 근처에 친구인 화학자 宇都宮三郎으로부터 연와가옥을 양도받아 초대 코준사(交詢社) 사옥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1880년일본 최초의 사교 클럽인 '코준사 구락부'가 탄생하였다.

그 후 약 반세기 동경은 1923년의 관동대지 진에 의해 다시 잿더미로 변했고, 코준사 사옥도 이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준 사는 창립 50주년을 기해 부지를 확장하고 지상 7층 규모의 제 2대 사옥을 1929년에 건설하였 다. 설계는 橫可時介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구락부에 더하여 점포나 사무소 기능이 추 가되었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독립자존하는 업 무빌딩이었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도 동시기에 미국건설회사와 시미즈건설이 공동으로 건설한 미쯔이(三井)본관에 사용된 최신공법을 채용하였



코준빌딩 외관



이축 복원된 실내

으며, 나아가 일본 독자의 내진구조인 '철골철근 콘크리트' 조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근대 構工法을 최대한 구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時介는 미스가 설계한 프리 드리히가의 초고층계획을 보기는 한 것인가'라 는 의문이 당초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時介는 1922년까지 미국의 코넬대학에 유학하여 1924 년부터 설계를 개시하였다. 미스는 1919년이래 191년까지 연속적으로 초고층빌딩 구상안을 발 표하였으며, 독일에서 막 제품화된 플라스틱으 로 제작한 모형 '유리의 마천루'의 충격이 선진 적인 코넬대학에 미쳐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보
강이라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을 갖게 된 이
건물에는 '형태만의 보존' 이상의 해결책이 요
구되었다. 행정청측에서도 용적률이나 높이의
완화에 더하여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인센티브
를 준비하였다. 그 어느 시대나 건축물은 그 시
대를 표현한다. 컨셉으로서 추구된 것은 건전하
게 자립하여 존속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장수하
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축. 즉
지금의 시대에 걸 맞는 기능을 가진 채 존속하
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많은 전략과 경제적 합리
성에 입각해가며 현실사회에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설계에 있어서 완공된지 70년이 넘는 코준빌딩을 관찰하고 빛나는 오센티티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이 건물을 성립시킨당시의 모더니즘의 모체상에 존재하는 무수한기호를 읽어내고 재구축하도록 하였다. 외부에서는 정면벽체의 현물 보존, 스테인드글라스창의 복원, 내부에서는 튜더 아치나 문쟁(紋章)조각과 같은 요소들이 풍부한 담화실, 중정, 소식당의 이축 보존이 결정되었다. 단순히 사물로서의 보존을 목표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골격이자 정신적 축이었던 것을 계승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축부와 보존부, 각각의 존엄성을 지켜가는속에서 만들어지는 신·구의 대비는 융합과 동화의 모습으로 승화하길 바랬다.

<u>a+u</u> 11월호

이번 특집 은 '스위스의 10인의 건축 사'이다. 소개 된 10인의 스 위스 건축사들 은 발레리오 올 지 아 티 (Valerio



Olgiati), 마르셀 마일리, 마커스 피터 아키텍텐 (Marcel Meili, Markus Peter Architekten)등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건축사들이지만 진중한 스위스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한 이들이다. 10인의 작품소개와 함께 오늘날 스위스 건축에 대한 에세이로 아코스 모리반스키(Akos Moravanszky)의 '스 위스박스 에세트라(Swissboxes etcetera)'가 게재되었다.

현대 스위스 건축사 10인

10인에 선정된 건축사는 발레리오 올지아티, 마르셀 마일리, 마커스 피터 아키텍텐, 베아스 &

데플라즈 아키텍텐(Bearth & Deplazes Architekten), 디에너(Diener) & 디에너 아키텍텐, 콘라딘 클라보(Conradin Clavuot), 드반테리 & 라무니에(DEVVANTHERY & LAMUNIERE), 기온 A. 카미나다(Gion A. Caminada), 밀러 & 마란타(Miller & Maranta), smarch, 모르거 & 데겔로 앤 마케스 (Morger & Degelo and Marques)이다. 소개된 이들의 작품들은 전시장, 집합주택, 호텔, 대학시설, 미술관, 주택, 초등학교, 역, 오피스빌딩 등 다양하지만 smarch의 볼프(Worb)역(驛)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플한 '스위스박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에세이: 스위스박스 이세트라

현대 스위스 건축은 국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디컨스트럭티비스티 비즘의 유명 건축사의 작품들과는 달리 스위스에서 태어나 자라난 건축사에 의한 수작(秀作)들은 '스위스 박스'라고 불릴 정도로 심플한 건물들이다. 견실하면서 진지하고, 값비싼 건축인 그 것들은, 전체적인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첫 눈에 스위스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스위스박스의 비밀은 무엇일까. 해외로부터 스위스로 건너온 사람

A.N.

마르셀 마일리, 마커스 피터 아키텍텐의 RiffRaff: 영화관, 비스트로가 있는 집합주택

들은 매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이라는 인상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남에게 전혀 피해를 줄 것 같지 않은 건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취리 히 경찰의 새로운 모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허락 한다'이다). 스위스의 건축 속에 서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 다. 오스트리아 빈(Wine)에서는 아돌프 로스. 한 스 홀라인, 코프 힘멜브라우 등에 의한 아름다운 작품들 안에서 근대로부터 포스트모던에 이르는 건축의 모든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빈과는 달리 스위스에서는 그와 같은 작품들은 감추어져 있다. 피터 준터는 유명한 건축사이지 만 츄리히의 반 호프가(街)에 건물을 세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의 사무소(아뜰리에 준터)는 쿠 르(Chur) 근교의 할덴스타인(Haldenstein)의 작 은 목조주택 속에 있으며, 그의 건물 대부분은 알프스 산간 그리손스(Grisons)에 있다. 스위스 의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우리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의 랜드스케이프를 돌 아보고,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 다.

취리히와 모던 트래디션

고전적 근대(Classical Modern)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돌데르탈(Doldertal) 하우스(마르셀 브로이어, 에밀 로스 1935)와 뉴뷜(Neubuhl) 집합주택(아르타리아 & 슈미트 외, 1930~1932)은 취리히에 세워져 있다. 스위스에서 건축사들은 이들 고전적 근대의 대표작을 시대의 산물로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스위스의 근대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정



드반테리 & 라무니에의 롤(Rolle)의 초등학교

복되는 일은 없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몇 개의 선언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 서는 사회적인 이상을 품은 영웅적인 아방가르 드는 없었다. 중요한 하우징 프로젝트의 건축사 로서 정치에도 열의를 나타내었던 한스 베르누 이는 자유경제의 교육에 관여한 일로 인해 1939 년 교직에서 해임되었다. 구상예술은 아방가르 드로부터 사회적인 의미부여를 제거한 대체물이 었다. 위험성이 없는 '착실한 형태'속에 스위스 의 사회적 컨센서스는 오랜 기간동안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거기에는 포스트모던이 빛을 발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사각형에 색을 칠하는 것은 지금도 대중적인 오락이다. 최근에는 보다 새로 운 스트리트 퍼레이드의 미의식을 통하여 진중 히 계량된 자유가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호피무늬의 표피나 건물 벽 면의 낙서를 통하여 보다 세련된 테이스트(취미) 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들을 씻 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 둔 것으로 서 의식적인 이탈행위에 그친다.

지금 현재 취리히는 활황을 누리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새로이 지어지고 있다. 다 운타운은 은행이나 부띠끄가 모이는 장소로 굳



베아스 & 데플라즈 아키텍텐의 말란(Malans)의 월터(Walther)주택

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성 있는 부지로서 는 원래 공장지구였던 시가지의 서측 교외지역 이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기존 조선공장이 오 트너 & 오트너 사무소에 의해 문화센터로 개축 되었다. 다운타운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도회 적인 감각('작은 대도시'는 수년 전부터 취리히 를 선전하는 표어였다)은 기존 공장의 적지가 풍 기는 애수 속에서 시뮬레이트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건축사들에게 취리히에서는 맛볼 수 없 었던 실험의 장들을 제공하였으며, 건축사들은 작고 복잡한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도전을 받 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앙철도역의 노선을 덮는 지붕(마르세이 마이리 & 마르크스 피터 + 제노 비겔, 1990~1999)이다. 산티아고 카라트 라바에 의한 또 하나의 다운타운에 소재한 철 도역, 종종 초현실주의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슈테텔 호펜읜 철도역(1983~1990) 등도 스타 일의 견실성으로부터 해방된 엔지니어 아키텍 쳐의 유기적인 아날로지를 강하게 나타낸다. 1995년, 일터와 공동의 거실 그리고 설비를 통 합한 집합주택 '크라프트베르그 I'이 완성되었 다. 다른 지방이나 해외에서의 스위스인 건축사 의 성공에 힘입어 취리히는 건축이 구상예술의 단순한 중립적 배경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티치노적 타이폴로지

케이블카 그리고 여가를 위한 아파트와 함께 등장한 매스 투어리즘(mass tourism)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지닌 현대 스위스 건축사들은 국 제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외국인은 산과 산을 넘어다니는 위험을 감수하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위스 사람들의 바로 이웃에 이주해살기 시작한 도시의 외교관이자 매력의 원천이기도 했다. 티치노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아스팔트화는 1960년대에 그 정점을 맞았다. 그 당시에는 ETH(취리히 스위스연방공과대학)를 갓졸업한 루이지 스놋치나 아우랄리오 갈페티 등의 건축사들이 최초의 일을 시작한 시기이다. 1970년 경에는 마리오 보타가 마리오 보타가 브루노 라이히린이나 파비오 라이하르트와 함께

'합리주의자'의 제 1세대를 구성하였다. 1972년에 도르프 슈네브리가 알도 로시를 2년간 객원교수로서 ETH에 초빙하였다. 건축을 자율적인전문영역으로 보는 신념은 알베르토 카멘친이나파비오라인하르트의 디자인 스튜디오의 근간이되었다. 알프레도 로트는 그들이 파이오니어와만났던 이야기들도 청중을 매료시키기는 했지만기술적인 플래닝의 기능적 다이어그램이나 사회적 이념 속에서 리드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는건축을 하고자 하는 신념은 잃어버렸다.

건축의 자율성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테마이다. 그 출발점은 역사적인 도시의 연속성이었다. 그러나 형식의 과학인 타이폴로지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시그널 빌딩을 디자인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스위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티치노파(派)'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전달하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마케팅에 착안한발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티치노에는 건축학교가 있다. 마리오 보타에 의해 멘도리시오에 설립된 아키텍쳐 아카데미가 바로 그것이다. 보타는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질 높은 건축을 만들어 오면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장이 담당해야 할 롤 모델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번역 / 강상훈)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4661-6999 · 만약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66-6244 · 구로구건축사회/864-6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국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37-6052 · 동작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9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388-1486 · 중로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중로구건축사회/7125-3914 · 중구건축사회/231-6748 · 중앙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교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 (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 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 /(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 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 /(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 /(031)635-0545 · 피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36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 사회/(031)375-8648 · 용민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 /(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 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 /(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 /(043)732-5752 · 체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 /(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 /(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 /(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 /(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 /(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 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9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 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꼭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 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3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 /(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 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 /(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 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 /(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 명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 /(056)883-487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4년 10월말

	_																																			
√구 분				개		인 ,	사	무	소										법	ç	<u> </u>	사	무	소							용	역	합	계	비율	(%)
건 축	19	긴	29	인	3	인	4	인	5인	이상	소	계	19	<u> </u>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인	이상	소	계	사	구소	l ^u	711		(/0/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ō
합계	5,021	5,021	242	484	44	132	3	12	0	0	5,310	5,649	1,397	1,397	263	520	93	279	28	109	18	90	7	42	5	35	6	54	1,817	2,526	9	9	7,136	8,184	100,0%	100,0%
서울	1,250	1,250	69	138	18	54					1,337	1,442	842	842	169	338	55	165	17	68	8	40	4	24	5	35	4	35	1,104	1,547	8	8	2,449	2,997	34,3%	36,6%
부산	532	532	29	58	3	9					564	599	65	65	14	28	5	15	2	8	4	20	2	12					92	148			656	747	9,2%	9,1%
대구	392	392	38	78	12	36	1	4			443	510	27	27	12	24	11	33			4	20							54	104			497	614	7,0%	7,5%
인천	226	226	3	6							229	232	44	44	7	13													51	57			280	289	3,9%	3,5%
광주	192	192	3	6							195	198	33	33	10	20	3	9	4	16			1	6					51	84			246	282	3,4%	3,4%
대전	209	209	18	36	3	9					230	254	25	25	6	12	2	6									1	11	34	54			264	308	3,7%	3,8%
울산	132	132	9	18	5	15	1	4			147	169	14	14	1	2	1	3											16	19			163	188	2,3%	2,3%
경기	639	639	27	52							666	691	217	217	26	47	8	25			1	5							252	294			918	985	12,9%	12,0%
강원	154	154	5	10							159	164	23	23	3	6					1	5							27	34			186	198	26%	2,4%
충북	160	160	9	18							169	178	18	18	6	12	0	0	2	8							1	8	27	46			196	224	27%	2,7%
충남	147	147	3	6							150	153	30	30			2	6	1	4									33	40			183	193	2,6%	2,4%
전북	183	183	1	2	1	3					185	188	6	6	2	4	4	11	2	5									14	26			199	214	2,8%	2,6%
전남	131	131									131	131	9	9			1	3											10	12			141	143	2,0%	1,7%
경북	259	259	15	30	0	0					274	289	21	21	1	2	1	3											23	26	1	1	298	316	4,2%	3,9%
경남	313	313	12	24	2	6	1	4			328	347	17	17	6	12													23	29			351	376	4,9%	4,6%
제주	102	102	1	2							103	104	6	6															6	6			109	110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비 율	문외면
합 계	8,174	10	8,184	100.0%	27
서 울	2,994	3	2,997	36,6%	15
부 산	746	1	747	9.1%	8
대 구	614	0	614	7.5%	0
인 천	289	0	289	3.5%	0
광 주	282	0	282	3.4%	0
대 전	307	1	308	3.8%	0
울 산	188	0	188	2,3%	0
경 기	983	2	985	12,0%	2
강 원	198	0	198	2.4%	0
충 북	224	0	224	2,7%	1
충 남	190	3	193	2,4%	0
전 북	214	0	214	2,6%	0
전 남	143	0	143	1.7%	0
경 북	316	0	316	3.9%	1
경 남	376	0	376	4.6%	0
제 주	110	0	11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고
회 원 수	5.649	2,526	9	8,184	
비 율	69.0%	30.9%	0.1%	100.0%	
사무소수	5,310	1,817	9	7,136	
비 율	74.4%	25.5%	0.1%	100.0%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각종 공제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항)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이	•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500~1,500만원 : 50%
- 1,500~3,000만원 : 15%	- 1,500~3,000만원: 15%
- 3,000~4,500만원 : 10%	- 3,000~4,500만원: 10%
- 4,500만원 초과 : 5%	- 4,500만원 초과 : 5%

2. 기본공제대상 부양기족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50조)

중 전 개 정 •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대상 부 양가족의 범위 확대 의 개본공에 대상 이 포함 기본공제 대상 에 포함 의 기본공제 대상 에 포함 의 100만원이하의 자 - 지계비속과 동거입앙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가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중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신한 자 포함		
양가족의 범위 - 계부·계모를 기본공제 대상 에 포함 세 이상인 자료서 연간소득금 액 100만원이하의 자 - 지계비속과 동거입앙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각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 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신한	종 전	개 정
	앙가족의 범위 -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 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 액 100만원이하의 자 - 직계비속과 동개입양자으로서	- 계부 : 계모를 기본공제 대상 에 포함 -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작계존속 과 혼인 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 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3.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 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 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 한 의료비 ·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 의 교육비 · 의료비 등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후 인 이후 별거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 ·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4.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개 정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의료비공제금액 : 총급여액
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의료비

5.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 부최(2003.7.30 개정) 제2조 제2항)

118/ 11E= 11E8/	
종 전	개 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하도 : 45만원	• 세약공제율 상향조정 (신출세약이) - 50만원 이하: 55% 공제 - 50만원 초과: 275,000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 상향조점: 50만원
- 9/107 - 4002	- 9415T 99T9 : 2055

6.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종 전	개 정
• 6세이하 영유이를 가진 근로 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 적으로 소득공제 - 대상: 여성인 근로자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 육비공제 중 선택 (비과세 규정 신설)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 액 확대 대상: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 공제금액: 연(00만원 -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하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 · 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한도 : 월 10만원

7.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호)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 · 중 · 고생 : 연 200만원 · 대학 생 : 연 500만원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 · 중 · 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생 : 연 700만원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제9화)

종 전	개 정
(신설)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 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 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9.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

 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조
 저

 개

꽁 신	개 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①,② 중에서 선택
따라① 또는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
당 비과세	용하여 분리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 비과세, 공제 · 감면 적용 배제
② 소득공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
- 공제대상	외근무수당 비과세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는 외국인임직원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괴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상기 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
- 공제비용	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월세 지출액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 공제한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 - 공	의무자에 신청
제비용)의 40%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신청서(별지8호서식)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 주 택임치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처입금 이자상환 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앙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차입금 요건 (시행령 제112조)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 (거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 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입 할 것 • 공제한도(소득세법 제52조 제 5항) - 연 600만원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서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상환기 간 15년 미만의 주택저당처입 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처입금으로 상환하는 경 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확대 면 1천만원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

한법 제126조의2) 종 전

0 4	/11 0
• 소득공제대상	• 소득공제대상 확대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03, 12, 1 이후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0l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 득공 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래의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공제율 적용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신용카드 등 : 20%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
· 직불카드 : 30%	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
	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지로로 납부
〈신 설〉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12.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호)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9조 제항 제4호 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연 700만원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매년 2월말까지 제출(단, 폐업 시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ho25400@nts.go.kr